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07. 02.(월) 12:00	통계청 여성가족부
	배포일시	2018. 07. 02.(월) 09:00	
	담당부서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성별영향평가과	
	담 당 자	통 계 청 과 장: 이재원 (042-481-2233) 사무관: 이영수 (042-481-2242)	
		여성가족부 과 장: 황우정 (02-2100-6171) 사무관: 안석규 (02-2100-6175)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이 작성한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일 러 두 기

□ 최근 우리 사회는 여성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성관련 정책도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1997년 이후 매년 양성평등주간*마다 여성의 모습을 부문별로 조명하는「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 양성평등주간 : 7. 1. ~ 7. 7.(양성평등기본법 및 시행령)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은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협력하여 작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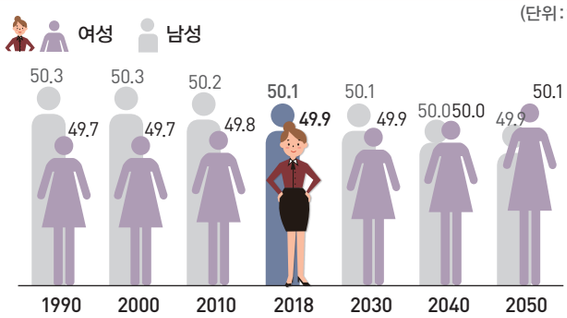
□ 보도자료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 된 것으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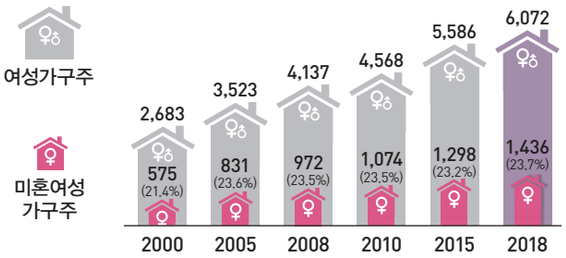
2018년 여성인구는 총인구의 49.9%를 차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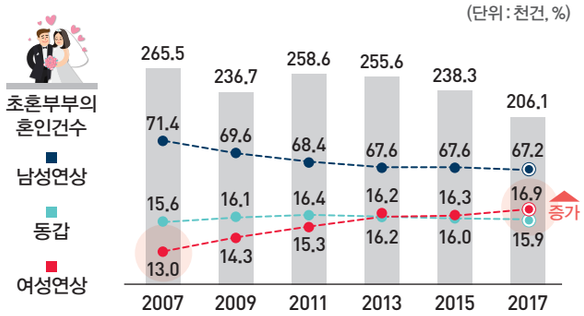
2018년 여성 가구주는 607만 2천 가구, 그 중 미혼은 23.7%

(단위 : 천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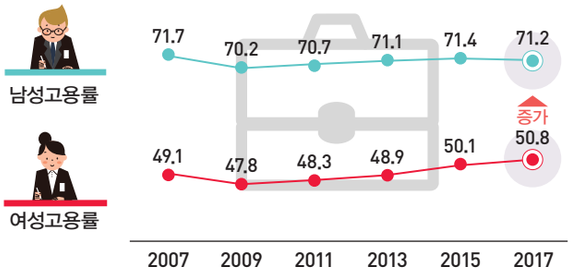
2017년 여성 연상 부부는 16.9%로 10년 전보다 3.9%p 증가

(단위 : 천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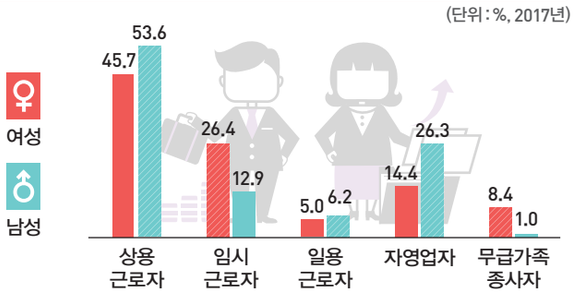
여성 고용률의 지속적 증가로 남녀 고용률 차이는 감소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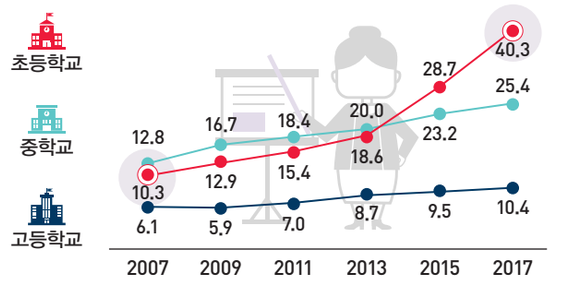
임시근로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는 여성이, 상용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남성이 높음

(단위 : %,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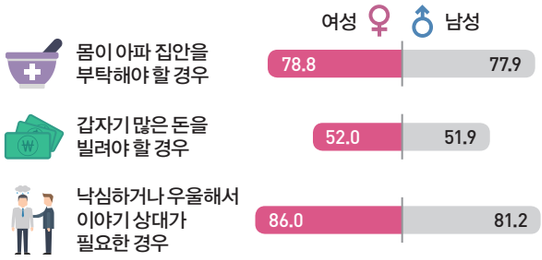
10년 전보다 초등학교 교장 중 여성 비율은 30.0%p 증가

(단위 : %, 여성 교장 비율)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관계망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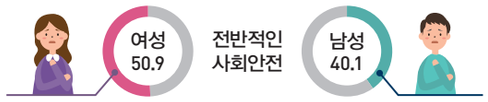
(단위 : %, 2017년)



*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

사회 안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하다고 느낌

(단위 : %, 2016년)



	범죄발생	신종질병	정보보안	교통사고	국가안보
여성	73.3	65.5	53.4	52.5	48.3
남성	60.6	58.4	50.5	48.1	42.5

*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 비율

목 차

□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요약] ····· 1

□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6

Ⅰ. 인구와 가구
1. 인구추이 ····· 7
2. 연령대별 인구 ····· 8
3. 가구주 ····· 9
4. 1인 가구 ····· 11

Ⅱ. 가 족
5. 혼인 ····· 13
6. 이혼 ····· 14
7. 외국인과의 혼인·이혼 ····· 15
8. 출생아수 및 출생성비 ····· 16
9. 가족 관계 만족도 ····· 17

Ⅲ. 건 강
10. 기대여명 ····· 18
11. 사망률 ····· 19
12. 흡연 및 음주 ····· 20
13. 스트레스 및 우울감 ····· 21
14. 주관적 건강인지율 ····· 22

Ⅳ. 경제활동
15. 고용동향 ····· 23
16. 연령대별 고용률 ····· 24
17. 교육정도별 취업자 ····· 25
18. 직업별 취업자 ····· 26
19.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 27
20. 근로형태별 취업자 ····· 28
21. 시간제 근로자 ····· 29
22.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 30

23. 근로여건 ····· 31
24. 사회보험 가입률 ····· 32
25.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 33
26. 첫 직장 이직사유 ····· 34

Ⅴ. 사회적 지위
27. 대학진학률 ····· 35
28. 교원 ····· 36
29. 학업성취도 ····· 37
30. 여성 관리자 ····· 38
31. 공무원 및 법조인 ····· 39
32. 의료 분야 ····· 40
33.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 41

Ⅵ. 문화·여가 및 사회참여
34. 문화활동 ····· 42
35. 여가활동 ····· 43
36. 나눔활동 ····· 44
37. 단체참여 ····· 45
38. 사회적 관계망 ····· 46
39. 투표율 ····· 47

Ⅶ. 안 전
40.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 48
41. 주요 범죄의 피해자 ····· 49
42. 주요 범죄의 범죄자 ····· 50
43. 1366(여성긴급전화) 상담 ····· 51

Ⅷ. 통계표 ····· 53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요약)

◆ 인구와 가구

2018년 여성인구는 2,575만4천명으로 총인구의 49.9%를 차지함

○ 2018년 **여성인구는 2,575만4천명으로 총인구의 49.9%**를 차지하며, 50대 이하는 상대적으로 남성인구가 많고 60대 이상은 여성인구가 많음

- 연령대별 성비는 20대가 114.0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대(108.6명)임
  - 출생 성비(출생시 여아 100명 당 남아 수) : 109.4명('85) → 116.5명('90) → 113.2('95)

(단위 : 명, 천명)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성비[1]	100.5	105.5	108.2	**114.0**	**108.6**	103.8	100.4	95.1	79.0	47.3
남녀 차이(남-여)	127	119	199	454	307	159	18	**-146**	**-395**	**-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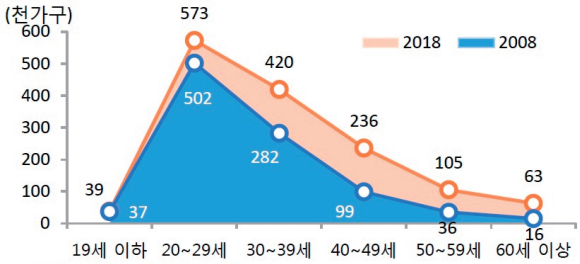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12.
주 : 1) 여성 100명 당 남성 수

○ 2018년 우리나라 가구의 **30.7%는 여성이 가구주**이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여성 가구주 비율(%) : 18.5('00) → 26.1('10) → 30.7('18) → 34.8('30)

- **미혼 여성 가구주는 10년 전보다 47.8% 증가**하였으며, 40대는 2.4배, 50대는 3배, 60세 이상은 4배 증가함 • 미혼 여성 가구주(가구) : 97만2천('08) → 143만6천('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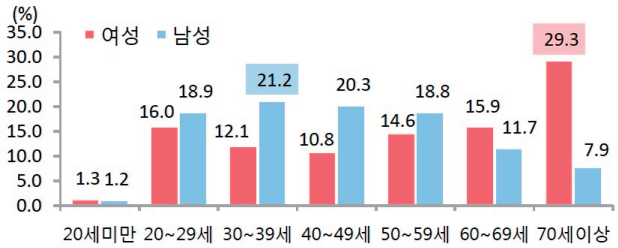
○ 2018년 1인 가구 비중은 **여성은 「70세 이상」, 남성은 「30대」**가 가장 높음

[연령대별 미혼 여성 가구주]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연령별 1인 가구 구성비(2018년)]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 가족

2017년 여성이 연상인 부부는 16.9%로 10년 전보다 3.9%p 증가함

○ 2017년 **초혼부부의 혼인건수는 20만6천건**으로 10년 전보다 22.4% 감소, 그 중 **여성이 연상인 부부는 16.9%**로 10년 전보다 3.9%p 증가함
  - 초혼부부의 혼인건수(천건) : 265.5('07) → 206.1('17) 여성 연상 비율(%) : 13.0('07) → 16.9('17)

○ 2017년 **이혼건수는 10만6천건**으로 10년 전보다 14.5% 감소, 그 중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의 이혼은 3만3천건**으로 10년 전보다 32.5% 증가함
  - 이혼건수(천건) : 124.1('07) → 106.0('17)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의 이혼(천건) : 25.0('07) → 33.1('17)

○ 2017년에는 출산순위별 **출생성비가 모두 정상범위(103~107명)** 수준임

- 출산순위별 출생성비(여아 100명 당 남아 수) : 첫째아 106.5명, 둘째아 106.1명, 셋째아 106.5명

○ 자기 부모와의 만족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와의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

(단위 : 천건, 명)

	전반적인 가족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기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여성	54.7	58.5	**64.4**	46.7
남성	**58.3**	**71.3**	63.4	**57.4**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6,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 비율

◆ 건강

2016년 기준 기대수명과 유병기간 제외 기대여명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길고, 주관적 건강 기대수명은 남성이 더 김

○ 2016년 기준 **기대수명과 유병기간 제외 기대여명은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6.1년, 0.5년 더 긴** 반면, 주관적 건강 기대여명은 남성이 0.4년 더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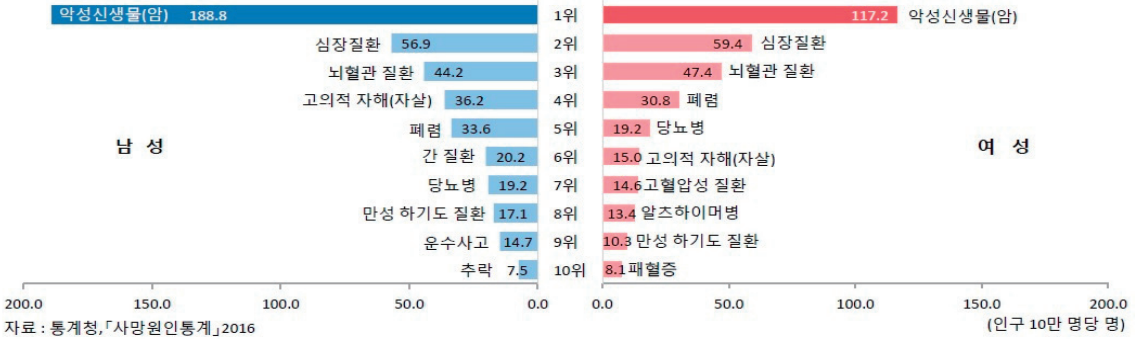
(단위 : 년)

	기대수명	유병기간 제외 기대여명	주관적 건강 기대여명
여성	**85.4**	**65.2**	68.4
남성	79.3	64.7	**68.8**

자료 : 통계청, 「생명표」 2016

○ 2016년 10대 사망원인별 사망률 중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고혈압성 질환」, 「알츠하이머병」, 「패혈증」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

[성별 사망원인 순위(2016년)]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6

○ 2016년 **여성의 현재 흡연율은 6.1%, 고위험 음주율은 5.4%로 전년보다 증가함**

- 여성의 현재 흡연율(%) : 5.3('15) → 6.1('16)
-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 : 5.1('15) → 5.4('16)

○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남성이 높고,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은 여성이 높음

(단위 : %)

	주관적 건강인지율(2016년)	스트레스 인지율(2016년)	우울감 경험률(2015년)
여성	27.7	**28.8**	**16.8**
남성	**34.4**	27.0	9.7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16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 경제활동

여성 고용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남녀 고용률 차이는 감소함

○ 2017년 **여성 고용률은 50.8%**로 지속적 증가 추세로, 남녀 고용률 차이는 **2003년 24.7%p에서 2017년 20.4%p까지 감소**함

- 여성 고용률(%) : 47.4('03) → 50.8('17) 남성 고용률(%) : 72.1('03) → 71.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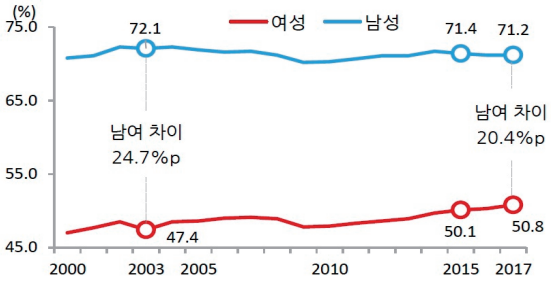
○ 2017년 **여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77.2%**로 남성(72.7%)보다 4.5%p 높으나,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여성(45.7%)**이 남성(53.6%)보다 7.9%p 낮음

○ 2017년 **여성 월평균 임금은 229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남성 임금의 67.2% 수준**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함

- 여성 월평균 임금 : 220만3천원('16) → 229만8천원('17) 임금수준(%) : 67.0('16) → 67.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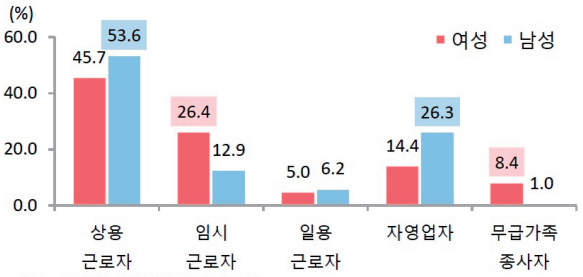
○ 2017년 여성취업에 대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90.2%**,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육아 부담(47.9%)」**임

[성별 고용률]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지위별 구성비(2017년)]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사회적 지위

2016년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4%로 10년 전보다 약 2배 증가함

○ 2017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72.7%**로 남학생(65.3%)보다 7.4%p 높음

- 학교급별 **여성 교장 비율은 10년 전보다 초등학교 30.0%p, 중학교 12.6%p, 고등학교 4.3%p 증가**함

(단위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7	10.3	12.8	6.1
2017	**40.3**	**25.4**	**10.4**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여성 교장 비율

○ 2016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결과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4%**로 10년 전보다 약 2배 증가함 • 여성 관리자 비율(%) : 11.0('06) → 20.4('16)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 고용상 성차별 해소 또는 평등촉진을 위해 특정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로,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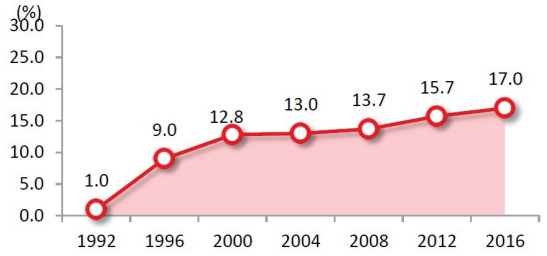
○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17년 처음으로 50%를 넘었으며, 여성 법조인은 26.1%로 전년보다 0.8%p 증가**함

• 국가직 여성공무원 비율(%) : 49.8('16) → 50.2('17) • 여성 법조인 비율(%) : 25.3('16) → 26.1('17)

- **의료 분야의 여성 비율** : 의사 25.4%, 치과의사 27.0%, 한의사 21.0%, 약사 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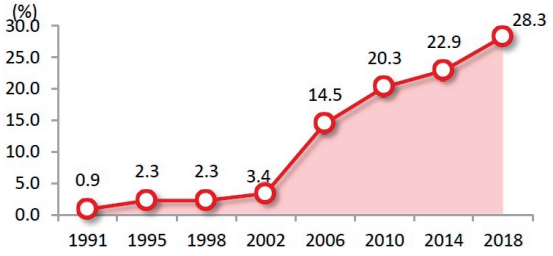
○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중 **여성 비율은 증가 추세**임

[국회의원 여성 비율]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의원선거총람」

[지방의회 의원 여성 비율]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 문화 · 여가 및 사회참여

기부경험, 자원봉사활동 경험 및 사회적 관계망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

○ 2017년 지난 1년 동안 공연, 전시 및 스포츠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여성은 67.1%로 남성(66.0%)보다 1.1%p 높음**

- 문화활동 중「스포츠 관람」을 제외하고는 **영화, 연극·마당극·뮤지컬, 박물관 관람 등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2017년 기부경험과 자원봉사활동 경험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으나, 단체 활동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

-「종교단체」,「지역사회모임」,「시민사회단체」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활동함

(단위 : %)

	기부경험	자원봉사활동			단체참여	종교단체	지역사회모임	시민사회단체
		경험 있음	평균 횟수	봉사 시간				
여성	**27.4**	**18.8**	**9.2**	**27.2**	48.7	**33.7**	**10.8**	**9.4**
남성	25.9	16.8	7.3	23.7	**50.7**	22.7	10.0	7.5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2017

○ 2017년 **사회적 관계망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으며**, 2013년 이후 증가 추세임

(단위 : %)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2013	2015	2017	2013	2015	2017	2013	2015	2017
여성	74.4	76.7	**78.8**	45.9	49.8	**52.0**	**82.9**	**84.2**	**86.0**
남성	**75.0**	**76.9**	77.9	**48.1**	**50.4**	51.9	79.2	80.5	81.2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 도움 받을 사람 있다고 응답한 비율

○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 투표율(77.3%)이 남성(76.2%)보다 높았으며, **50대 이하에서는 여성 투표율이 높고, 60대 이상은 남성 투표율이 높게** 나타남

(단위 : %)

	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여성	80.9	79.1	79.0	77.1	77.0	77.0	79.3	83.1	78.5	49.5
남성	74.8	75.4	71.1	71.7	71.4	72.9	77.9	85.2	86.1	70.8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선거총람」 2017

◆ 안전

사회 안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 하다고 느낌

○ 2016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여성은 50.9%가 불안하다 느끼며, 남성(40.1%)보다 10.8%p 높음

- 사회 안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 하다고 느끼며, 특히 「범죄발생」 에 대해 남녀 차이(12.7%p)가 가장 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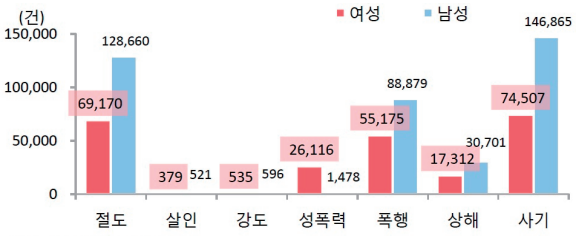
	전반적인 사회 안전	국가 안보	자연 재해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 사고	화재	먹거리	식량 안보	정보 보안	신종 질병	범죄 발생
여성	50.9	48.3	38.8	36.6	52.5	31.2	44.5	25.6	53.4	65.5	73.3
남성	40.1	42.5	32.9	30.9	48.1	27.0	38.5	23.1	50.5	58.4	60.6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6,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 비율

○ 2016년 절도, 살인, 강도, 성폭력 등 형법범 주요 범죄 중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17배 많으며, 다른 범죄는 남성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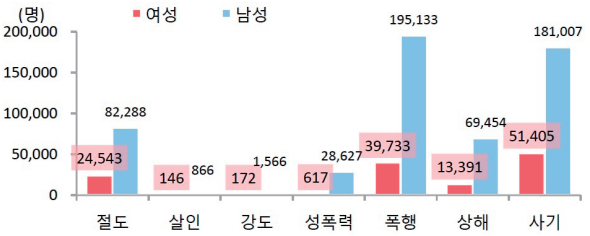
- 형법범 주요 범죄 중 여성 범죄자는 「사기」 가 51,405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폭행」, 「절도」 순임

[성별 피해자 현황(2016년)]



자료 : 대검찰청,「범죄분석」

[성별 범죄자 현황(2016년)]



자료 : 대검찰청,「범죄분석」

○ 2017년 1366(여성긴급전화)을 이용한 상담 건수는 총 28만9천건, 상담 내용은 「가정폭력」 이 가장 많으며, **전년보다 「성폭력(29.9%)」, 「성매매(28.6%)」, 「중독(9.4%)」, 「가정폭력(9.3%)」 순으로 많이 증가함**

(단위 : 건)

	계	가정폭력	가족문제	부부갈등	이혼	중독	성폭력	성상담	성매매	법률
2016	266,901	164,937	6,415	5,164	3,256	1,321	16,526	863	2,647	2,711
2017	289,032	180,326	6,302	5,027	2,477	1,445	21,470	508	3,405	2,212

자료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Ⅰ. 인구와 가구

1. 인구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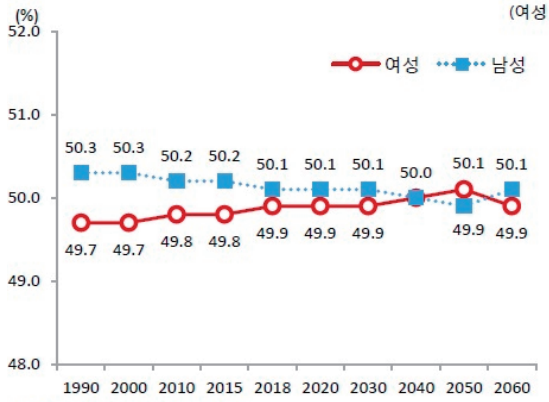
2018년 여성 인구는 2,575만4천명으로 총인구의 49.9%를 차지함

□ 2018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163만5천명, 이 중 여성 인구는 전년보다 0.4% 증가한 2,575만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49.9%를 차지함

□ 2018년 성비(여성 100명 당 남성 수)는 100.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8년에 100.0이 되고, 그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45년 99.7명까지 떨어졌다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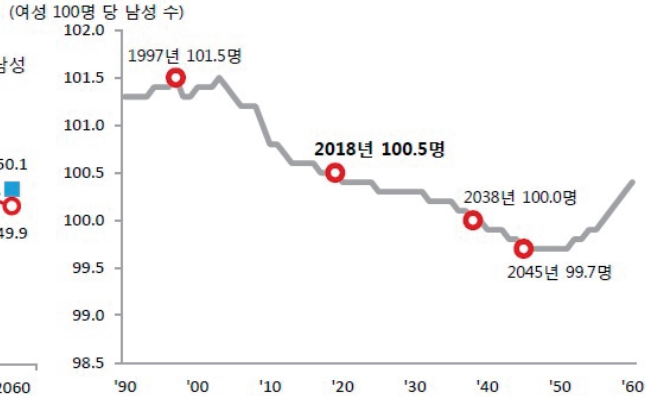
* 성비 추이 : 101.5명(1997년) → 100.5명(2018년) → 100.0명(2038년) → 99.7명(2045년)

< 인구 비중 >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 성비 추이 >



【 인구 추이 】

(단위 : 천명, %, 명)

	총인구	증감률[1]	여 성	증감률	구성비	남 성	증감률	구성비	성 비[2]
1990	42,869	1.0	21,301	1.0	49.7	21,568	1.0	50.3	101.3
2000	47,008	0.8	23,341	0.8	49.7	23,667	0.9	50.3	101.4
2010	49,554	0.5	24,673	0.6	49.8	24,881	0.4	50.2	100.8
2015	51,015	0.5	25,429	0.5	49.8	25,586	0.6	50.2	100.6
2017	5,1446	0.4	25,656	0.4	49.9	25,790	0.4	50.1	100.5
2018	51,635	0.4	25,754	0.4	49.9	25,881	0.4	50.1	100.5
2020	51,974	0.3	25,930	0.3	49.9	26,044	0.3	50.1	100.4
2030	52,941	0.1	26,434	0.1	49.9	26,508	0.1	50.1	100.3
2040	52,198	-0.3	26,106	-0.3	50.0	26,092	-0.3	50.0	99.9
2050	49,433	-0.7	24,755	-0.7	50.1	24,678	-0.7	49.9	99.7
2060	45,246	-1.0	22,578	-1.0	49.9	22,668	-0.9	50.1	100.4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16. 12.
주 : 1) 전년대비 증감률임
2) 여성 100명 당 남성 수

2. 연령대별 인구

연령대별 성비는 20대가 114.0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대(108.6명)임

□ 2018년 연령대별 인구는 40~50대가 여성과 남성 모두 16% 이상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30대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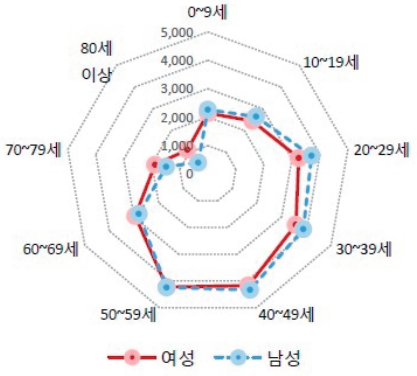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50대까지는 상대적으로 남성 인구가 많고 60대 이상에서는 여성 인구가 더 많음

- 특히, 20대의 성비는 114.0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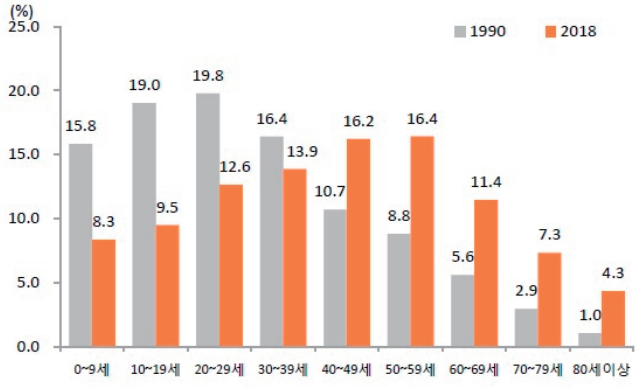
* 출생 성비(출생시 여아 100명 당 남아 수) : 109.4명('85) → 116.5명('90) → 113.2명('95)

□ 2018년 여성 인구를 1990년과 비교하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30대 이하는 감소하고, 40대 이상은 증가함

< 성별·연령대별 인구(2018년) >



< 여성의 연령대별 인구 추이 >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 연령대별 인구 】

(단위 : 천명, %, 명)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여성	1990	21,301	3,368	4,050	4,209	3,491	2,275	1,871	1,189	625	223
	2000	23,341	3,188	3,334	3,985	4,164	3,414	2,197	1,751	961	348
	2010	24,673	2,296	3,134	3,329	4,012	4,219	3,382	2,136	1,514	651
	2017	25,656	2,181	2,517	3,225	3,635	4,228	4,187	2,804	1,832	1,049
	2018	**25,754**	**2,146**	**2,439**	**3,249**	**3,569**	**4,174**	**4,227**	**2,949**	**1,886**	**1,116**
	구성비	100.0	8.3	9.5	12.6	13.9	16.2	16.4	11.4	7.3	4.3
남성	1990	21,568	3,678	4,318	4,460	3,686	2,369	1,741	869	367	80
	2000	23,667	3,593	3,638	4,222	4,357	3,528	2,175	1,447	569	136
	2010	24,881	2,473	3,504	3,644	4,253	4,359	3,370	1,954	1,051	272
	2017	25,790	2,304	2,727	3,677	3,927	4,375	4,219	2,654	1,422	484
	2018	**25,881**	**2,265**	**2,639**	**3,703**	**3,876**	**4,333**	**4,245**	**2,803**	**1,491**	**527**
	구성비	100.0	8.8	10.2	14.3	15.0	16.7	16.4	10.8	5.8	2.0
성비[1]		100.5	105.5	108.2	114.0	108.6	103.8	100.4	95.1	79.0	47.3
남녀 차이(남-여)		127	119	199	454	307	159	18	-146	-395	-588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16. 12.

주 : 1) 여성 100명 당 남성 수

3. 가구주

2018년 우리나라 가구의 30.7%는 여성이 가구주로 2000년(18.5%)보다 12.2%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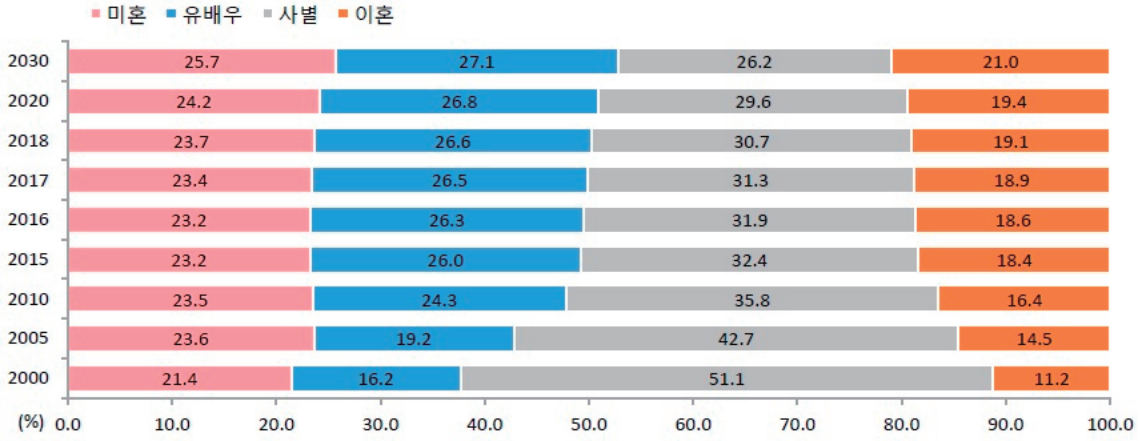
□ 2018년 우리나라 여성 가구주는 607만2천 가구로 전체의 30.7%를 차지함

○ 여성 가구주 비율은 2018년 30.7%에서 2020년 31.6%, 2030년 34.8%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여성 가구주 비율(%) : 18.5('00) → 26.1('10) → 30.7('18) → 31.6('20) → 34.8('30)

○ 혼인상태별 여성 가구주 구성비를 살펴보면, 미혼, 유배우 및 이혼은 증가 추세이며, 사별은 감소 추세임

< 혼인상태별 여성 가구주 구성비 >



자료 : 통계청,「장래가구추계」

【 혼인상태별 여성 가구주 】

(단위 : 천가구, %)

	가구	여 성 가구주	구성비	소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남 성 가구주
2000	14,507	2,683	18.5	100.0	21.4	16.2	51.1	11.2	11,824
2005	16,039	3,523	22.0	100.0	23.6	19.2	42.7	14.5	12,515
2008	16,883	4,137	24.5	100.0	23.5	22.6	38.2	15.7	12,746
2010	17,495	4,568	26.1	100.0	23.5	24.3	35.8	16.4	12,926
2015	19,013	5,586	29.4	100.0	23.2	26.0	32.4	18.4	13,427
2016	19,285	5,757	29.9	100.0	23.2	26.3	31.9	18.6	13,528
2017	19,524	5,916	30.3	100.0	23.4	26.5	31.3	18.9	13,608
2018	19,752	6,072	30.7	100.0	23.7	26.6	30.7	19.1	13,680
2020	20,174	6,372	31.6	100.0	24.2	26.8	29.6	19.4	13,803
2030	21,641	7,524	34.8	100.0	25.7	27.1	26.2	21.0	14,117

자료 : 통계청,「장래가구추계」2017. 4.

미혼 여성 가구주는 증가 추세이며, 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많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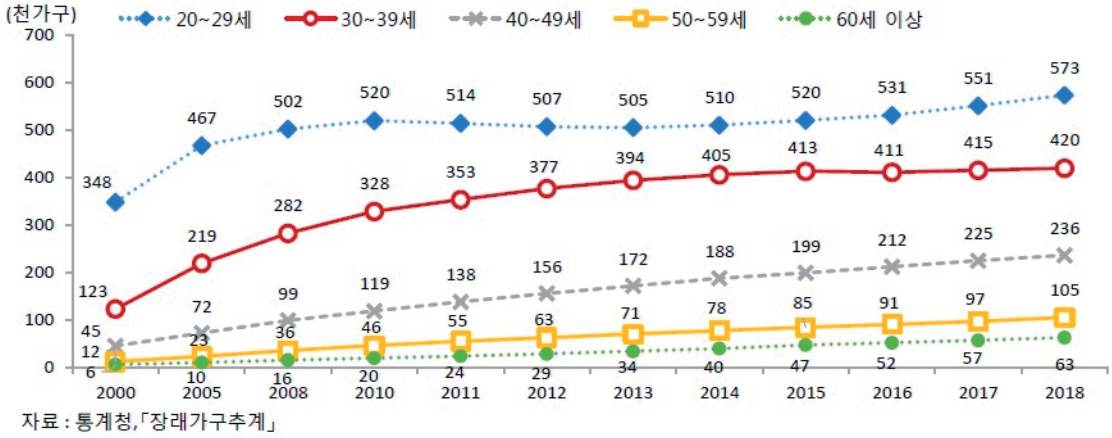
□ 2018년 혼인상태가 미혼인 여성 가구주는 143만6천 가구로 여성 가구주 중 23.7%를 차지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미혼 여성 가구주가 20대인 경우가 39.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30대(29.2%), 40대(16.4%), 50대(7.3%) 순으로 나타남

○ 미혼 여성 가구주는 10년 전(97만2천 가구)에 비해 47.8% 증가함

- 특히, 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많이 증가하였는데 40대는 2.4배, 50대는 약 3배, 60세 이상은 약 4배 증가함

< 미혼 여성 가구주 연령대별 구성비 >



【 연령대별 미혼 여성 가구주 】

(단위 : 천가구, %)

	미혼 여성 가구주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0	575	40	348	123	45	12	6
2005	831	39	467	219	72	23	10
2008	972	37	502	282	99	36	16
2010	1,074	41	520	328	119	46	20
2015	1,298	33	520	413	199	85	47
2016	1,338	42	531	411	212	91	52
2017	1,385	40	551	415	225	97	57
2018	1,436	39	573	420	236	105	63
구성비	100.0	2.7	39.9	29.2	16.4	7.3	4.4

자료 : 통계청,「장래가구추계」2017. 4.

4. 1인 가구

2018년 여성 1인 가구는 284만3천 가구로 꾸준히 증가 추세임

□ 2018년 일반가구는 1,975만2천 가구이며, 그 중 1인 가구는 573만9천 가구로 29.1%를 차지하며 지속적 증가 추세임

○ 2010년 이전은 우리나라 주된 가구형태가 4인 이상 가구였으나, 2015년 이후는 1인 가구가 주된 가구형태가 되었음

【 가구원수별 가구 】

(단위 : 천가구, %)

	일반가구	1인	비율	2인	3인	4인 이상
2000	14,312	2,224	15.5	2,731	2,987	6,369
2005	15,887	3,171	20.0	3,521	3,325	5,871
2010	17,339	4,142	23.9	4,205	3,696	5,296
2015	19,111	5,203	27.2	4,994	4,101	4,813
2016	19,368	5,398	27.9	5,067	4,152	4,751
2017[1)]	19,524	5,562	28.5	5,261	4,173	4,528
2018	19,752	5,739	29.1	5,411	4,212	4,389
구성비	100.0	29.1	-	27.4	21.3	22.2

자료 : 통계청,「인구총조사」각년도,「장래가구추계」2017. 4.
주 : 1) 2017년 이후는 장래가구추계 자료임

□ 2018년 우리나라 총 1인 가구 중 여성 1인 가구는 284만3천 가구로 49.5%를 차지함

○ 2016년 이전은 여성 1인 가구가 남성 1인 가구보다 많았으나, 2017년부터는 남성 1인 가구가 여성 1인 가구보다 많아져 그 차이가 2035년 4.4%p까지 벌어질 전망임

【 1인 가구 】

(단위 : 천가구, %, %p)

	총 1인 가구	여 성	구성비	남 성	구성비	차이[1)] (여-남)
2005	3,171	1,753	55.3	1,418	44.7	10.6
2010	4,142	2,218	53.5	1,924	46.5	7.0
2015	5,203	2,610	50.2	2,593	49.8	0.4
2016	5,398	2,722	50.4	2,676	49.6	0.8
2017[2)]	5,562	2,766	49.7	2,797	50.3	-0.6
2018	5,739	2,843	49.5	2,896	50.5	-1.0
2025	6,701	3,234	48.3	3,466	51.7	-3.4
2035	7,635	3,650	47.8	3,985	52.2	-4.4

자료 : 통계청,「인구총조사」각년도,「장래가구추계」2017. 4.
주 : 1) 구성비의 차이임
2) 2017년 이후는 장래가구추계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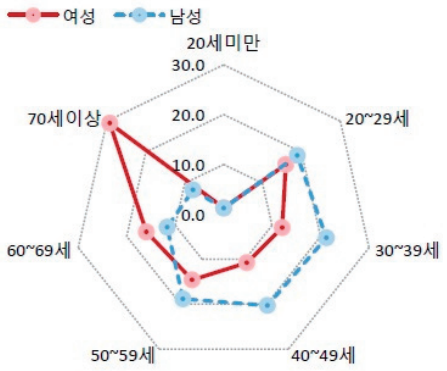
2018년 1인 가구 비중은 여성은「70세 이상」, 남성은「30대」가 가장 높음

□ 2018년 여성 1인 가구는 70세 이상이 29.3%로 가장 높고, 다음은 20대(16.0%), 60대(15.9%) 순으로 많음

- 여성은 60세 이상이 1인 가구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남성 1인 가구는 20대~5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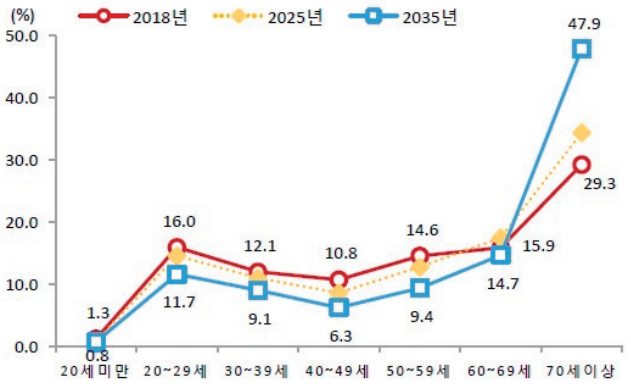
○ 2018년 이후 여성 1인 가구의 연령대별 구성비는 60대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70세 이상은 증가하여 2035년에는 70세 이상 비중이 47.9%로 가장 많고, 30대와 50대는 9% 수준, 40대는 6%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연령대별 1인 가구(2018년) >



자료 : 통계청,「장래가구추계」

< 연령대별 여성 1인 가구 추계 >



【 연령대별 1인 가구 】

(단위 : 천가구, %)

		1인 가구	연령대별 1인 가구 구성비							
			계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여성	2005	1,753	100.0	1.2	18.1	12.5	11.7	11.5	18.5	26.5
	2010	2,218	100.0	1.1	16.0	12.7	11.1	13.4	16.2	29.4
	2015	2,610	100.0	1.1	15.4	13.1	11.8	15.3	15.6	27.6
	2017[1)]	2,766	100.0	1.4	15.8	12.5	11.1	14.9	15.8	28.5
	2018	**2,843**	**100.0**	**1.3**	**16.0**	**12.1**	**10.8**	**14.6**	**15.9**	**29.3**
	2025	3,234	100.0	0.9	14.6	11.1	8.7	12.8	17.5	34.4
	2035	3,650	100.0	0.8	11.7	9.1	6.3	9.4	14.7	47.9
남성	2005	1,418	100.0	1.6	25.5	28.9	19.0	11.6	7.5	5.9
	2010	1,924	100.0	1.3	21.2	26.4	19.8	15.3	8.7	7.3
	2015	2,593	100.0	1.1	18.7	23.5	20.9	18.4	10.1	7.3
	2017[1)]	2,797	100.0	1.3	18.8	22.0	20.5	18.7	11.1	7.6
	2018	**2,896**	**100.0**	**1.2**	**18.9**	**21.2**	**20.3**	**18.8**	**11.7**	**7.9**
	2025	3,466	100.0	0.8	16.4	18.2	18.8	19.9	15.9	10.0
	2035	3,985	100.0	0.7	12.4	15.2	17.4	19.3	18.5	16.5

자료 : 통계청,「인구총조사」각년도,「장래가구추계」2017. 4.
주 : 2017년 이후는 장래가구추계 자료임

Ⅱ. 가 족

5. 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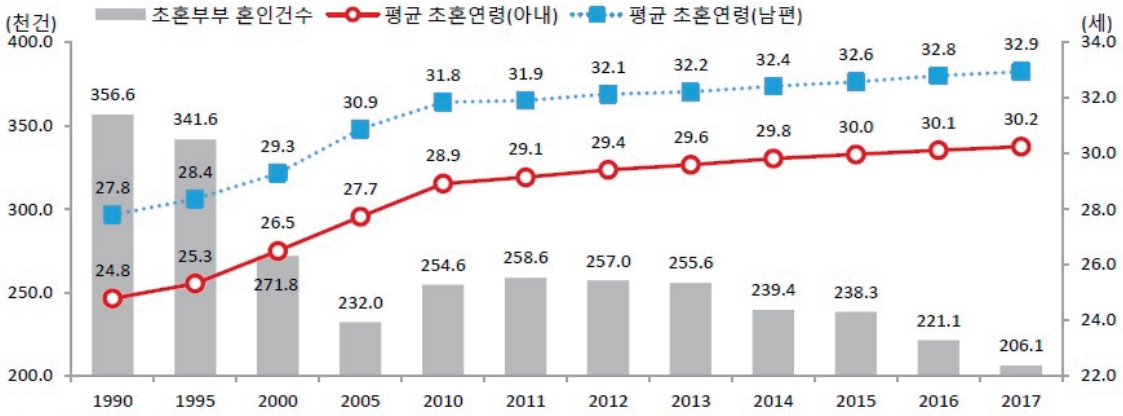
초혼부부의 혼인 중 여성이 연상인 부부 비중은 증가 추세, 동갑은 감소 추세임

□ 2017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30.2세로 남성(32.9세)에 비해 2.7세 적게 나타남

○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0년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2015년에 30.0세로 30대에 진입함

□ 2017년 초혼부부의 총 혼인건수 20만6천1백건 중 여성이 연상인 부부는 16.9%로 2013년 이후 동갑내기 혼인건수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평균 초혼연령 및 초혼부부 혼인건수 >



자료 :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 평균 초혼연령 및 초혼부부 혼인건수 】

(단위 : 세, 천건, %)

	평균 초혼연령		혼인 건수[1]	여성 연상		동갑		남성 연상	
	여성	남성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90	24.8	27.8	356.6	31.2	8.8	32.3	9.0	293.2	82.2
2000	26.5	29.3	271.8	29.1	10.7	34.8	12.8	207.9	76.5
2007	28.1	31.1	265.5	34.5	13.0	41.4	15.6	189.6	71.4
2010	28.9	31.8	254.6	37.9	14.9	40.8	16.0	175.9	69.1
2011	29.1	31.9	258.6	39.5	15.3	42.3	16.4	176.8	68.4
2012	29.4	32.1	257.0	40.0	15.6	41.7	16.2	175.3	68.2
2013	29.6	32.2	255.6	41.3	16.2	41.4	16.2	172.8	67.6
2014	29.8	32.4	239.4	38.9	16.2	38.5	16.1	162.1	67.7
2015	30.0	32.6	238.3	38.9	16.3	38.2	16.0	161.1	67.6
2016	30.1	32.8	221.1	36.2	16.3	35.2	15.9	149.8	67.7
2017	30.2	32.9	206.1	34.8	16.9	32.8	15.9	138.5	67.2

자료 :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각년도
주 : 1) 초혼부부의 혼인건수

6. 이혼

이혼건수는 감소 추세, 그 중「20년 이상 함께한 부부」이혼 비중은 증가 추세임

□ 2017년 총 이혼건수는 10만6천건으로 전년(10만7천3백건)보다 1.2% 감소하였으며, 2014년 이후 감소 추세임

○ 2011년까지 혼인지속 기간이 4년 이하인 부부의 이혼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이후 혼인지속 기간이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의 이혼건수가 가장 많음

【 혼인지속 기간별 이혼건수 】

(단위 : 천건, %)

	이혼건수		혼인지속 기간별 이혼건수[2]				
		증감률[1]	4년 이하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2000	119.5	1.7	35.0	26.6	22.4	18.3	17.0
2005	128.0	-7.8	33.1	28.5	23.6	18.9	23.9
2007	124.1	-0.4	33.7	25.5	21.7	18.3	25.0
2010	116.9	-5.8	31.5	22.0	18.6	16.9	27.8
2011	114.3	-2.2	30.7	21.7	17.4	16.2	28.3
2012	114.3	0.0	28.2	21.5	17.7	16.6	30.2
2013	115.3	0.9	27.3	21.5	16.9	17.2	32.4
2014	115.5	0.2	27.2	22.0	16.3	17.0	33.1
2015	109.2	-5.5	24.7	20.8	14.9	16.2	32.6
2016	107.3	-1.7	24.6	20.6	14.7	14.9	32.6
2017	106.0	-1.2	23.7	20.5	14.8	13.8	33.1

자료 :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각년도
주 : 1) 전년대비 증감률임
2) 법적인 결혼(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결혼생활 시작에서 이혼(별거)까지의 동거기간, 미상 제외

□ 2017년 이혼사유별 이혼건수 구성비를 살펴보면,「성격차이」가 43.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경제문제」가 10.1%,「배우자 부정」과「가족간 불화」가 7.1%로 나타남

○ 2000년「가족간 불화」로 인한 이혼은 2만6천2백건으로「성격차이」다음으로 많았으나, 점점 감소하여 2017년에는 약 1/4 수준임

【 이혼사유별 이혼건수 】

(단위 : 천건, %)

	이혼건수	이혼사유별 이혼건수						
		배우자 부정	정신·육체적 학대	가족간 불화	경제 문제	성격 차이	건강 문제	기타[1]
2000	119.5	9.7	5.2	26.2	12.8	48.1	1.1	16.4
2005	128.0	9.7	5.7	12.2	19.1	63.0	0.8	17.5
2007	124.1	9.7	6.0	10.0	16.9	58.2	0.9	22.4
2010	116.9	10.0	5.6	8.6	14.0	53.0	0.8	24.9
2015	109.2	8.0	4.2	8.0	12.1	50.4	0.6	25.8
2016	107.3	7.6	3.8	7.9	10.9	48.6	0.6	27.9
2017	106.0	7.5	3.8	7.5	10.7	45.7	0.6	30.1
구성비	100.0	7.1	3.6	7.1	10.1	43.1	0.6	28.4

자료 :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각년도
주 : 1) 미상 포함

7. 외국인과의 혼인 · 이혼

2017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1천 건으로 전년보다 244건 증가,
외국인과의 이혼은 7천 건으로 2011년 이후 감소 추세임

□ 2017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20,835건으로 총 혼인건수의 7.9%를 차지하며, 전년(20,591건)보다 244건 증가함

○ 외국인과의 혼인 중「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혼인은 2005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다 최근 2년 동안 소폭 증가하였으며,「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혼인은 전년보다 197건 증가함

○ 외국 남성의 국적별 혼인을 살펴보면, 2000년 일본인 남성과의 혼인이 56.4%로 가장 높았으나 2017년 중국인 남성과의 혼인이 2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인 남성(23.3%)과의 혼인임

□ 2017년 외국인과의 이혼은 7,130건으로 총 이혼건수의 6.7%를 차지하며,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임

【 외국인과의 혼인 및 이혼 】

(단위 : 건, %)

	외국인과의 혼인	구성비[1]	외국여성+한국남성	한국여성+외국남성	외국인과의 이혼	구성비[1]	외국여성+한국남성	한국여성+외국남성
2000	11,605	3.5	6,945	4,660	1,498	1.3	247	1,251
2005	42,356	13.5	30,719	11,637	4,171	3.3	2,382	1,789
2007	37,560	10.9	28,580	8,980	8,294	6.7	5,609	2,685
2010	34,235	10.5	26,274	7,961	11,088	9.5	7,852	3,236
2015	21,274	7.0	14,677	6,597	8,237	7.5	5,743	2,494
2016	20,591	7.3	14,822	5,769	7,665	7.1	5,610	2,055
2017	20,835	7.9	14,869	5,966	7,130	6.7	5,206	1,924

자료 :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각년도
주 : 1) 총 혼인(이혼)건수에 대한 외국인과의 혼인(이혼)건수 구성비

【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국적별 혼인 】

(단위 : 건, %)

	한국여성+외국남성 혼인건수	외국 남성의 국적별 혼인 구성비						
		소계	중국	미국	베트남	캐나다	일본	기타
2000	4,660	100.0	4.5	23.3	0.1	3.2	56.4	12.5
2005	11,637	100.0	43.3	12.0	0.2	2.4	29.4	12.7
2007	8,980	100.0	27.7	14.9	0.7	4.2	37.3	15.3
2010	7,961	100.0	28.8	19.0	0.8	5.1	26.3	20.0
2015	6,597	100.0	21.7	24.4	6.5	7.0	12.2	28.0
2016	5,769	100.0	25.4	23.9	9.8	6.9	6.6	27.5
2017	5,966	100.0	25.5	23.3	9.8	7.3	5.2	28.8

자료 :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각년도

8. 출생아수 및 출생성비

2017년에는 출산순위별 출생성비가 모두 정상범위(103~107명)이며,
국내 입양아동은 여아를 더 선호함

□ 2017년 총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1.9% 감소한 35만7천7백명임

○ 출생성비(여아 100명 당 남아 수)는 106.2명으로 전년보다 1.2명 증가함

□ 2017년 출산순위별 출생성비는 첫째아 106.5명, 둘째아 106.1명, 셋째아 이상에서 106.5명으로 나타남

○ 첫째아, 둘째아 출생성비는 전년보다 증가하고 셋째아 이상의 출생성비는 전년보다 감소하여, 2017년에는 출산순위별 출생성비가 모두 정상범위(103~107명) 수준임

○ 국내 입양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여아의 비율이 2001년 58.0%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1년에는 68.9%로 높아졌고, 이후 2017년 67.7%로 나타남

* 국내 입양아동 현황

(단위 : 명, %)

	국내 입양아동 수	여 아	구성비	남 아	구성비
2001	1,770	1,027	58.0	743	42.0
2007	1,388	847	61.0	541	39.0
2011	1,548	1,066	68.9	482	31.1
2016	546	355	65.0	191	35.0
2017	465	315	67.7	150	32.3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국내외 입양아동 현황」

【 출생아 수 및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

(단위 : 천명, 명)

	총출생아	여아	남아	출생성비[1]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1990	649.7	300.1	349.6	116.5	108.5	117.1	193.3
2000	634.5	301.9	332.6	110.2	106.3	107.4	144.2
2007	493.2	239.2	254.0	106.2	104.5	106.0	115.7
2010	470.2	227.3	242.9	106.9	106.4	105.8	110.9
2011	471.3	229.1	242.1	105.7	105.0	105.3	109.5
2012	484.6	235.6	249.0	105.7	105.3	104.9	109.2
2013	436.5	212.6	223.9	105.3	105.4	104.5	108.0
2014	435.4	212.1	223.4	105.3	105.6	104.6	106.7
2015	438.4	213.5	224.9	105.3	105.9	104.5	105.6
2016	406.2	198.2	208.1	105.0	104.4	105.2	107.4
2017[P]	357.7	173.4	184.2	106.2	106.5	106.1	106.5

자료 :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각년도,「2017년 출생·사망통계(잠정)」2018. 2.
주 : 1) 출생시 여아 100명 당 남아 수

9. 가족 관계 만족도

여성은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남성보다 낮고, 2년 전보다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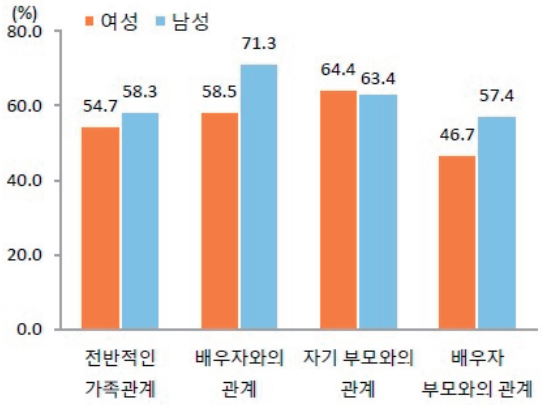
□ 2016년 여성의 54.7%는 전반적으로 가족 관계에 대해「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58.3%)보다 3.6%p 낮은 만족도를 보임

○ 배우자와의 관계를 보면 남편은 부인에게 71.3% 만족하는 것에 반해 부인은 남편과의 관계에 58.5%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간에 차이를 보임

- 배우자와 관계에서 부인은 2년 전(59.8%)보다 만족도가 1.3%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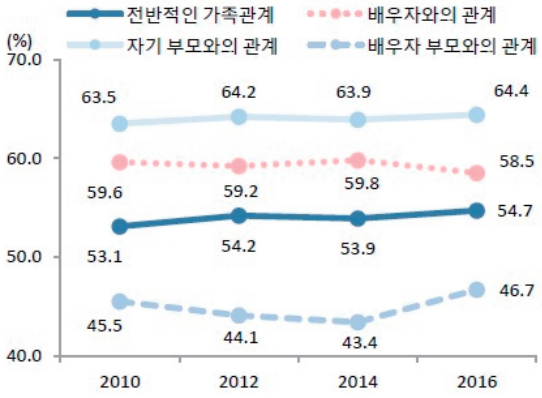
○ 「자기 부모와의 관계」만족 비율은 여성(64.4%)과 남성(63.4%)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남성이 57.4% 만족하는 반면, 여성은 46.7%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성별 가족 관계 만족 비율(2016년) >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

< 여성의 가족 관계 만족도 추이 >



【 가족 관계 만족도 】

(단위 : %)

		계	전반적인 가족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기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1]	보통	불만족[2]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여성	2010[3]	100.0	53.1	42.3	4.6	59.6	30.0	10.4	63.5	31.2	5.3	45.5	41.2	13.2
	2012	100.0	54.2	41.0	4.8	59.2	29.4	11.4	64.2	30.1	5.7	44.1	41.7	14.2
	2014	100.0	53.9	41.5	4.7	59.8	29.6	10.6	63.9	30.9	5.2	43.4	42.6	14.0
	2016	100.0	54.7	41.0	4.4	58.5	31.2	10.4	64.4	30.5	5.1	46.7	40.4	12.9
남성	2010[3]	100.0	56.6	39.6	3.8	69.9	25.6	4.5	62.9	31.9	5.2	56.1	38.6	5.3
	2012	100.0	58.2	37.9	3.9	71.8	23.7	4.4	63.9	31.1	5.1	57.4	37.8	4.8
	2014	100.0	56.6	39.6	3.9	70.6	24.9	4.5	63.1	32.1	4.9	53.4	41.4	5.2
	2016	100.0	58.3	37.9	3.8	71.3	24.5	4.2	63.4	31.8	4.8	57.4	37.9	4.7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주 : 1)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를 합한 수치임

2) '약간 불만족한다'와 '매우 불만족한다'를 합한 수치임

3) 조사대상이 15세 이상 인구임

Ⅲ. 건 강

10. 기대여명

2016년 기준 기대수명과 유병기간 제외 기대여명은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6.1년, 0.5년 더 긴 반면, 주관적 건강 기대여명은 남성이 0.4년 더 김

□ 2016년 출생한 여성의 기대수명은 85.4년으로 10년 전보다 3.3년, 전년보다 0.2년이 증가함

○ 여성과 남성의 기대수명 차이는 6.1년으로 1985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임

【 성별 기대수명(출생 시 기대여명) 추이 】

(단위 : 년)

	1970	1980	1990	1996	2000	2006	2010	2015	2016
전체	62.3	66.1	71.7	74.2	76.0	78.8	80.2	82.1	82.4
여성	65.8	70.4	75.9	78.3	79.7	82.1	83.6	85.2	85.4
남성	58.7	61.9	67.5	70.2	72.3	75.4	76.8	79.0	79.3
차이(여-남)	7.1	8.5	8.4	8.1	7.4	6.7	6.8	6.2	6.1

자료 : 통계청,「생명표」각년도

□ 2016년 출생아의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유병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여성은 65.2년으로 남성(64.7년)보다 0.5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기간은 여성은 68.4년, 남성은 68.8년으로 출생아의 기대수명 및 유병기간 제외 기대여명과는 반대로 남성이 여성보다 0.4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기대여명 및 건강수준별 기대여명(2016년) 】

(단위 : 년)

	기대여명[1]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유병기간 제외[2]			주관적 건강평가[3]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0세	82.4	85.4	79.3	64.9	65.2	64.7	68.5	68.4	68.8
10세	72.7	75.7	69.6	56.0	56.3	55.8	58.8	58.6	59.1
20세	62.8	65.8	59.8	46.4	46.7	46.2	49.1	48.9	49.4
30세	53.0	55.9	50.0	37.0	37.2	36.8	39.8	39.7	40.1
40세	43.3	46.2	40.4	27.7	28.0	27.5	30.7	30.4	31.1
50세	33.9	36.6	31.1	18.9	19.1	18.8	22.0	21.7	22.4
60세	24.9	27.2	22.5	11.4	11.5	11.5	14.2	13.9	14.7
70세	16.4	18.1	14.5	6.1	6.1	6.2	7.8	7.5	8.2
80세	9.3	10.2	8.1	3.1	3.3	2.9	3.7	3.6	3.9
85세 이상	6.6	7.1	5.8	2.3	2.6	2.0	2.4	2.4	2.4

자료 : 통계청,「생명표」2016

주 : 1) 특정 연령(x세)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

2) 실제 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고통 받는 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

3) 전체 기대여명 중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평가하는 기간

11.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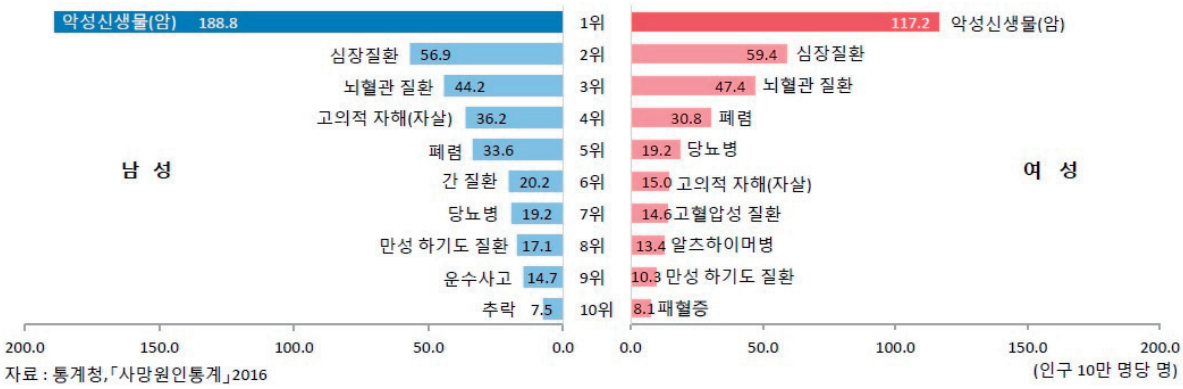
2016년 10대 사망원인별 사망률 중「심장질환」,「뇌혈관 질환」,「고혈압성 질환」,「알츠하이머병」,「패혈증」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

□ 2016년 인구 10만 명당 여성 사망자수는 501.5명으로 전년보다 9.4명 증가함

□ 여성의 사망원인은「악성 신생물(암)」이 117.2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심장질환(59.4명)」,「뇌혈관 질환(47.4명)」,「폐렴(30.8명)」순임

○ 10대 사망원인별 사망률 중「심장질환」,「뇌혈관 질환」,「고혈압성 질환」,「알츠하이머병」,「패혈증」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

< 성별 사망원인 순위(2016년) >



자료 : 통계청,「사망원인통계」2016

【 사망률 】

(단위 : 인구 10만 명당 명)

	2000	200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517.9	495.6	512.0	513.6	530.8	526.6	527.3	541.5	549.4
여 성	463.3	445.2	454.0	456.0	476.4	473.4	474.1	492.1	501.5
남 성	571.9	545.7	570.0	571.1	585.1	579.8	580.6	591.0	597.5
사망률 성비[1]	1.23	1.23	1.26	1.25	1.23	1.22	1.22	1.20	1.19

자료 : 통계청,「사망원인통계」각년도
주 : 1) 사망률 성비 = 남성 사망률 / 여성 사망률

【 성별 10대 사망원인별 사망률(2016년) 】

(단위 : 인구 10만 명당 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여 성	악성 신생물(암) (117.2)	심장질환 (59.4)	뇌혈관 질환 (47.4)	폐렴 (30.8)	당뇨병 (19.2)	고의적 자해(자살) (15.0)	고혈압성 질환 (14.6)	알츠 하이머병 (13.4)	만성 하기도질환 (10.3)	패혈증 (8.1)
남 성	악성 신생물(암) (188.8)	심장질환 (56.9)	뇌혈관 질환 (44.2)	고의적 자해(자살) (36.2)	폐렴 (33.6)	간질환 (20.2)	당뇨병 (19.2)	만성 하기도질환 (17.1)	운수사고 (14.7)	추락 (7.5)

자료 : 통계청,「사망원인통계」2016
주 : ( ) 수치는 사망률

12. 흡연 및 음주

2016년 여성의 현재 흡연율은 6.1%, 고위험 음주율은 5.4%으로 전년보다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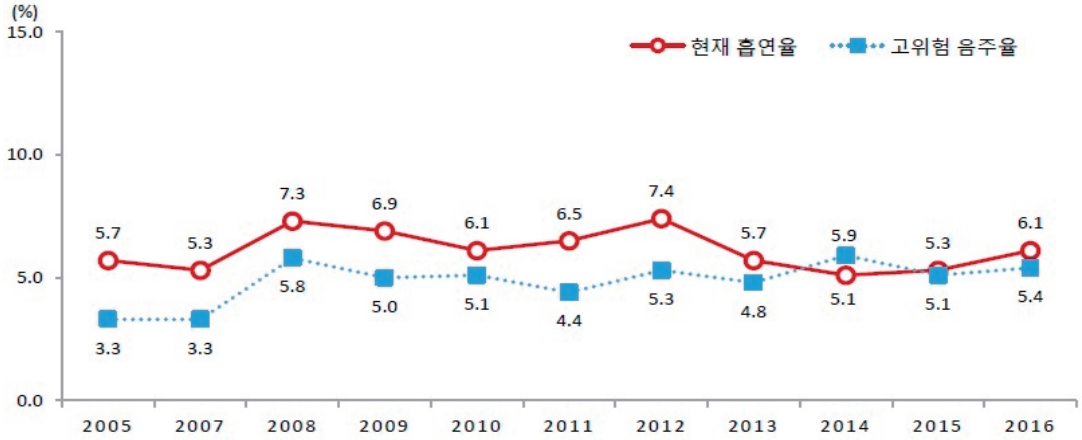
□ 2016년 평생 담배를 5갑(100개비)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19세 이상 여성은 6.1%로 남성(39.4%)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여성의 흡연율은 2012년 7.4%로 가장 높았다가 2014년까지 감소 후 다시 증가 추세임

□ 2016년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5.4%로 전년(5.1%)보다 소폭 상승함

*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 : 1회 평균 음주량이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

< 여성의 현재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 >



자료 : 질병관리본부,「2016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 흡연 및 음주 】

(단위 : %, %p)

	현재 흡연율[1]				고위험 음주율[2]			
	전 체	여 성	남 성	차이 (여-남)	전 체	여 성	남 성	차이 (여-남)
2005	28.8	5.7	52.3	-46.6	11.6	3.3	20.0	-16.7
2007	25.0	5.3	45.1	-39.8	12.3	3.3	21.6	-18.3
2008	27.3	7.3	47.7	-40.4	15.2	5.8	24.9	-19.1
2009	26.6	6.9	46.7	-39.8	13.2	5.0	21.5	-16.5
2010	26.9	6.1	48.1	-42.0	13.5	5.1	22.1	-17.0
2011	26.3	6.5	46.8	-40.3	13.6	4.4	23.1	-18.7
2012	25.0	7.4	43.3	-35.9	13.4	5.3	21.9	-16.6
2013	23.2	5.7	41.4	-35.7	11.9	4.8	19.4	-14.6
2014	23.3	5.1	42.3	-37.2	13.1	5.9	20.6	-14.7
2015	21.6	5.3	38.3	-33.0	12.7	5.1	20.5	-15.4
2016	22.6	6.1	39.4	-33.3	13.2	5.4	21.2	-15.8

자료 : 질병관리본부,「2016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각년도, 만19세 이상

주 : 1)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

2) 1회 평균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

13. 스트레스 및 우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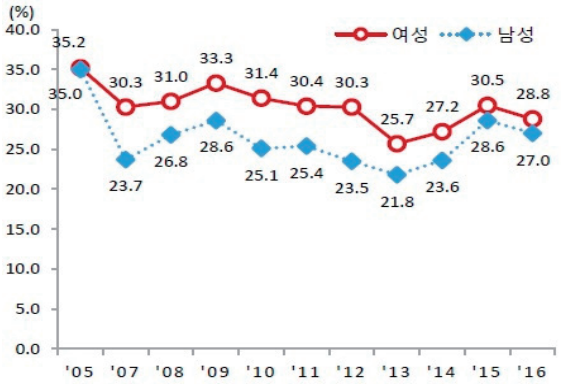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

□ 2016년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여성은 28.8%로 남성(27.0%)보다 1.8%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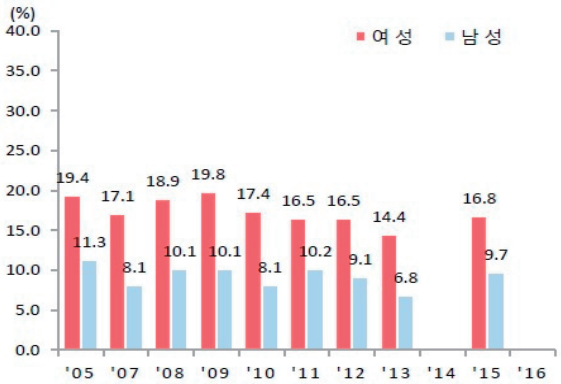
○ 스트레스 인지율은 남녀 차이가 2012년 6.8%p로 가장 많이 벌어졌다가 최근 3년 간 스트레스를 느끼는 남성의 비율이 더 많이 증가하여 남녀 차이는 감소 추세임

□ 최근 1근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여성은 2015년 16.8%로 남성(9.7%)보다 7.1%p 높게 나타남

< 스트레스 인지율 >



< 우울감 경험률 >



자료 : 질병관리본부,「2016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 스트레스 및 우울감 】

(단위 : %, %p)

	스트레스 인지율[1]				우울감 경험률[2]			
	전 체	여 성	남 성	차이 (여-남)	전 체	여 성	남 성	차이 (여-남)
2005	35.1	35.2	35.0	0.2	15.4	19.4	11.3	8.1
2007	27.1	30.3	23.7	6.6	12.7	17.1	8.1	9.0
2008	28.9	31.0	26.8	4.2	14.5	18.9	10.1	8.8
2009	31.0	33.3	28.6	4.7	15.0	19.8	10.1	9.7
2010	28.2	31.4	25.1	6.3	12.8	17.4	8.1	9.3
2011	27.9	30.4	25.4	5.0	13.4	16.5	10.2	6.3
2012	27.0	30.3	23.5	6.8	12.9	16.5	9.1	7.4
2013	23.8	25.7	21.8	3.9	10.7	14.4	6.8	7.6
2014	25.5	27.2	23.6	3.6	-	-	-	-
2015	29.6	30.5	28.6	1.9	13.3	16.8	9.7	7.1
2016	27.9	28.8	27.0	1.8	-	-	-	-

자료 : 질병관리본부,「2016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각년도, 만19세 이상

주 : 1)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분율

2)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분율 2014년부터 2년 주기 순환조사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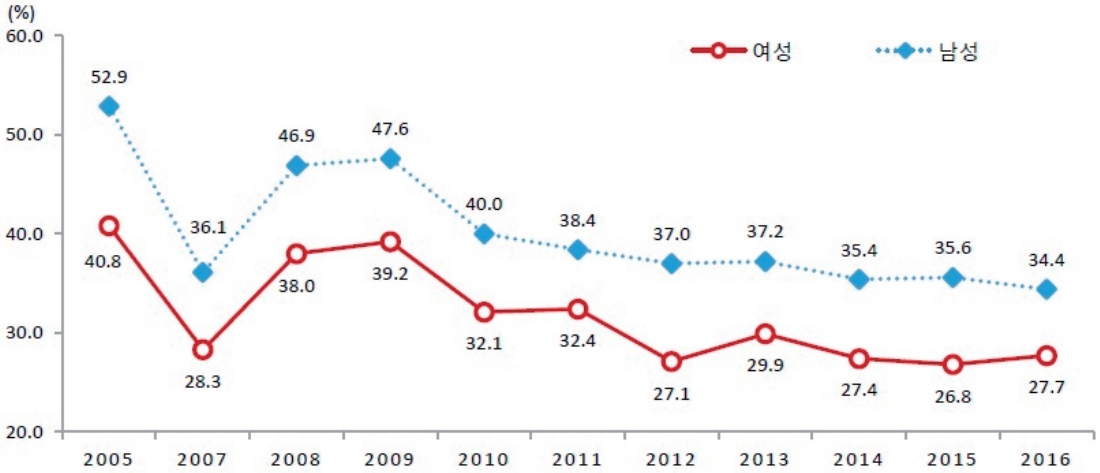
14. 주관적 건강인지율

본인의 건강이 좋다는 생각은 전년보다 여성은 증가, 남성은 감소하여 남녀 차이 줄어 듬

□ 2016년 19세 이상 여성의 27.7%는 평소 본인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며, 남성(34.4%)보다는 6.7%p 낮게 나타남

○ 본인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녀 모두 2009년 이후 감소 추세임

<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



자료 : 질병관리본부,「2016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 주관적 건강인지율[1] 】

(단위 : %, %p)

	전 체	여 성	남 성	차이(여-남)
2005	46.8	40.8	52.9	-12.1
2007	32.2	28.3	36.1	-7.8
2008	42.4	38.0	46.9	-8.9
2009	43.4	39.2	47.6	-8.4
2010	36.0	32.1	40.0	-7.9
2011	35.3	32.4	38.4	-6.0
2012	32.0	27.1	37.0	-9.9
2013	33.5	29.9	37.2	-7.3
2014	31.3	27.4	35.4	-8.0
2015	31.1	26.8	35.6	-8.8
2016	31.0	27.7	34.4	-6.7

자료 : 질병관리본부,「2016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각년도, 만19세 이상
주 : 1)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

Ⅳ. 경제활동

15. 고용동향

2017년 여성 고용률은 50.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남녀 고용률 차이는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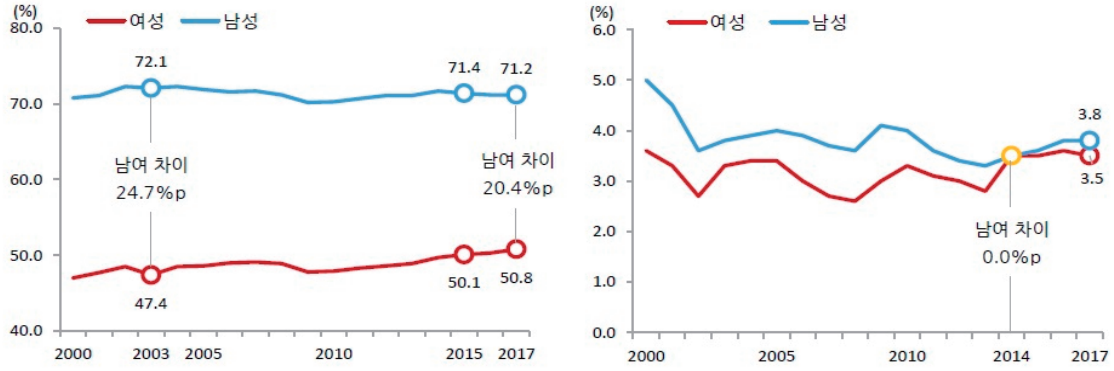
□ 2017년 여성 고용률은 50.8%로 전년(50.3%)보다 0.5%p 증가하였고, 남성 고용률은 71.2%로 전년과 동일함

○ 남녀 고용률 차이는 2003년 24.7%p에서 여성 고용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2017년 20.4%p까지 감소함

□ 2017년 여성 실업률은 3.5%로 전년(3.6%)보다 0.1%p 감소하였고, 남성 실업률은 3.8%로 전년과 동일함

○ 실업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4년 남녀 실업률이 3.5%로 차이가 없다가 2017년 0.3%p까지 다시 벌어짐

<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률 및 실업률 】

(단위 : %, %p)

	고용률[1]				실업률[2]			
	전체	여성	남성	차이(남-여)	전체	여성	남성	차이(남-여)
2000	58.5	47.0	70.8	23.8	4.4	3.6	5.0	1.4
2003	59.4	47.4	72.1	24.7	3.6	3.3	3.8	0.5
2005	59.9	48.6	71.9	23.3	3.7	3.4	4.0	0.6
2007	60.1	49.1	71.7	22.6	3.2	2.7	3.7	1.0
2010	58.9	47.9	70.3	22.4	3.7	3.3	4.0	0.7
2014	60.5	49.7	71.7	22.0	3.5	3.5	3.5	0.0
2015	60.5	50.1	71.4	21.3	3.6	3.5	3.6	0.1
2016	60.6	50.3	71.2	20.9	3.7	3.6	3.8	0.2
2017	60.8	50.8	71.2	20.4	3.7	3.5	3.8	0.3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주 : 1)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2)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16. 연령대별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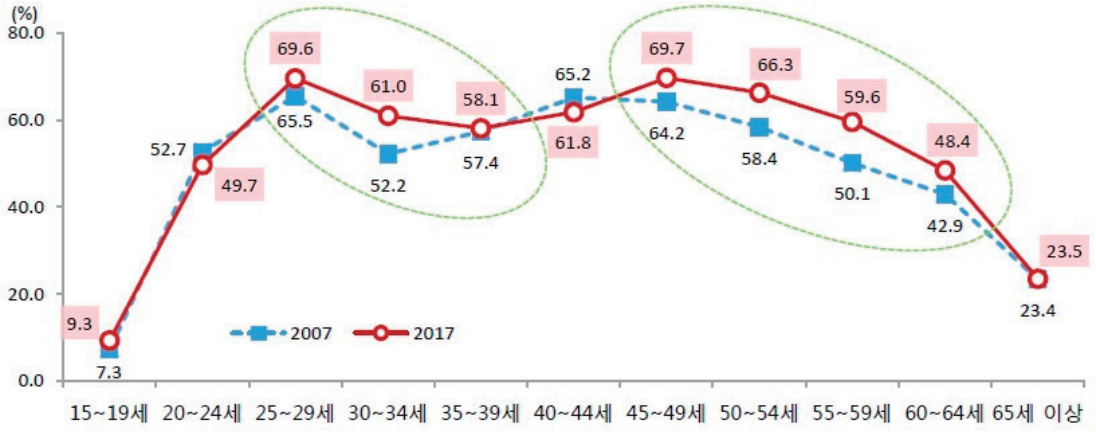
여성의 고용률은 30대 경력단절 발생으로 감소 후 40대 재취업으로 증가하는 M자형 모양을 보임

□ 2017년 여성의 고용률은 40대 후반이 69.7%로 가장 높고, 이어서 20대 후반(69.6%), 50대 전반(66.3%)순으로 높음

○ 여성의 고용률은 30대에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경력단절 발생으로 감소 후 40대 재취업으로 증가하는 M자형의 모양을 보임

○ 여성의 고용률을 10년 전과 비교하면, 20~24세와 40~44세는 감소한 반면 다른 연령대는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30~34세(8.8%p)와 55~59세(9.5%p)의 고용률이 크게 증가함

<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

(단위 : %, %p)

	전 체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2000	47.0	10.8	56.3	53.7	47.3	57.8	62.0	63.3	54.2	50.4	45.5	22.6
2005	48.6	9.0	57.2	63.1	48.6	57.3	64.1	61.7	57.5	48.4	42.9	22.3
2007	49.1	7.3	52.7	65.5	52.2	57.4	65.2	64.2	58.4	50.1	42.9	23.4
2010	47.9	7.7	48.8	66.1	53.0	54.4	64.1	64.2	60.1	52.4	40.4	21.4
2015	50.1	8.8	50.8	68.5	59.6	54.2	62.9	68.6	66.0	57.3	47.5	22.7
2016	50.3	8.8	50.5	69.3	59.9	56.5	62.9	68.5	65.9	57.6	48.1	23.0
2017	50.8	9.3	49.7	69.6	61.0	58.1	61.8	69.7	66.3	59.6	48.4	23.5
차이('17-'07)	1.7	2.0	-3.0	4.1	8.8	0.7	-3.4	5.5	7.9	9.5	5.5	0.1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17. 교육정도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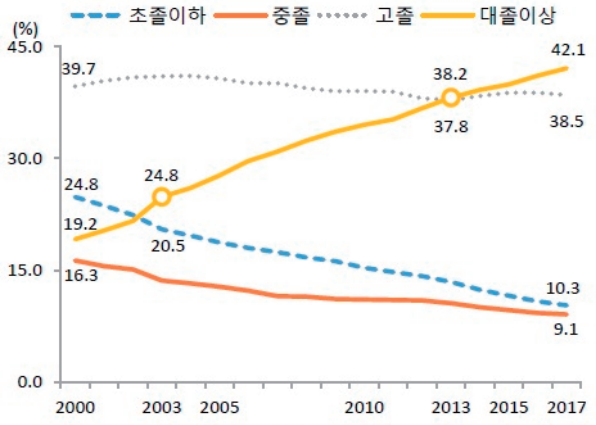
여성 취업자의 「대졸 이상」 비중은 증가 추세이나, 남성보다 5.9%p 낮음

□ 2017년 여성 취업자 중 「대졸 이상」의 비중은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졸」이 38.5%를 차지함

- 남성도 「대졸 이상」이 48.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졸(39.6%)」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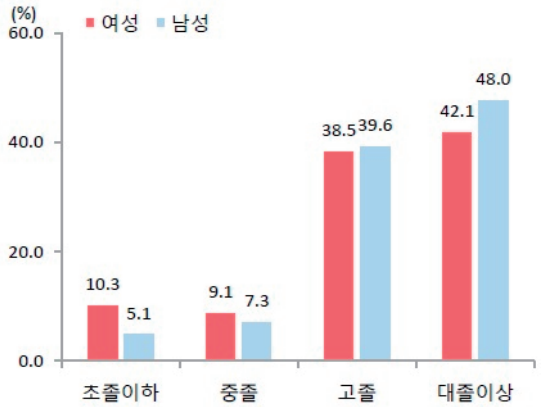
○ 「대졸 이상」 여성 취업자 비중은 2000년 19.2%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초졸 이하」, 2013년 「고졸」를 앞지른 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교육정도별 여성 취업자 구성비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성별·교육정도별 구성비(2017년) >



【 교육정도별 취업자 구성비 】

(단위 : %)

		전체	초졸 이하	중 졸	고 졸	대졸 이상
여성	2000	100.0	24.8	16.3	39.7	19.2
	2005	100.0	18.7	12.8	40.7	27.7
	2007	100.0	17.4	11.5	40.1	30.9
	2010	100.0	15.3	11.1	39.1	34.5
	2015	100.0	11.6	9.7	38.8	39.9
	2016	100.0	10.8	9.3	38.8	41.1
	2017	100.0	10.3	9.1	38.5	42.1
남성	2000	100.0	11.5	13.0	47.2	28.4
	2005	100.0	9.0	10.4	44.7	35.9
	2007	100.0	8.5	9.9	43.2	38.4
	2010	100.0	7.6	8.9	41.4	42.1
	2015	100.0	5.7	7.5	40.3	46.6
	2016	100.0	5.3	7.4	39.9	47.3
	2017	100.0	5.1	7.3	39.6	48.0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18. 직업별 취업자

「전문가 · 사무 · 판매 · 서비스 ·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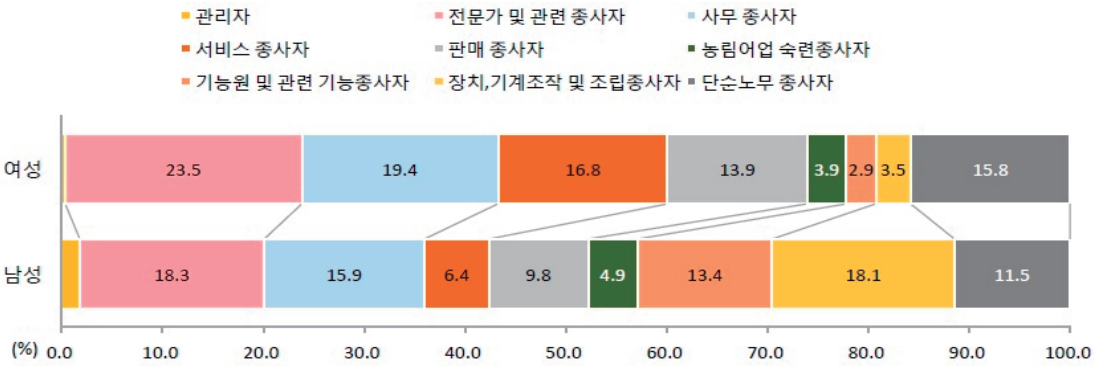
□ 2017년 여성 취업자 중「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직종이 23.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사무 종사자(19.4%)」,「서비스 종사자(16.8%)」순임

- 직업별 남성 취업자 비중은「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8.3%)」,「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8.1%)」,「사무 종사자(15.9%)」순으로 많음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사무 종사자」,「판매 종사자」,「서비스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비중은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

○ 여성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판매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감소 추세임

<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2017년)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

(단위 : 천명, %)

		취업자	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여성	2005	9,508	100.0	0.5	16.6	16.7	18.5	16.7	8.0	3.9	3.8	15.4
	2007	9,849	100.0	0.5	18.3	16.8	17.9	16.1	7.4	3.6	3.5	15.9
	2010	9,992	100.0	0.5	20.4	17.9	16.3	15.5	5.9	3.3	3.3	16.8
	2015	11,022	100.0	0.3	22.8	18.8	16.5	14.5	4.4	2.8	3.7	16.1
	2016	11,168	100.0	0.3	22.9	19.4	16.8	14.1	4.1	2.9	3.6	16.0
	2017	11,356	100.0	0.3	23.5	19.4	16.8	13.9	3.9	2.9	3.5	15.8
남성	2005	13,323	100.0	4.1	15.2	13.5	6.4	11.5	7.1	14.9	17.1	10.1
	2007	13,712	100.0	4.0	16.7	12.9	6.1	11.2	6.5	14.8	17.0	10.8
	2010	14,041	100.0	3.7	18.2	14.2	5.9	10.0	6.2	13.8	17.0	11.1
	2015	15,156	100.0	2.1	18.0	15.6	6.3	10.0	5.0	13.6	18.3	11.1
	2016	15,241	100.0	2.0	18.3	15.6	6.3	10.1	4.8	13.6	18.4	11.0
	2017	15,368	100.0	1.8	18.3	15.9	6.4	9.8	4.9	13.4	18.1	11.5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주 : 한국표준직업분류 6차 개정(2007년) 기준

19.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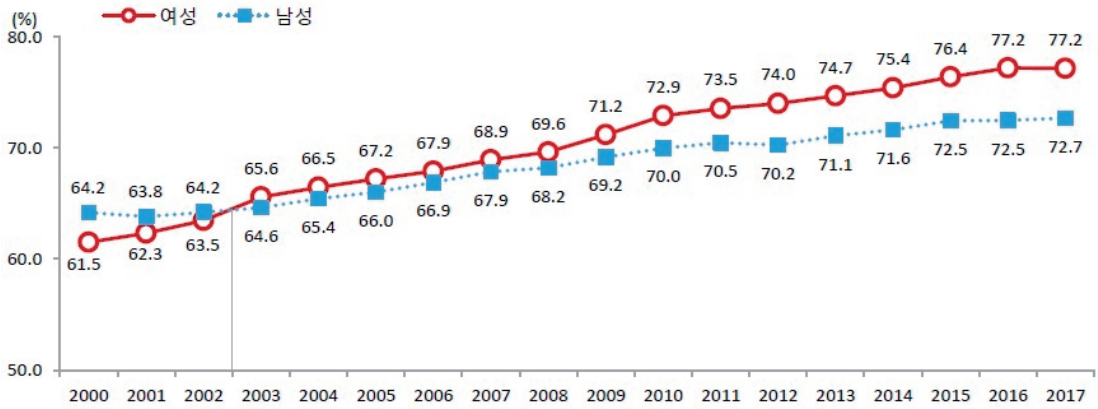
「임시근로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상용근로자 및 자영업자」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

□ 2017년 여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77.2%로 전년과 동일하며, 남성(72.7%)보다 4.5%p 높음

- 여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2003년 남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을 앞지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격차가 벌어짐

○ 여성 상용근로자 비중은 45.7%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53.6%)보다 7.9%p 낮으며, 임시근로자 비중은 여성(26.4%)이 남성(12.9%)보다 상대적으로 2배 이상 높음

< 임금근로자 현황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

(단위 : %)

		임 금 근로자	상 용	임 시	일 용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 사 자
여성	2000	61.5	19.2	28.4	13.9	38.5	19.2	19.3
	2003	65.6	23.2	31.0	11.4	34.4	17.7	16.7
	2005	67.2	25.7	30.2	11.3	32.8	18.9	13.9
	2007	68.9	28.9	29.9	10.1	31.1	18.4	12.6
	2010	72.9	34.5	30.0	8.4	27.1	16.2	10.9
	2015	76.4	43.1	27.6	5.8	23.6	14.5	9.1
	2016	77.2	44.6	27.5	5.1	22.8	14.1	8.7
	2017	77.2	45.7	26.4	5.0	22.8	14.4	8.4
남성	2000	64.2	38.0	17.0	9.2	35.8	33.8	2.0
	2003	64.6	39.6	16.7	8.4	35.4	34.0	1.4
	2005	66.0	41.1	16.4	8.5	34.0	32.6	1.3
	2007	67.9	42.8	16.4	8.6	32.1	30.9	1.3
	2010	70.0	48.0	15.0	7.0	30.0	28.7	1.3
	2015	72.5	52.6	13.7	6.2	27.5	26.6	1.0
	2016	72.5	53.0	13.5	6.0	27.5	26.5	1.0
	2017	72.7	53.6	12.9	6.2	27.3	26.3	1.0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20. 근로형태별 취업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여성이 363만2천명으로 남성(294만6천명)보다 68만6천명 더 많음

□ 2017년 8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는 881만8천명이며, 이중 정규직 근로자는 518만6천명으로 58.8%를 차지함

○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363만2천명으로 비중은 41.2%이며, 남성(294만6천명, 26.3%)보다 68만6천명(14.9%p) 더 많음

□ 여성의 연령대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50~59세가 22.7%로 가장 높고, 이어서 60세 이상(21.8%), 40~49세(21.2%)로 높게 나타남

○ 남성의 경우는 60세 이상이 24.9%로 가장 높고, 이어서 50~59세(20.4%), 40~49세(18.4%) 순임

【 성별 근로형태별 근로자 】

(단위 : 천명, %)

	여 성				남 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구성비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구성비
2003	5,883	3,556	2,327	39.6	8,312	6,016	2,295	27.6
2005	6,282	3,540	2,741	43.6	8,667	5,939	2,727	31.5
2007	6,680	3,876	2,804	42.0	9,326	6,398	2,928	31.4
2010	7,320	4,264	3,055	41.7	9,870	7,210	2,659	26.9
2011	7,547	4,313	3,234	42.9	10,168	7,349	2,819	27.7
2012	7,663	4,488	3,175	41.4	10,278	7,500	2,779	27.0
2013	7,887	4,686	3,201	40.6	10,517	7,740	2,776	26.4
2014	8,196	4,925	3,271	39.9	10,796	7,944	2,852	26.4
2015	8,468	5,063	3,405	40.2	11,007	8,103	2,903	26.4
2016	8,658	5,096	3,562	41.1	11,086	8,166	2,919	26.3
2017	**8,818**	**5,186**	**3,632**	**41.2**	**11,188**	**8,242**	**2,946**	**26.3**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각년도 8월

【 연령대별 비정규직 근로자 구성비(2017년) 】

(단위 : %)

	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여성	100.0	2.8	17.0	14.5	21.2	22.7	21.8
남성	100.0	2.7	18.3	15.4	18.4	20.4	24.9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7. 8.

21. 시간제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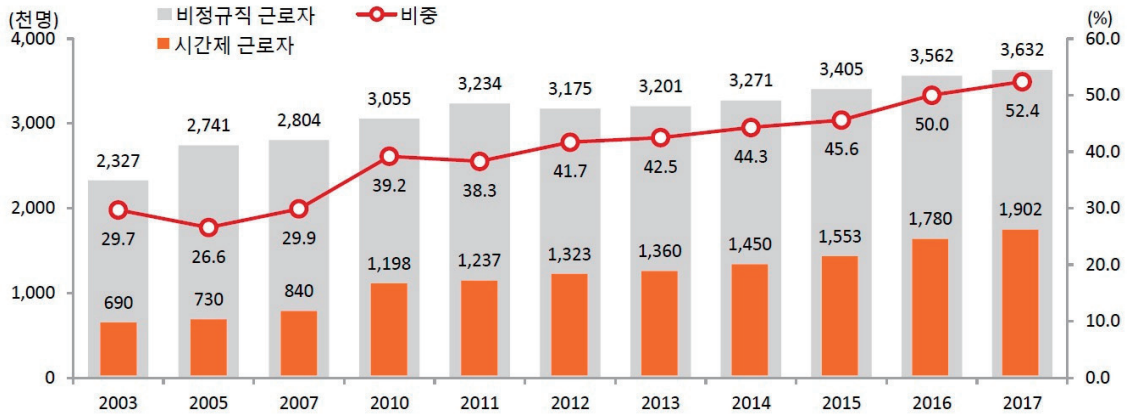
2017년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52.4%로 남성(25.8%)보다 26.6%p 더 높음

□ 2017년 8월 기준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190만2천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중 52.4%를 차지함

○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전년보다 12만2천명(6.9%) 증가하였고, 남성 시간제 근로자는 5만4천명(7.6%) 증가함

○ 2017년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구성비의 남녀 차이는 26.6%p로 2015년 이후 남녀 차이가 벌어짐

< 여성 시간제 근로자 현황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시간제 근로자 】

(단위 : 천명, %, %p)

	여성			남성			차이 (A-B)
	비정규직	시간제	구성비(A)	비정규직	시간제	구성비(B)	
2003	2,327	690	29.7	2,295	239	10.4	19.3
2005	2,741	730	26.6	2,727	307	11.3	15.3
2007	2,804	840	29.9	2,928	359	12.3	17.6
2010	3,055	1,198	39.2	2,659	425	16.0	23.2
2011	3,234	1,237	38.3	2,819	470	16.7	21.6
2012	3,175	1,323	41.7	2,779	505	18.2	23.5
2013	3,201	1,360	42.5	2,776	523	18.8	23.7
2014	3,271	1,450	44.3	2,852	584	20.5	23.8
2015	3,405	1,553	45.6	2,903	684	23.5	22.1
2016	3,562	1,780	50.0	2,919	707	24.2	25.8
2017	**3,632**	**1,902**	**52.4**	**2,946**	**761**	**25.8**	**26.6**
전년대비	70	122	2.4	27	54	1.6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각년도 8월

22.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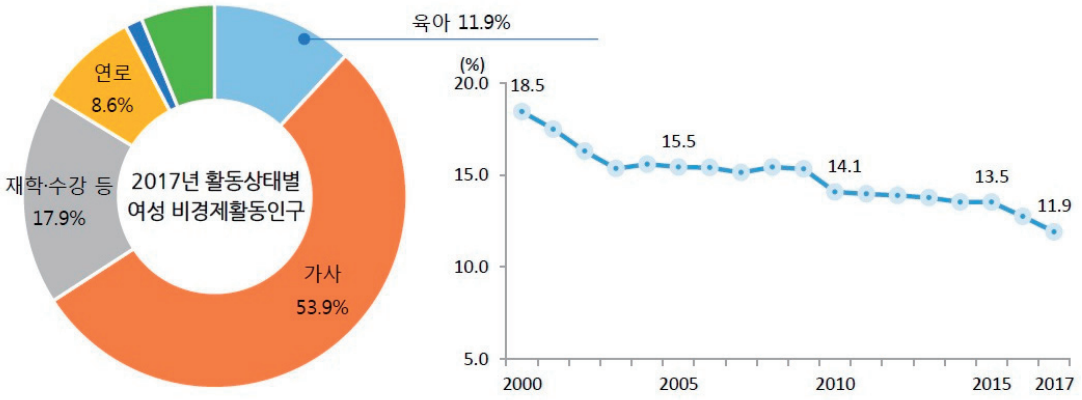
2017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가사(53.9%)」,「재학 · 수강 등(17.9%)」,「육아(11.9%)」활동상태 순으로 많음

□ 2017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58만5천명으로 전년(1,062만2천명)보다 3만7천명 감소함

○ 활동상태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가사」가 5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재학·수강 등(17.9%)」,「육아(11.9%)」순으로 나타남

○ 활동상태 중「육아」,「재학·수강 등」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 추세이며,「연로」,「기타」는 증가 추세임

< 활동상태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활동상태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1] 구성비 】

(단위 : 천명, %)

	비경제활동인구	계	육아	가사	재학·수강 등[2]	연로	심신장애	기타[3]
2000	9,563	100.0	18.5	48.3	21.6	7.3	1.2	3.2
2005	9,738	100.0	15.5	51.8	18.5	7.2	1.8	5.3
2007	9,935	100.0	15.2	52.0	19.4	6.5	1.6	5.3
2010	10,511	100.0	14.1	53.4	19.3	6.7	1.5	5.0
2011	10,599	100.0	14.0	54.1	19.1	6.1	1.4	5.4
2012	10,653	100.0	13.9	54.8	18.9	6.1	1.3	5.0
2013	10,713	100.0	13.8	54.6	19.1	6.1	1.4	5.1
2014	10,578	100.0	13.5	54.2	19.1	6.8	1.6	4.8
2015	10,592	100.0	13.5	53.6	18.4	7.5	1.6	5.3
2016	10,622	100.0	12.8	53.8	18.1	8.2	1.6	5.6
2017	10,585	100.0	11.9	53.9	17.9	8.6	1.5	6.2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주 : 1)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2)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수강,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을 포함
3) 학원·기관 수강 외 취업준비, 진학준비, 쉬었음 등을 포함

23. 근로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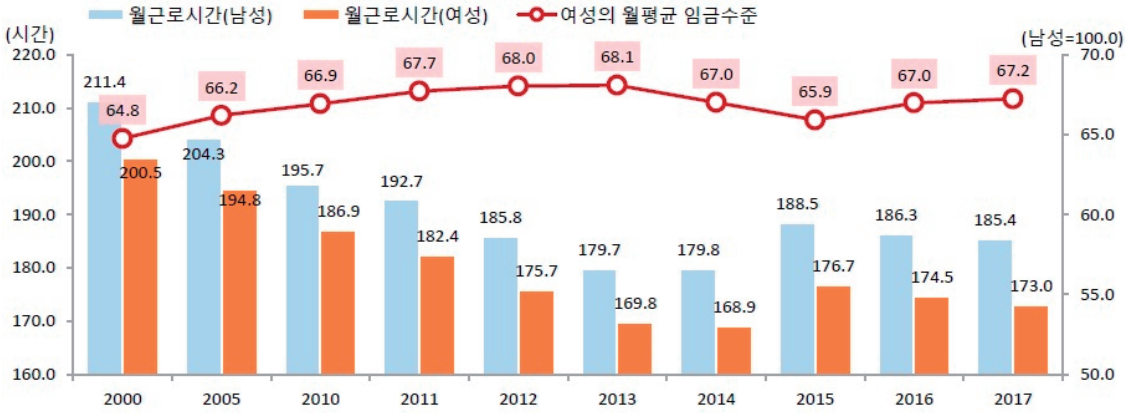
2017년 여성의 평균 근속년수는 4.7년, 월근로시간은 173시간, 월평균 임금은 229만8천원임

□ 2017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 평균 근속년수는 4.7년, 월근로시간은 173시간, 월평균 임금은 229만8천원으로 나타남

○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근속년수는 2.5년, 월근로시간은 12.4시간 덜 일함

○ 여성 월평균 임금은 전년(220만3천원)보다 9만5천원 증가하였으며, 남성 임금의 67.2% 수준으로 2015년 이후로 여성의 임금수준이 증가 추세임

< 근로시간과 임금수준 >



자료 : 고용노동부,「근로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 근로시간과 임금[1] 】

(단위 : 년, 시간, 천원, %)

	평균근속년수			월근로시간			월평균임금		
	남성	여성	차이 (남-여)	남성	여성	차이 (남-여)	남성	여성	비율[2]
2000	6.4	4.0	2.4	211.4	200.5	10.9	1,474	954	64.8
2005	6.6	4.0	2.6	204.3	194.8	9.5	2,109	1,396	66.2
2007	6.7	4.1	2.6	194.0	186.2	7.8	2,381	1,582	66.4
2010	7.0	4.4	2.6	195.7	186.9	8.8	2,648	1,772	66.9
2011	7.0	4.3	2.7	192.7	182.4	10.3	2,750	1,862	67.7
2012	7.1	4.4	2.7	185.8	175.7	10.1	2,878	1,958	68.0
2013	7.3	4.6	2.7	179.7	169.8	9.9	2,986	2,033	68.1
2014	6.9	4.5	2.4	179.8	168.9	10.9	3,122	2,092	67.0
2015	7.1	4.6	2.5	188.5	176.7	11.8	3,215	2,119	65.9
2016	7.3	4.8	2.5	186.3	174.5	11.8	3,289	2,203	67.0
2017	7.2	4.7	2.5	185.4	173.0	12.4	3,418	2,298	67.2

자료 :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각년도

주 :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2) 남성=100.0일 때의 여성 월평균임금 비율임

24. 사회보험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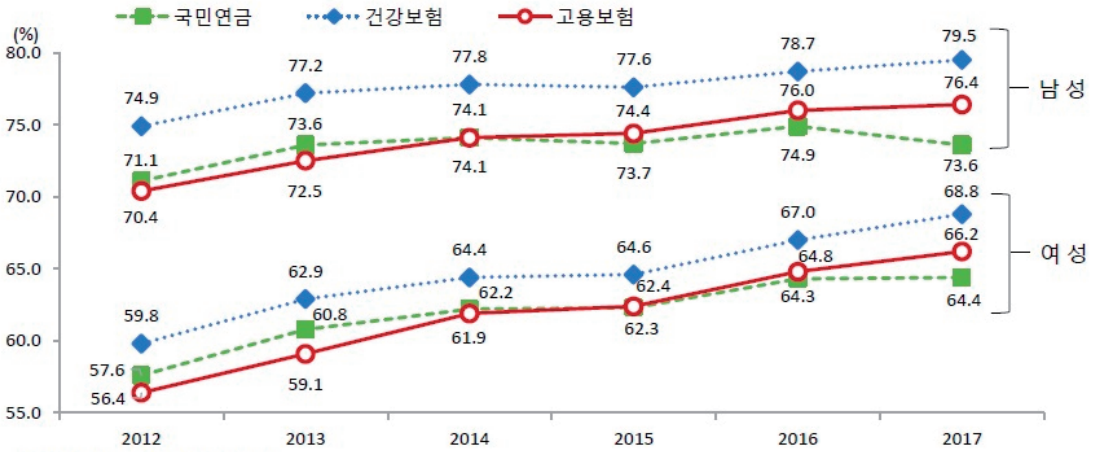
임금근로자 중 여성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증가 추세로 남성과의 차이도 감소함

□ 2017년 4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 64.4%, 건강보험 68.8%, 고용보험 66.2%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년보다 각각 국민연금 0.1%p, 건강보험 1.8%p, 고용보험 1.4%p 증가함

○ 남녀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9.2%p, 건강보험 10.7%p, 고용보험 10.2%p 차이나며, 남녀 차이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 사회보험 가입현황 >



자료 :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

(단위 : %, %p)

		2012[1]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
여성	국민연금[2)3)]	57.6	60.8	62.2	62.3	64.3	64.4	0.1
	건강보험[2)]	59.8	62.9	64.4	64.6	67.0	68.8	1.8
	고용보험	56.4	59.1	61.9	62.4	64.8	66.2	1.4
남성	국민연금[2)3)]	71.1	73.6	74.1	73.7	74.9	73.6	-1.3
	건강보험[2)]	74.9	77.2	77.8	77.6	78.7	79.5	0.8
	고용보험	70.4	72.5	74.1	74.4	76.0	76.4	0.4
차이 (남-여)	국민연금[2)3)]	13.5	12.8	11.9	11.4	10.6	9.2	-
	건강보험[2)]	15.1	14.3	13.4	13.0	11.7	10.7	-
	고용보험	14.0	13.4	12.2	12.0	11.2	10.2	-

자료 :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각년도 4월

주 : 1) 2012년은 6월 자료임

2) 직장가입자만 집계하였으며 지역가입자, 수급권자, 피부양자는 제외

3)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특수직역연금 포함

25.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여성의 90.2%는 직업을 가지는 것에 찬성,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 부담(47.9%)」 임

□ 2017년 여성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은 90.2%로 남성(84.1%)보다 6.1%p 높게 나타남

○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여성취업에 대하여 남녀 모두 50% 이상이 「가정일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남녀 모두 「육아부담」 이었고, 다음으로 「사회적 편견 및 관행」 으로 나타남

【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

(단위 : %)

		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소계	결혼 전까지	첫 자녀 출산전까지	자녀 성장 후	출산전과 자녀 성장 후	가정일에 관계없이	가정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	잘 모르겠다
여성	2011	100.0	87.6	100.0	4.1	6.0	13.0	23.9	53.1	6.3	6.2
	2013	100.0	87.7	100.0	3.9	5.3	12.7	25.0	53.0	5.9	6.4
	2015	100.0	88.7	100.0	3.1	4.8	14.0	25.3	52.8	5.5	5.9
	2017	100.0	90.2	100.0	3.0	4.0	11.8	22.4	58.9	4.7	5.1
남성	2011	100.0	80.9	100.0	5.4	8.4	15.3	23.0	47.8	9.7	9.4
	2013	100.0	81.2	100.0	5.1	7.0	13.4	23.4	51.1	7.9	10.8
	2015	100.0	81.9	100.0	3.7	6.7	15.8	24.2	49.6	8.3	9.8
	2017	100.0	84.1	100.0	3.2	5.5	14.4	21.7	55.2	7.1	8.8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여성취업 장애 요인 】

(단위 : %)

		계	사회적 편견·관행	직업의식 책임감 부족	불평등한 근로여건	일에 대한 여성의 능력부족	구인정보 부족	육아 부담	가족돌봄 (육아제외)[1]	가사 부담	기타[2]
여성	2011	100.0	20.2	2.9	11.6	1.7	2.3	48.8	-	6.9	5.7
	2013	100.0	19.6	3.0	10.9	1.3	2.2	49.6	-	6.7	6.7
	2015	100.0	20.4	2.9	11.6	1.7	1.5	50.5	-	6.6	4.8
	2017	100.0	22.9	2.5	11.3	1.3	1.5	47.9	2.4	5.3	4.9
남성	2011	100.0	22.6	5.7	10.2	2.1	1.8	43.9	-	5.5	8.3
	2013	100.0	22.0	6.7	9.0	2.0	1.4	43.5	-	5.3	10.1
	2015	100.0	22.6	6.3	10.0	2.6	1.0	44.4	-	5.3	7.8
	2017	100.0	23.9	5.6	9.2	2.3	1.2	43.9	2.0	4.6	7.4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 1) 2017년 추가된 항목

2) '모르겠음' 포함

26. 첫 직장 이직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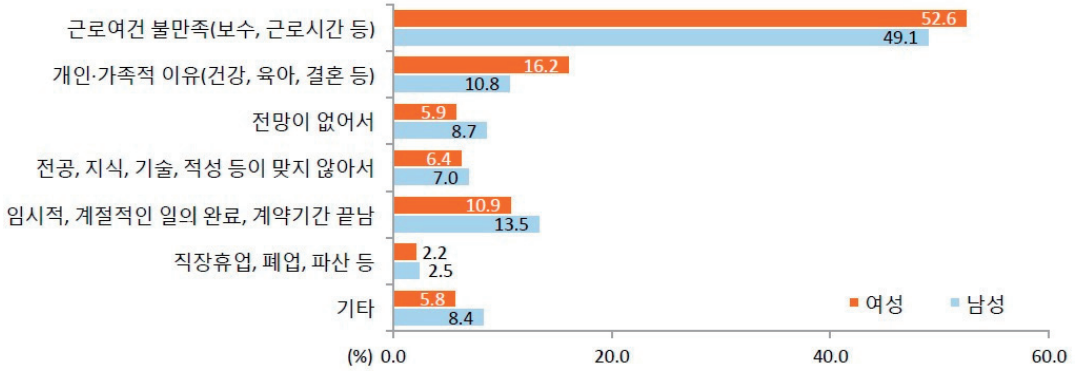
15~29세 여성 청년층이 첫 직장을 그만 두는 이유는
「근로여건 불만족」,「개인 · 가족적 이유」순임

□ 2017년 5월 기준 15~29세 여성 청년층*이 첫 직장을 떠난 사유로는「근로여건 불만족」이 52.6%로 가장 높고, 이어서「개인·가족적 이유(16.2%)」,「임시적, 계절적인 일의 완료, 계약기간 끝남(10.9%)」순으로 나타남

*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 중 이직경험자 대상

○ 여성이「근로여건 불만족」과「개인·가족적 이유」로 첫 직장을 그만 둔 경우는 남성보다 각각 3.5%p, 5.4%p 높게 나타남

< 첫 직장 이직 사유(2017년)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청년층) 결과」

【 청년층(15~29세)[1]의 첫 직장 이직 사유 】

(단위 : %)

		계	근로여건 불만족	개인 가족적 이유	전망이 없어서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임시적,계절적인 일의 완료, 계약기간 끝남	직장휴업, 폐업,파산 등	기타[2]
여성	2005	100.0	40.7	23.8	7.7	8.1	5.0	3.8	11.0
	2007	100.0	42.4	21.8	8.3	7.9	5.7	4.0	9.9
	2010	100.0	42.4	19.3	8.9	7.7	7.7	3.3	10.8
	2015	100.0	45.5	20.3	7.0	6.2	11.4	1.9	7.7
	2016	100.0	47.1	16.1	6.4	6.4	10.6	3.0	10.3
	2017	100.0	52.6	16.2	5.9	6.4	10.9	2.2	5.8
남성	2005	100.0	42.9	17.2	10.3	6.5	6.0	3.5	13.6
	2007	100.0	42.4	18.7	11.0	7.6	6.2	3.3	10.8
	2010	100.0	43.1	13.6	12.0	7.3	9.5	2.1	12.3
	2015	100.0	49.8	12.1	8.4	6.7	11.0	1.9	10.1
	2016	100.0	50.5	10.1	9.8	6.2	11.0	2.5	9.9
	2017	100.0	49.1	10.8	8.7	7.0	13.5	2.5	8.4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청년층) 결과」각년도 5월
주 : 1)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 중 이직경험자, 실업 · 비경제활동인구 포함
2) 회사 내 인간관계, 창업 또는 가족사업 참여, 일자리가 없거나 회사사정 어려움, 권고사직, 기타

Ⅴ. 사회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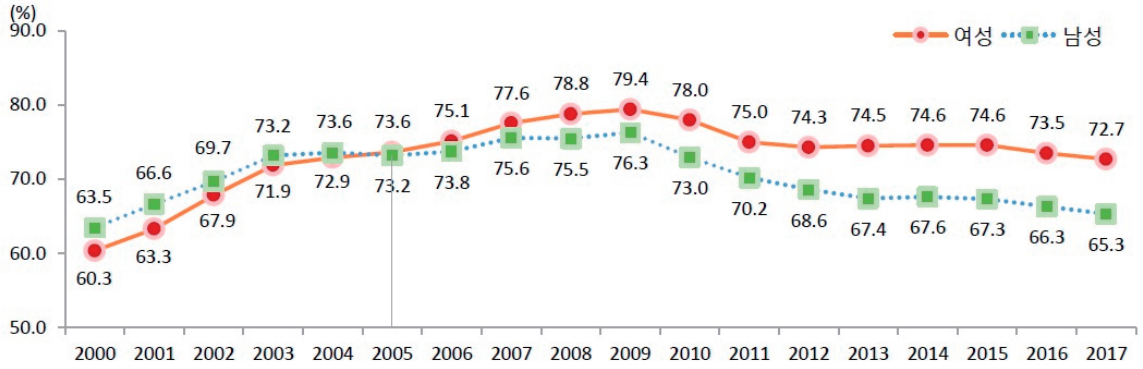
27. 대학진학률

2017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72.7%로 남학생보다 7.4%p 높음

□ 2017년 여학생과 남학생의 대학진학률은 각각 72.7%, 65.3%로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임

○ 대학진학률은 2005년 여학생의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높아진 이후, 2017년 남녀 학생의 진학률 차이는 7.4%p로 나타남

< 대학진학률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 대학진학률[1] 】

(단위 : %, %p)

	전 체	여학생	남학생	차이 (여-남)
2000	62.0	60.3	63.5	-3.1
2005	73.4	73.6	73.2	0.4
2007	76.5	77.6	75.6	2.0
2010	75.4	78.0	73.0	5.0
2011	72.5	75.0	70.2	4.8
2012	71.3	74.3	68.6	5.7
2013	70.7	74.5	67.4	7.1
2014	70.9	74.6	67.6	7.0
2015	70.8	74.6	67.3	7.3
2016	69.8	73.5	66.3	7.2
2017	68.9	72.7	65.3	7.4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각년도

주 : 1) 진학률은 당해연도 졸업자 중 국내·외 상급학교에 진학한 사람의 비율(재수생 미포함)

* 2011년부터 4월 등록자 기준으로 변경(종전은 2월 합격자 기준)되어, 2010년 이전도 등록자 기준 진학률 시계열 비교를 위하여 대학 입학자 기준으로 대체한 진학률임

28. 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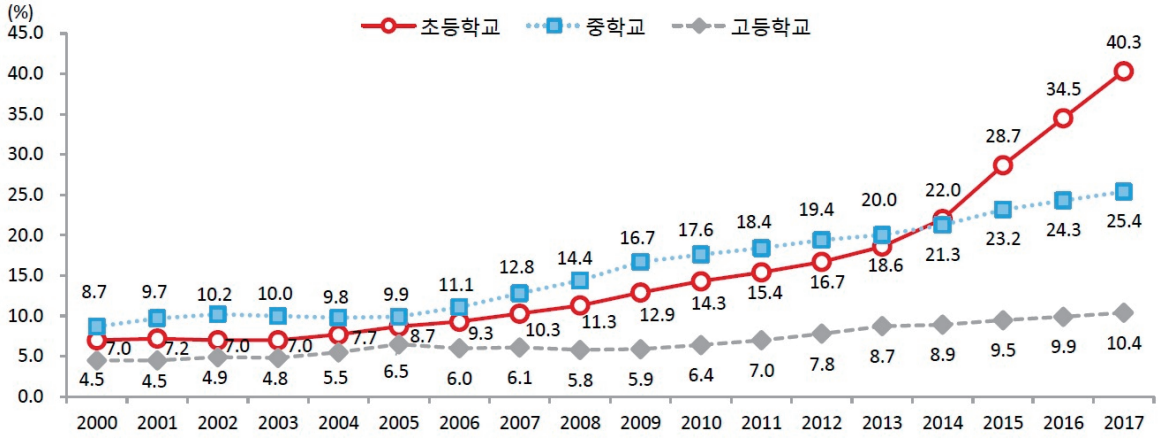
여성 교장 비율은 초등학교(40.3%) > 중학교(25.4%) > 고등학교(10.4%) 순으로 많음

□ 2017년 각 학교급별 교원 중 여성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초등학교는 교원 77.1%가 여성이며, 중학교는 69.3%, 고등학교는 51.5%가 여교원임

○ 여성 교장의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40.3%로 처음으로 40%를 넘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5.4%, 10.4%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10년 전에 비해 초등학교 여교원 비율은 4.1%p 증가하였지만, 교장과 교감은 각각 30.0%p, 41.2%p 증가함

< 학교급별 여성 교장 비율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 학교급별 여교원 비율 】

(단위 : %, %p)

	전체	초등학교[1]	교장	교감	중학교[1]	교장	교감	고등학교[1]	교장	교감	대학(원)[2]
2000	47.5	66.4	7.0	8.9	57.6	8.7	8.9	29.7	4.5	2.7	15.9
2005	52.8	71.0	8.7	14.6	62.3	9.9	17.7	38.1	6.5	4.7	18.3
2007	54.4	73.0	10.3	18.1	63.6	12.8	20.7	40.4	6.1	5.7	19.3
2010	56.7	75.1	14.3	26.9	65.7	17.6	25.6	44.3	6.4	7.6	21.1
2015	59.3	76.9	28.7	54.3	68.6	23.2	30.1	50.1	9.5	11.3	24.4
2016	59.6	77.0	34.5	56.7	68.8	24.3	31.8	50.8	9.9	13.9	24.8
2017	60.0	77.1	40.3	59.3	69.3	25.4	32.8	51.5	10.4	15.7	25.2
증감 ('17-'07)	5.6	4.1	30.0	41.2	5.7	12.6	12.1	11.1	4.3	10.0	5.9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각년도

주 :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에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기간제교원)이 포함됨(휴직교원 포함) 강사 및 퇴직교원은 제외

2) 전문대학, 일반대학, 교육대학, 대학부설대학원(전임교원만 포함하며, 시간강사 및 조교 미포함)

29. 학업성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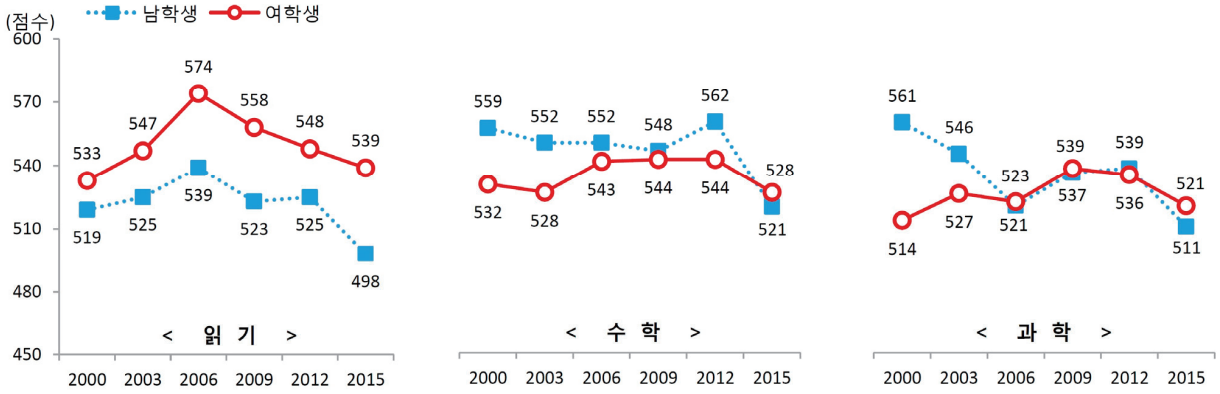
PISA 2015에는 처음으로 전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남

□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15에서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평균 점수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전 영역에서 OECD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남

○ 영역별 남·여학생의 성취도를 살펴보면, PISA 2012에는 수학과 과학은 남학생이 높고 읽기는 여학생이 높았으나, PISA 2015에는 처음으로 전 영역에서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남

- OECD 평균에서는 과학과 수학은 남학생이 높고, 읽기는 여학생이 높게 나타남

< 영역별 남·여학생의 학업성취도 추이 >



자료 : OECD(www.pisa.oecd.org)

【 영역별 학업성취도 】

(단위 : 점)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OECD 평균
읽기	남학생	519	525	539	523	525	498	479
	여학생	533	547	574	558	548	539	506
	차이(남-여)	-14	-21	-35	-35	-23	-41	-27
수학	남학생	559	552	552	548	562	521	494
	여학생	532	528	543	544	544	528	486
	차이(남-여)	27	23	9	3	18	-7	8
과학	남학생	561	546	521	537	539	511	495
	여학생	514	527	523	539	536	521	491
	차이(남-여)	19	18	-2	-2	3	-10	4

자료 : OECD(www.pisa.oecd.org), 만 15세 이상 중·고등학생 대상임

30. 여성 관리자

2016년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4%로 10년 전보다 약 2배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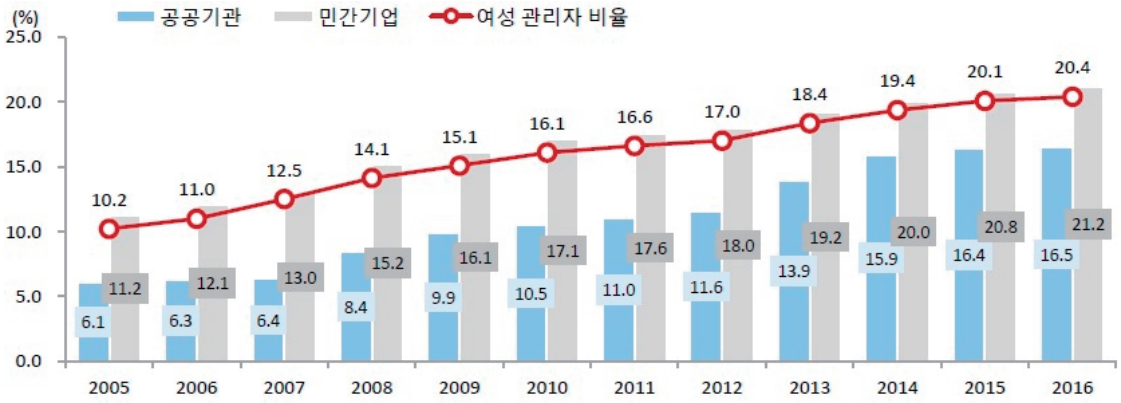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결과, 2016년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20.4%로 지속적인 증가세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 고용상 성차별 해소 또는 평등촉진을 위해 특정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06년 도입)로서,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한 기업에게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제도

○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10년 전인 2006년 11.0%에서 2016년 20.4%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공공기관보다 민간기업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공공기관은 2006년 6.3%에서 2016년 16.5%로 2.6배, 민간기업은 2006년 12.1%에서 2016년 21.2%로 1.8배 증가함

< 여성 관리자 비율 추이 >



자료 : 고용노동부,「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

【 여성 관리자 비율 】

(단위 : %, %p)

	2005	200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
관리자	10.2	11.0	16.1	16.6	17.0	18.4	19.4	20.1	20.4	0.3
공공기관	6.1	6.3	10.5	11.0	11.6	13.9	15.9	16.4	16.5	0.1
민간기업	11.2	12.1	17.1	17.6	18.0	19.2	20.0	20.8	21.2	0.4

자료 : 고용노동부,「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각년도(미승인 통계)
주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 여성 관리자 비율은 개별기업의 고용비율을 평균하여 산출하므로 단순 평균과는 차이가 있음

31. 공무원 및 법조인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17년 처음으로 50% 넘음

□ 2017년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46.0%로 전년(45.2%)보다 0.8%p 증가함

○ 행정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17년 처음으로 50%를 넘은 50.2%로 나타남

【 여성 공무원 비율 】

(단위 : %, %p)

	2005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
전체 여성 공무원[1]	38.1	40.1	41.8	41.8	42.7	42.8	43.9	44.6	45.2	46.0	0.8
국가직 여성 공무원[2]	43.3	45.2	47.2	47.0	48.1	48.1	49.0	49.4	49.8	50.2	0.4

자료 : 인사혁신처,「통계연보」각년도
주 : 1) 행정부(국가, 지방), 입법, 사법, 헌법기관, 선관위를 포함한 전체 공무원 수에 대한 여성 비율임
2)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 수에 대한 여성 비율임

□ 2017년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기준으로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3.2%로 전년(12.1%)보다 1.1%p 증가함

【 일반직 국가공무원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

(단위 : %, %p)

	2005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
4급 이상[1]	3.2[2]	4.5	6.3	7.3	8.2	8.8	9.7	10.6	12.1	13.2	1.1
고위 공무원	-	1.0	2.4	3.2	3.7	3.7	3.4	3.7	4.9	5.2	0.3
3급	2.0	4.1	4.7	4.0	5.0	5.2	5.3	6.3	6.6	6.2	-0.4
4급	3.8	5.2	7.2	8.4	9.4	10.1	11.3	12.4	14.1	15.5	1.4

자료 : 인사혁신처,「통계연보」각년도
주 : 1) 행정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연구·지도·우정직·전문직·외무·별정·일반임기제 제외
2) 1, 2급 포함

□ 2017년 판사, 검사 등의 법조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6.1%로 전년(25.3%)보다 0.8%p 증가함

- 법조인 종류별 여성의 비율은 판사 28.9%, 검사 29.4%, 변호사 25.3%로 모두 전년보다 증가함

【 여성 법조인 비율 】

(단위 : %, %p)

	2005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
계	6.9	9.7	15.0	16.7	18.7	21.2	22.9	24.1	25.3	26.1	0.8
판사[1]	11.3	18.7	24.0	25.5	26.8	27.4	27.4	27.6	27.8	28.9	1.1
검사[1]	7.0	11.6	20.8	22.7	24.1	25.4	26.6	27.7	28.7	29.4	0.7
변호사[2]	5.6	6.8	11.7	13.6	16.1	19.4	21.7	23.2	24.4	25.3	0.9

자료 : 인사혁신처,「통계연보」각년도, 대한변호사협회,「한국변호사백서」2010
주 : 1) 2009년부터 인사혁신처 자료임
2) 개업변호사 기준

32. 의료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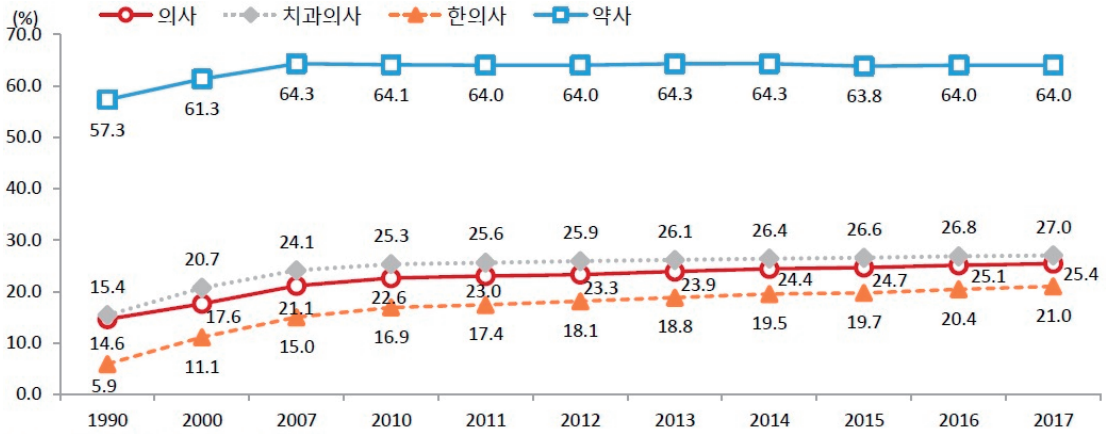
의료 분야 여성 비율은 의사 25.4%, 치과의사 27.0%, 한의사 21.0%, 약사 64.0%로 나타남

□ 2017년 의료 분야의 여성 비율은 의사 25.4%, 치과의사 27.0%, 한의사 21.0%, 약사 64.0%로 나타남

○ 의료 분야 여성 비율을 10년 전과 비교하면, 한의사는 2007년 15.0%에서 2017년 21.0%로 6.0%p 증가하여 다른 분야보다 많이 증가하였고 의사는 4.3%p, 치과의사는 2.9%p 증가함

○ 한편, 여성 비율이 높은 약사는 10년 전보다 0.3%p 감소하였지만 64%를 유지함

< 의료 분야 여성 비율 >



자료 :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비율 】

(단위 : 명, %, %p)

	의 사	여성비율	치과의사	여성비율	한의사	여성비율	약 사	여성비율
1990	42,554	14.6	9,619	15.4	5,792	5.9	37,118	57.3
2000	72,503	17.6	18,039	20.7	12,108	11.1	50,623	61.3
2007	91,475	21.1	23,126	24.1	16,732	15.0	57,176	64.3
2010	101,443	22.6	25,390	25.3	19,132	16.9	60,956	64.1
2011	104,397	23.0	26,098	25.6	19,912	17.4	62,245	64.0
2012	107,221	23.3	26,791	25.9	20,600	18.1	63,647	64.0
2013	109,500	23.9	27,398	26.1	21,287	18.8	63,292	64.3
2014	112,407	24.4	28,123	26.4	22,007	19.5	63,150	64.3
2015	115,976	24.7	28,947	26.6	23,178	19.7	65,510	63.8
2016	118,696	25.1	29,632	26.8	23,845	20.4	66,992	64.0
2017	121,571	25.4	30,333	27.0	24,560	21.0	68,616	64.0
증감 ('17-'07)	30,096	4.3	7,207	2.9	7,828	6.0	11,440	-0.3

자료 :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각년도
주 : 해외거주자 포함(사망자 및 취소자 제외)

33.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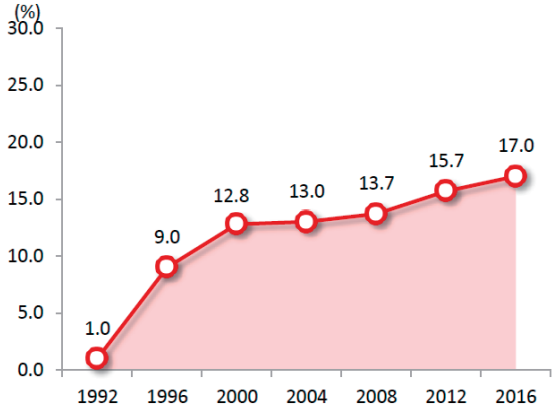
2018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중 여성이 차지한 비율은 28.3%로 2014년보다 5.4%p 증가함

□ 2018년 제7회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총 의원 3,750명 중 당선된 여성 의원은 1,060명으로 28.3%를 차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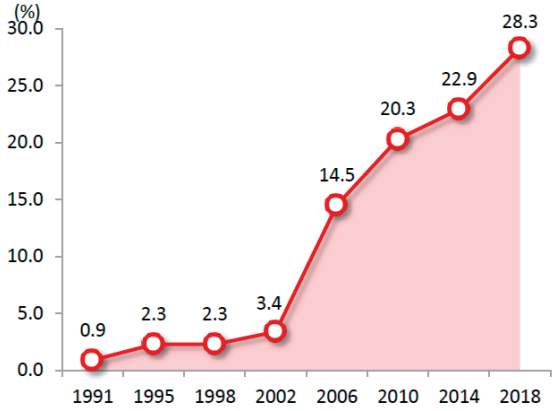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의원 300명 중 여성 의원은 51명으로 17.0%를 차지함

○ 여성 의원 비율은 국회의원보다 지방의회 의원의 비율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국회의원 여성 비율 >



< 지방의회 의원 여성 비율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의원선거총람」,「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 의원 비율 】

(단위 : 명, %)

	국회의원[1]	여성의원	비율	지방의회의원[2]	여성의원	비율
1991	-	-	-	5,169	48	0.9
1992	299	3	1.0	-	-	-
1995	-	-	-	5,511	127	2.3
1996	299	27	9.0	-	-	-
1998	-	-	-	4,179	97	2.3
2000	273	35	12.8	-	-	-
2002	-	-	-	4,167	140	3.4
2004	299	39	13.0	-	-	-
2006	-	-	-	3,621	525	14.5
2008	299	41	13.7	-	-	-
2010	-	-	-	3,649	739	20.3
2012	300	47	15.7	-	-	-
2014	-	-	-	3,687	845	22.9
2016	300	51	17.0	-	-	-
2018	-	-	-	3,750	1,060	28.3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 : 1)「국회의원선거총람」각년도
2)「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각년도

34. 문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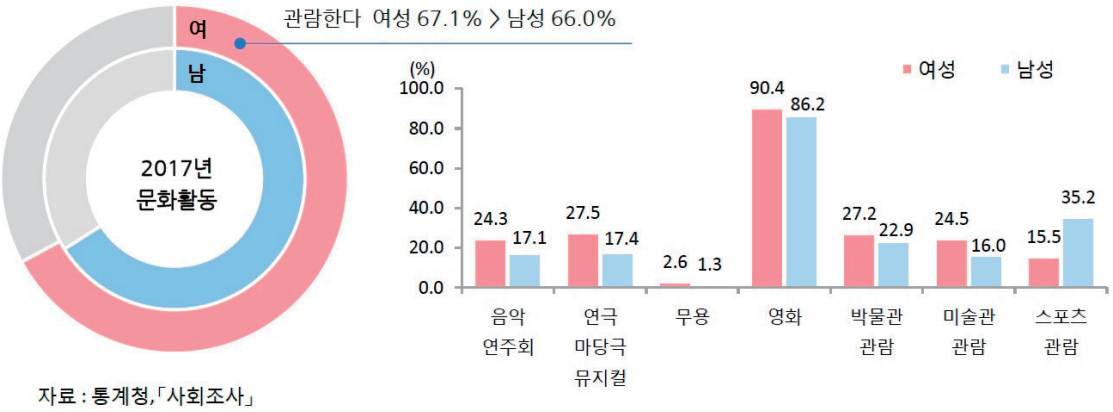
2017년 문화 및 예술을 관람한 여성은 67.1%로 남성보다 1.1%p 높음

□ 2017년 지난 1년 동안 공연, 전시 및 스포츠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여성은 67.1%로 남성(66.0%)보다 1.1%p 높음

○ 문화활동 비율은 남녀 모두 꾸준히 증가추세이나, 여성의 경우 2017년에 2년 전(67.7%)보다 소폭 감소함

○ 여성의 문화활동 중「영화」관람이 90.4%로 가장 높았으며,「스포츠 관람」을 제외하고는 남성보다 모두 높게 나타남

< 문화활동(2017년) >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복수응답) 】

(단위 : %)

		관람함[1]	음악 연주회	연극 마당극 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관람	미술관 관람	스포츠 관람
여성	2011	59.2	28.7	30.2	3.3	85.5	28.4	24.4	14.9
	2013	63.8	25.0	29.2	3.0	88.1	27.3	22.8	12.8
	2015	67.7	23.5	27.1	2.2	90.2	28.4	22.3	12.8
	2017	67.1	24.3	27.5	2.6	90.4	27.2	24.5	15.5
남성	2011	58.0	21.4	19.6	1.9	77.8	24.3	16.8	34.2
	2013	63.0	18.2	18.9	1.8	83.6	24.2	15.9	31.6
	2015	65.8	17.6	17.4	1.2	85.8	24.7	15.7	30.0
	2017	66.0	17.1	17.4	1.3	86.2	22.9	16.0	35.2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주 : 1)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 공연 및 스포츠를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

35.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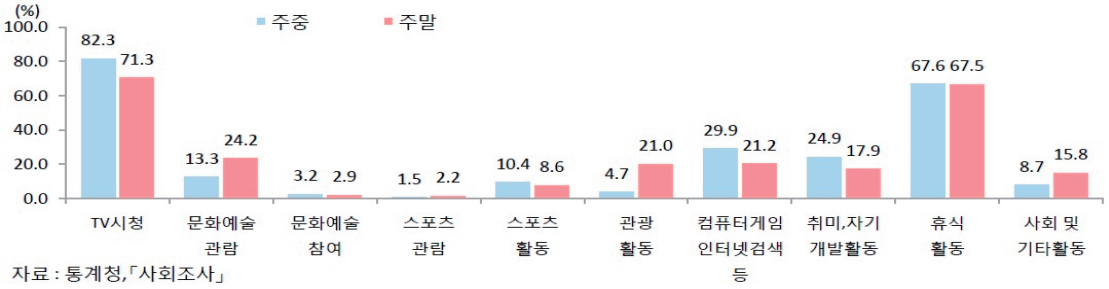
여가시간에 여성은「문화예술관람」,「관광활동」,「사회 및 기타활동」을
남성은「스포츠 관람 및 활동」,「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을 더 활용함

□ 2017년 여성은 여가시간에 주중, 주말 모두「TV시청」,「휴식활동」순으로 많이 활용하며, 다음으로 주중은「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주말은「문화예술관람」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은 남성보다 여가시간에「TV시청」,「문화예술」,「관광」,「취미, 자기개발」,「휴식」,「사회 및 기타활동」을 더 많이 활용함

- 남성은 여성보다「스포츠」,「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을 더 활용함

< 여성의 여가 활용(2017년) >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

【 여가 활용(복수응답) 】

(단위 : %)

		TV 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취미 자기 개발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여성	주중	82.3	13.3	3.2	1.5	10.4	4.7	29.9	24.9	67.6	8.7	0.4
	주말	71.3	24.2	2.9	2.2	8.6	21.0	21.2	17.9	67.5	15.8	0.6
남성	주중	79.9	10.0	2.5	7.2	18.4	3.5	41.6	19.5	63.9	4.7	0.3
	주말	67.5	18.3	2.4	8.3	22.3	17.3	32.6	17.2	62.3	9.7	0.4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2017

□ 2017년 여성은 가족과 함께 여가 활용을 하는 사람이 주중(43.3%)과 주말(58.3%) 모두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주중에는 혼자서(30.5%) 하는 사람이 많고 주말에는 친구(20.0%)와 함께 하는 사람이 많음

【 여가 활용을 함께 하는 사람 】

(단위 : %)

		계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혼자서	직장동료와 함께	기타
여성	주중	100.0	43.3	19.6	4.0	30.5	2.4	0.1
	주말	100.0	58.3	20.0	6.6	14.5	0.7	0.0
남성	주중	100.0	43.5	16.8	3.8	30.2	5.6	0.0
	주말	100.0	52.3	22.3	6.8	16.7	1.9	0.0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2017

36. 나눔활동

기부경험과 자원봉사활동 경험 비율은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

□ 2017년 여성은 27.4%가 지난 1년 동안 기부를 해 본 경험이 있지만, 그 비율은 감소 추세임

- 남성의 기부경험 비율은 25.9%로 여성이 남성보다 기부를 해 본 경험이 1.5%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로 남녀 모두「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많음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는 2년 전보다 남녀 모두 각각 8.3%p, 7.7%p 증가함

【 기부경험과 하지 않은 이유 】

(단위 : %)

		기부경험		기부하지 않은 이유						
		있음[1]	없음	소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기부 방법을 몰라서	기부단체 신뢰할 수 없어서	직접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기타
여성	2011	34.2	65.8	100.0	63.0	17.5	3.9	8.7	6.3	0.6
	2013	32.1	67.9	100.0	60.7	17.9	4.6	8.1	7.9	0.8
	2015	29.0	71.0	100.0	64.7	14.0	3.6	10.0	7.4	0.3
	2017	27.4	72.6	100.0	58.8	21.7	4.3	8.5	6.6	0.1
남성	2011	38.7	61.3	100.0	62.1	19.9	3.5	9.0	5.1	0.4
	2013	37.2	62.8	100.0	61.1	18.8	3.9	8.3	7.6	0.3
	2015	30.8	69.2	100.0	62.2	16.4	3.3	11.2	6.8	0.1
	2017	25.9	74.1	100.0	55.8	24.7	4.0	9.4	6.1	0.1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주 : 1)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한 적이 있는 사람

□ 2017년 여성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은 18.8%이며, 평균 참여 횟수는 9.2회, 평균시간은 27.2시간임

○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횟수, 봉사시간이 모두 많으며, 향후 참여 의향도 더 높게 나타남

【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 】

(단위 : %, 회, 시간)

		참여 경험		참여 횟수 및 시간		향후 1년 이내 참여 의향	
		있음[1]	없음	평균 횟수	평균 시간[2]	있음	없음
여성	2011	20.1	79.9	7.6	26.1	46.0	54.0
	2013	20.1	79.9	8.4	26.4	44.0	56.0
	2015	18.7	81.3	8.5	25.7	38.6	61.4
	2017	18.8	81.2	9.2	27.2	38.1	61.9
남성	2011	19.6	80.4	6.5	23.3	45.3	54.7
	2013	19.6	80.4	6.7	23.7	42.5	57.5
	2015	17.7	82.3	7.0	23.0	35.9	64.1
	2017	16.8	83.2	7.3	23.7	36.0	64.0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주 : 1)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

2) 자원봉사활동 참여인구 1인당 연간 평균 참여시간

37. 단체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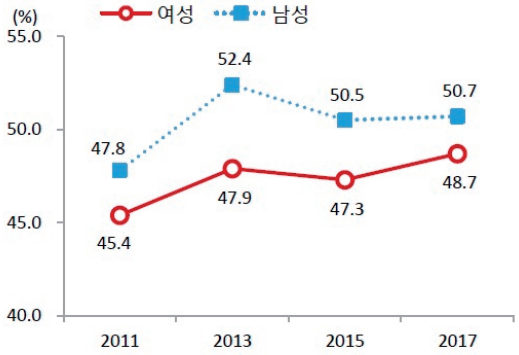
2017년 여성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은
「친목 및 사교」,「취미, 스포츠, 여가활동」,「종교」순임

□ 2017년 지난 1년 동안 동창회, 취미활동 등의 각종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여성은 48.7%로 2년 전(47.3%)보다 1.4%p 증가함

○ 남성의 단체 참여율은 50.7%로 여성보다 2.0%p 높음
- 단체 참여 중「종교단체」,「시민사회단체」,「지역사회모임」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활동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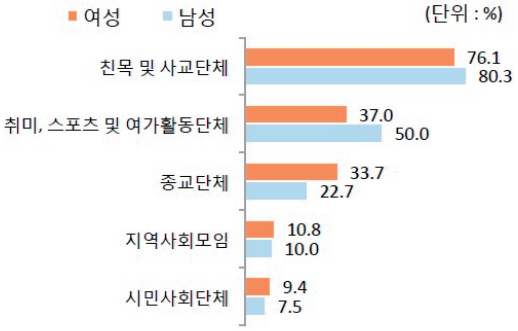
○ 단체 활동 참여자 중 남녀 모두「친목 및 사교단체」,「취미, 스포츠 및 여가활동단체」,「종교단체」순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체 참여 비율 >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

< 참여 단체(2017년) >



【 단체참여(복수응답) 】

(단위 : %)

		참여자[1]	친목 사교 단체	종교 단체	취미 스포츠 여가활동 단체	시민 사회 단체	학술 단체	이익 단체	정치 단체	지역 사회 모임	기타
여성	2011	45.4	71.0	34.6	27.4	11.1	4.1	1.4	0.6	10.6	1.0
	2013	47.9	73.2	32.0	25.5	11.7	4.0	1.3	0.4	9.2	0.3
	2015	47.3	73.4	33.0	29.0	10.2	4.7	1.4	0.3	9.9	0.1
	2017	48.7	76.1	33.7	37.0	9.4	4.9	2.6	0.9	10.8	0.1
남성	2011	47.8	75.2	22.9	40.5	10.9	5.2	3.6	1.4	9.6	0.5
	2013	52.4	77.3	21.2	39.8	10.8	5.1	2.8	1.0	8.6	0.3
	2015	50.5	77.7	21.7	41.1	8.6	5.9	3.7	0.9	8.6	0.0
	2017	50.7	80.3	22.7	50.0	7.5	6.2	5.0	1.7	10.0	0.0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주 : 1)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 동창회, 취미활동 등의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

38. 사회적 관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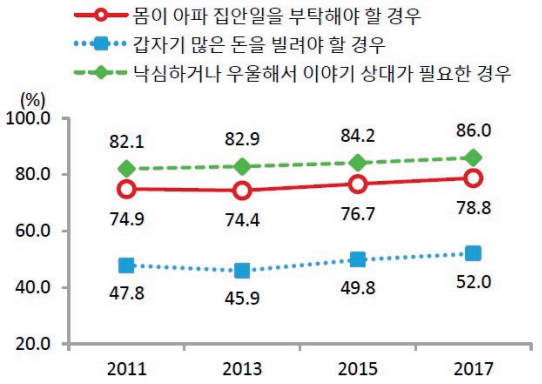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관계망 비율이 높음

□ 2017년 우리나라 국민 중 다음의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여성 86.0%(3.1명) > 남성 81.2%(3.1명)
-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여성 78.8%(2.3명) > 남성 77.9%(2.4명)
-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여성 52.0%(2.2명) > 남성 51.9%(2.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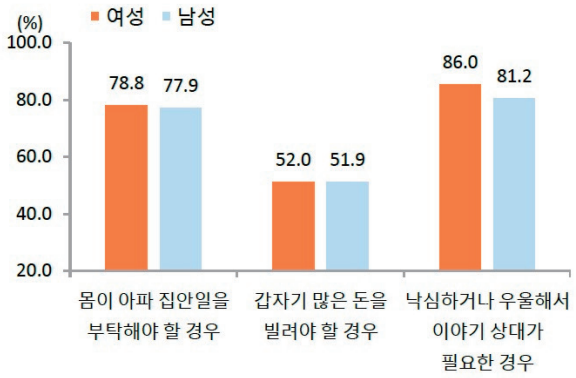
○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

< 성별 사회적 관계망(2017년) >



【 사회적 관계망 】

(단위 : %, 명)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1]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 받을 사람 있음	사람 수	도움 받을 사람 있음	사람 수	도움 받을 사람 있음	사람 수
여성	2011	74.9	2.3	47.8	2.5	82.1	3.1
	2013	74.4	2.2	45.9	2.3	82.9	3.0
	2015	76.7	2.1	49.8	2.3	84.2	2.9
	2017	78.8	2.3	52.0	2.2	86.0	3.1
남성	2011	76.9	2.5	49.5	2.7	79.8	3.2
	2013	75.0	2.3	48.1	2.6	79.2	3.1
	2015	76.9	2.2	50.4	2.4	80.5	3.0
	2017	77.9	2.4	51.9	2.5	81.2	3.1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주 : 1) 만 19세 이상 인구 대상임

39. 투표율

50대 이하에서는 여성의 투표율이 높고, 60대 이상은 남성의 투표율이 높음

□ 남녀 투표율(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은 사회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선거 투표율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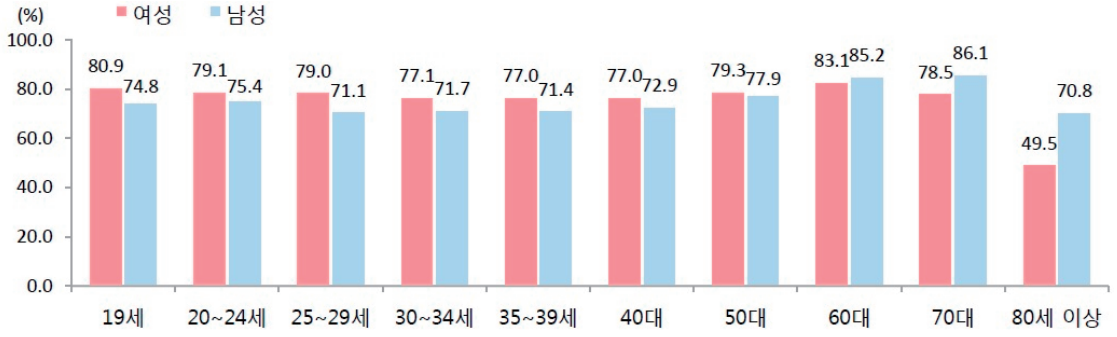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2007	2012	2017	2008	2012	2016	2010	2014	2018[1]
전체	63.0	75.8	77.2	46.1	54.2	58.0	54.5	56.8	60.2
여성	63.1	76.4	77.3	44.3	53.1	57.4	54.7	57.2	-
남성	63.3	74.8	76.2	48.4	55.7	58.8	55.1	57.2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 선거총람」,「국회의원 선거총람」,「전국동시지방 선거총람」각년도
주 : 1) 2018년 6.13.선거 성별 투표율은 미공표

□ 제19대 대통령 선거 성별·연령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60대(83.1%)와 19세(80.9%)가 투표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60~70대 투표율이 높음

○ 50대 이하에서는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남성의 투표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 성별·연령별 투표율(2017년 19대 대선)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 선거총람」2017

【 제19대 대통령 선거 성별·연령별 투표율(2017년) 】

(단위 : %)

	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전체	77.7	77.1	74.9	74.3	74.1	74.9	78.6	84.1	81.8	56.2
여성	80.9	79.1	79.0	77.1	77.0	77.0	79.3	83.1	78.5	49.5
남성	74.8	75.4	71.1	71.7	71.4	72.9	77.9	85.2	86.1	70.8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 선거총람」2017

Ⅶ. 안 전

40.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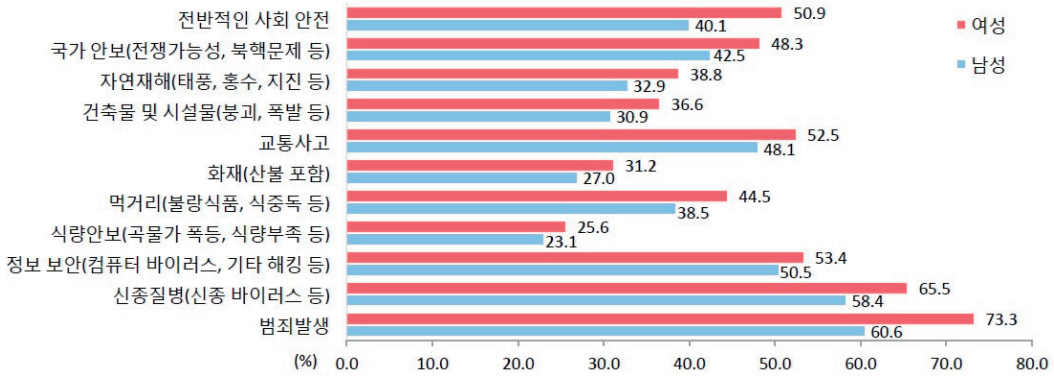
사회 안전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불안」하다고 느낌

□ 2016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여성은 50.9%가「불안」하다 느끼며, 남성(40.1%)보다 10.8%p 높음

○ 여성의 사회 안전 부문에 대하여「불안」하다는 비율은「범죄발생(73.3%)」,「신종질병(65.5%)」,「정보보안(53.4%)」순으로 높게 나타남

○「범죄발생」에 대해 남녀 차이가 12.7%p로 가장 크고,「신종질병(7.1%p)」,「먹거리(6.0%p)」,「자연재해(5.9%p)」순으로 남녀 차이가 많이 남

< 성별 사회 안전에 대한「불안」비율(2016년) >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2016년) 】

(단위 : %)

		여 성			남 성		
	계	안전[1]	보통	불안[2]	안전	보통	불안
전반적인 사회 안전	100.0	10.6	38.5	50.9	15.9	44.0	40.1
국가 안보(전쟁가능성, 북핵문제 등)	100.0	17.8	34.0	48.3	21.8	35.7	42.5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	100.0	18.6	42.6	38.8	22.9	44.2	32.9
건축물 및 시설물(붕괴, 폭발 등)	100.0	18.3	45.1	36.6	23.2	45.9	30.9
교통사고	100.0	9.3	38.2	52.5	11.2	40.7	48.1
화재(산불 포함)	100.0	17.8	51.0	31.2	20.5	52.6	27.0
먹거리(불량식품, 식중독 등)	100.0	15.9	39.6	44.5	18.9	42.6	38.5
식량안보(곡물가 폭등, 식량부족 등)	100.0	27.7	46.7	25.6	31.0	45.9	23.1
정보 보안(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	100.0	11.0	35.6	53.4	12.9	36.6	50.5
신종질병(신종 바이러스 등)	100.0	7.8	26.6	65.5	10.9	30.7	58.4
범죄발생	100.0	6.6	20.1	73.3	12.0	27.4	60.6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2016
주 : 1) '매우 안전하다'와 '비교적 안전하다'를 합한 수치임
2) '비교적 불안하다'와 '매우 불안하다'를 합한 수치임

41. 주요 범죄의 피해자

2016년 형법범 주요 범죄 중 여성 피해자는「사기」,「절도」,「폭행」순임

□ 2016년 절도, 살인, 강도, 성폭력 등 형법범 주요 범죄 중 여성 피해자는「사기」,「절도」,「폭행」순임

○ 형법범 주요 범죄 중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26,116건)이 남성(1,478건)보다 약 17배 많으며, 다른 범죄는 남성이 많음

○ 여성 피해자를 10년 전과 비교하면,「강도」는 2006년 2,512건에서 2016년 1/5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성폭력」과「폭행」은 2배 이상 증가함

【 형법범 중 주요 범죄의 피해자 】

(단위 : 건)

		형법범 중 주요 범죄의 피해자 현황						
		절도	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	상해	사기
여성	2006	61,659	445	2,512	12,403	20,231	25,489	53,772
	2015	80,368	391	674	27,959	50,306	19,253	83,406
	2016	69,170	379	535	26,116	55,175	17,312	74,507
남성	2006	118,972	558	1,917	507	34,034	42,057	120,364
	2015	157,021	536	744	1,448	86,450	35,713	151,014
	2016	128,660	521	596	1,478	88,879	30,701	146,865
차이(남-여)		59,490	142	61	-24,638	33,704	13,389	72,358

자료 : 대검찰청,「범죄분석」각년도

□ 2016년 여성 성폭력 피해자는「21~30세」가 9,644건으로 36.9%를 차지함

- 다음으로「20세 이하(7,986건)」,「31~40세(3,357건)」순임

【 여성의 연령별 성폭력 피해자(2016년) 】

(단위 : 건, %)

	계[1]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0세 초과
2016	26,116	7,986	9,644	3,357	2,422	1,624	560
구성비	100.0	30.6	36.9	12.9	9.3	6.2	2.1

자료 : 대검찰청,「범죄분석」각년도
주 : 1) 미상 포함

42. 주요 범죄의 범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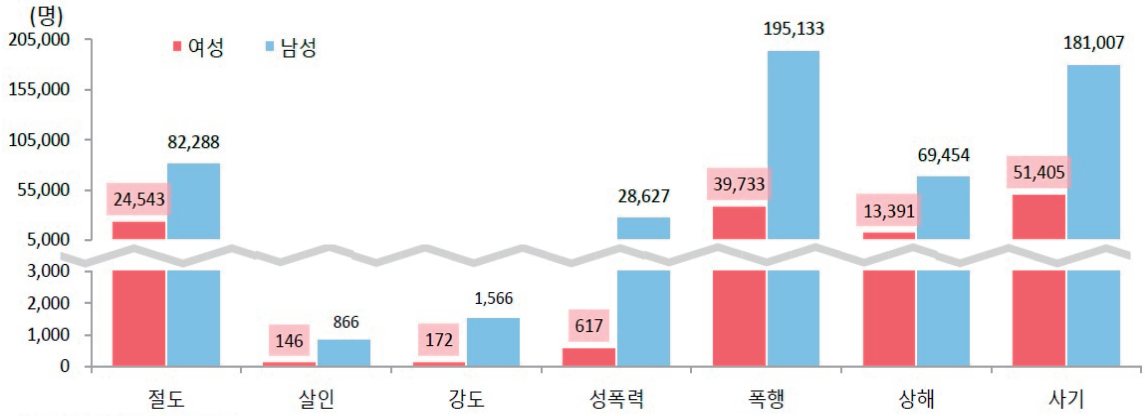
2016년 형법범 주요 범죄 중 여성 범죄자는「사기」,「폭행」,「절도」순임

□ 2016년 절도, 살인, 강도, 성폭력 등 형법범 주요 범죄 중 여성 범죄자는「사기」가 51,405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폭행」,「절도」순임

○ 10년 전과 비교하면, 여성 범죄자는「성폭력」이 2006년 65명에서 2016년 9.5배 증가한 617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함

○ 형법범 주요 범죄의 범죄자는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남

< 주요 범죄의 범죄자(2016년) >



자료 : 대검찰청,「범죄분석」

【 형법범 중 주요 범죄의 범죄자 】

(단위 : 명)

		형법범 중 주요 범죄의 범죄자 현황						
		절도	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	상해	사기
여성	2006	10,414	117	199	65	11,183	14,119	68,350
	2015	21,579	169	215	486	36,156	15,040	53,354
	2016	24,543	146	172	617	39,733	13,391	51,405
남성	2006	52,169	778	2,637	10,016	64,153	76,667	194,861
	2015	82,031	833	1,806	26,651	183,077	78,009	184,535
	2016	82,288	866	1,566	28,627	195,133	69,454	181,007

자료 : 대검찰청,「범죄분석」각년도

43. 1366(여성긴급전화) 상담

2017년 1366(여성긴급전화)을 이용한 상담 건수는 총 28만9천건,
상담 내용은「가정폭력」이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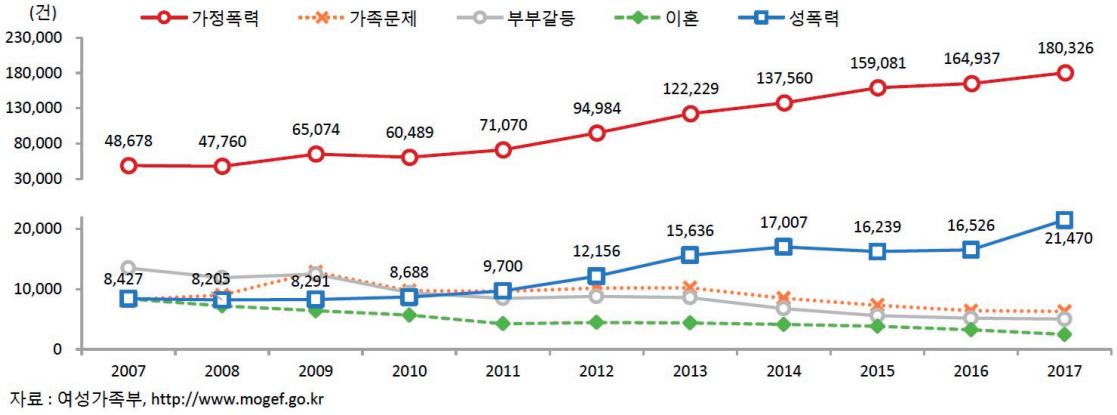
□ 2017년 1366(여성긴급전화) 상담 건수는 28만9천건으로 전년(26만7천건)보다 2만2천건(8.3%) 증가함

○ 1366(여성긴급전화)을 통한 여성 상담 내용을 보면「가정폭력」이 18만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62.4%를 차지함

○ 상담 내용은 전년보다「성폭력(29.9%)」,「성매매(28.6%)」,「중독(9.4%)」,「가정폭력(9.3%)」은 증가함

- 「성상담」,「이혼」,「법률」,「부부갈등」,「가족문제」는 감소함

< 1366(여성긴급전화) 상담 내용 >



자료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1366(여성긴급전화) 상담 】

(단위 : 건, %)

	계	가정폭력	가족문제	부부갈등	이혼	중독	성폭력	성상담	성매매	법률	기타[1]
2007	160,899	48,678	8,258	13,492	8,372	2,199	8,427	6,297	1,936	7,507	55,733
2008	158,635	47,760	8,991	11,887	7,215	2,148	8,205	6,419	1,817	6,876	57,317
2009	190,859	65,074	12,839	12,483	6,400	1,861	8,291	5,584	1,887	5,395	71,045
2010	183,240	60,489	9,743	9,411	5,688	3,228	8,688	5,695	1,497	4,561	74,240
2011	191,050	71,070	9,639	8,453	4,249	3,206	9,700	5,382	2,027	3,783	73,541
2012	223,109	94,984	10,181	8,780	4,453	2,742	12,156	3,883	2,324	4,488	79,118
2013	253,616	122,229	10,215	8,604	4,382	2,288	15,636	3,724	2,981	4,642	78,915
2014	265,792	137,560	8,498	6,773	4,125	2,324	17,007	1,789	3,070	4,470	80,176
2015	274,226	159,081	7,327	5,583	3,830	1,734	16,239	1,204	3,046	3,687	72,495
2016	266,901	164,937	6,415	5,164	3,256	1,321	16,526	863	2,647	2,711	63,061
2017	**289,032**	**180,326**	**6,302**	**5,027**	**2,477**	**1,445**	**21,470**	**508**	**3,405**	**2,212**	**65,860**
구성비	100.0	62.4	2.2	1.7	0.9	0.5	7.4	0.2	1.2	0.8	22.8

자료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주 : 1) 종교갈등, 보건상담(치매상담 등), 이성교제, 미혼모, 취업직업훈련 등

Ⅶ. 통계표

Ⅰ. 인구와 가구

1. 인구추이 / 55
2. 연령대별 인구 / 56
3. 가구주
   3-1. 혼인상태별 가구주 / 57
   3-2. 연령대별 미혼 여성 가구주 / 58
4. 1인 가구
   4-1. 성별 1인 가구 / 59
   4-2. 연령대별 1인 가구 / 60

Ⅱ. 가족

5. 혼인 / 61
6. 이혼
   6-1. 혼인지속 기간별 이혼건수 / 62
   6-2. 이혼사유별 이혼건수 / 63
7. 외국인과의 혼인 · 이혼
   7-1. 외국인과의 혼인 / 64
   7-2. 외국인과의 이혼 / 65
   7-3.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국적별 혼인 / 66
8. 출생아수 및 출생성비 / 67
9. 가족 관계 만족도 / 68

Ⅲ. 건강

10. 기대여명
   10-1. 성별 기대수명(출생 시 기대여명) / 69
   10-2.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 70
11. 사망률
   11-1. 사망률 / 71
   11-2. 성별 사망원인 순위 / 72
12. 흡연 및 음주 / 73
13. 스트레스 및 우울감 / 74
14. 주관적 건강인지율 / 75

Ⅳ. 경제활동

15. 고용동향 / 76
16. 연령대별 고용률 / 77
17. 교육정도별 취업자 / 78
18. 직업별 취업자 / 79

19.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 80
20. 근로형태별 취업자
20-1. 근로형태별 취업자 / 81
20-2. 연령대별 비정규직 근로자 구성비 / 82
21. 시간제 근로자 / 83
22. 활동상태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 84
23. 근로여건 / 85
24. 사회보험 가입률 / 86
25.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25-1.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 87
25-2. 여성취업 장애 요인 / 88
26. 청년층(15~29세)의 첫 직장 이직사유 / 89

Ⅴ. 사회적 지위

27. 대학진학률 / 90
28. 여교원 / 91
29. 학업성취도 / 92
30. 여성 관리자 / 93
31. 공무원 및 법조인
31-1. 여성 공무원 / 94
31-2. 일반직 국가공무원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 95
31-3. 여성 법조인 / 96
32. 의료 분야 / 97
33.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 98

Ⅵ. 문화 · 여가 및 사회참여

34. 문화활동 / 99
35. 여가활동
35-1. 여가 활용(복수응답) / 100
35-2. 여가 활용을 함께하는 사람 / 101
36. 나눔활동
36-1. 기부 경험과 하지 않은 이유 / 102
36-2.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 / 103
37. 단체참여 / 104
38. 사회적 관계망 / 105
39. 투표율 / 106

Ⅶ. 안전

40.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 107
41. 주요 범죄의 피해자 / 109
42. 주요 범죄의 범죄자 / 110
43. 1366(여성긴급전화) 상담 / 111

1. 인구추이

(단위 : 천명, %, 명)

	총인구	증감률[1]	여 성	구성비	남 성	구성비	성 비[2]
1970	32,241	2.2	15,932	49.4	16,309	50.6	102.4
1975	35,281	1.7	17,515	49.6	17,766	50.4	101.4
1980	38,124	1.6	18,888	49.5	19,236	50.5	101.8
1985	40,806	1.0	20,230	49.6	20,576	50.4	101.7
1990	42,869	1.0	21,301	49.7	21,568	50.3	101.3
1995	45,093	1.0	22,388	49.6	22,705	50.4	101.4
2000	47,008	0.8	23,341	49.7	23,667	50.3	101.4
2001	47,370	0.8	23,515	49.6	23,855	50.4	101.4
2002	47,645	0.6	23,653	49.6	23,991	50.4	101.4
2003	47,892	0.5	23,771	49.6	24,121	50.4	101.5
2004	48,083	0.4	23,872	49.6	24,211	50.4	101.4
2005	48,185	0.2	23,941	49.7	24,243	50.3	101.3
2006	48,438	0.5	24,069	49.7	24,370	50.3	101.2
2007	48,684	0.5	24,192	49.7	24,491	50.3	101.2
2008	49,055	0.8	24,383	49.7	24,672	50.3	101.2
2009	49,308	0.5	24,533	49.8	24,774	50.2	101.0
2010	49,554	0.5	24,673	49.8	24,881	50.2	100.8
2011	49,937	0.8	24,867	49.8	25,070	50.2	100.8
2012	50,200	0.5	25,012	49.8	25,187	50.2	100.7
2013	50,429	0.5	25,144	49.9	25,285	50.1	100.6
2014	50,747	0.6	25,302	49.9	25,445	50.1	100.6
2015	51,015	0.5	25,429	49.8	25,586	50.2	100.6
2016	51,246	0.5	25,552	49.9	25,694	50.1	100.6
2017	51,446	0.4	25,656	49.9	25,790	50.1	100.5
2018	51,635	0.4	25,754	49.9	25,881	50.1	100.5
2019	51,811	0.3	25,846	49.9	25,966	50.1	100.5
2020	51,974	0.3	25,930	49.9	26,044	50.1	100.4
2030	52,941	0.1	26,434	49.9	26,508	50.1	100.3
2040	52,198	-0.3	26,106	50.0	26,092	50.0	99.9
2050	49,433	-0.7	24,755	50.1	24,678	49.9	99.7
2060	45,246	-1.0	22,578	49.9	22,668	50.1	100.4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12.
주 : 1) 전년대비 증감률임
2) 여성 100명 당 남성 수

2. 연령대별 인구

(단위 : 천명, %)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 여 성 >					
1990	21,301	3,368	4,050	4,209	3,491	2,275	1,871	1,189	625	223
2000	23,341	3,188	3,334	3,985	4,164	3,414	2,197	1,751	961	348
2001	23,515	3,155	3,224	3,953	4,181	3,604	2,222	1,808	998	370
2002	23,653	3,069	3,143	3,911	4,200	3,750	2,273	1,865	1,049	393
2003	23,771	2,963	3,094	3,862	4,200	3,898	2,334	1,911	1,093	417
2004	23,872	2,859	3,074	3,775	4,221	3,998	2,425	1,933	1,144	443
2005	23,941	2,744	3,080	3,682	4,203	4,041	2,574	1,943	1,206	468
2006	24,069	2,627	3,096	3,615	4,179	4,095	2,740	1,949	1,271	495
2007	24,192	2,526	3,114	3,553	4,145	4,132	2,867	1,994	1,334	526
2008	24,383	2,451	3,130	3,491	4,110	4,176	3,022	2,049	1,394	561
2009	24,533	2,377	3,135	3,424	4,042	4,216	3,188	2,090	1,456	606
2010	24,673	2,296	3,134	3,329	4,012	4,219	3,382	2,136	1,514	651
2011	24,867	2,244	3,115	3,253	3,978	4,226	3,624	2,159	1,577	692
2012	25,012	2,226	3,033	3,190	3,950	4,254	3,760	2,205	1,653	740
2013	25,144	2,221	2,932	3,157	3,896	4,258	3,912	2,254	1,723	790
2014	25,302	2,204	2,838	3,158	3,820	4,319	4,011	2,345	1,760	846
2015	25,429	2,204	2,731	3,173	3,744	4,304	4,075	2,501	1,788	909
2016	25,552	2,201	2,616	3,198	3,687	4,271	4,142	2,679	1,776	979
2017	25,656	2,181	2,517	3,225	3,635	4,228	4,187	2,804	1,832	1,049
2018	25,754	2,146	2,439	3,249	3,569	4,174	4,227	2,949	1,886	1,116
(구성비)	(100.0)	(8.3)	(9.5)	(12.6)	(13.9)	(16.2)	(16.4)	(11.4)	(7.3)	(4.3)
					< 남 성 >					
1990	21,568	3,678	4,318	4,460	3,686	2,369	1,741	869	367	80
2000	23,667	3,593	3,638	4,222	4,357	3,528	2,175	1,447	569	136
2001	23,855	3,541	3,548	4,205	4,380	3,712	2,215	1,513	596	146
2002	23,991	3,432	3,480	4,165	4,409	3,867	2,273	1,578	629	158
2003	24,121	3,297	3,448	4,125	4,428	4,014	2,340	1,632	667	170
2004	24,211	3,162	3,444	4,048	4,446	4,117	2,436	1,664	710	183
2005	24,243	3,014	3,466	3,951	4,425	4,165	2,573	1,693	760	196
2006	24,370	2,869	3,491	3,899	4,409	4,229	2,730	1,719	816	209
2007	24,491	2,748	3,509	3,846	4,383	4,273	2,862	1,774	873	223
2008	24,672	2,660	3,520	3,792	4,355	4,314	3,021	1,842	931	237
2009	24,774	2,568	3,518	3,730	4,282	4,350	3,185	1,897	991	254
2010	24,881	2,473	3,504	3,644	4,253	4,359	3,370	1,954	1,051	272
2011	25,070	2,408	3,473	3,588	4,231	4,374	3,605	1,991	1,112	289
2012	25,187	2,381	3,372	3,544	4,196	4,404	3,745	2,047	1,188	310
2013	25,285	2,368	3,244	3,529	4,140	4,395	3,910	2,104	1,260	335
2014	25,445	2,343	3,118	3,559	4,080	4,455	4,022	2,202	1,302	363
2015	25,586	2,337	2,980	3,608	4,020	4,449	4,098	2,356	1,343	396
2016	25,694	2,329	2,841	3,643	3,975	4,411	4,173	2,526	1,355	439
2017	25,790	2,304	2,727	3,677	3,927	4,375	4,219	2,654	1,422	484
2018	25,881	2,265	2,639	3,703	3,876	4,333	4,245	2,803	1,491	527
(구성비)	(100.0)	(8.8)	(10.2)	(14.3)	(15.0)	(16.7)	(16.4)	(10.8)	(5.8)	(2.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12.

3-1. 혼인상태별 가구주

(단위 : 천가구, %)

	가 구	여 성 가 구 주	구성비	소 계	미 혼	유배우	사 별	이 혼	남 성 가 구 주
1990	11,244	1,764	15.7	100.0	20.4	17.8	56.3	5.5	9,480
2000	14,507	2,683	18.5	100.0	21.4	16.2	51.1	11.2	11,824
2001	14,775	2,855	19.3	100.0	22.1	17.0	49.1	11.9	11,920
2002	15,110	3,025	20.0	100.0	22.6	17.6	47.2	12.6	12,084
2003	15,434	3,193	20.7	100.0	23.0	18.2	45.6	13.2	12,240
2004	15,732	3,358	21.3	100.0	23.4	18.7	44.0	13.9	12,374
2005	16,039	3,523	22.0	100.0	23.6	19.2	42.7	14.5	12,515
2006	16,322	3,732	22.9	100.0	23.6	20.4	41.1	14.9	12,590
2007	16,602	3,934	23.7	100.0	23.6	21.6	39.6	15.3	12,668
2008	16,883	4,137	24.5	100.0	23.5	22.6	38.2	15.7	12,746
2009	17,168	4,343	25.3	100.0	23.5	23.5	37.0	16.1	12,824
2010	17,495	4,568	26.1	100.0	23.5	24.3	35.8	16.4	12,926
2011	17,879	4,790	26.8	100.0	23.5	24.8	34.9	16.8	13,089
2012	18,119	4,985	27.5	100.0	23.4	25.2	34.2	17.2	13,134
2013	18,388	5,182	28.2	100.0	23.4	25.5	33.5	17.6	13,207
2014	18,705	5,385	28.8	100.0	23.3	25.8	32.9	18.0	13,320
2015	19,013	5,586	29.4	100.0	23.2	26.0	32.4	18.4	13,427
2016	19,285	5,757	29.9	100.0	23.2	26.3	31.9	18.6	13,528
2017	19,524	5,916	30.3	100.0	23.4	26.5	31.3	18.9	13,608
2018	19,752	6,072	30.7	100.0	23.7	26.6	30.7	19.1	13,680
2019	19,971	6,224	31.2	100.0	23.9	26.7	30.1	19.3	13,748
2020	20,174	6,372	31.6	100.0	24.2	26.8	29.6	19.4	13,803
2025	21,014	7,014	33.4	100.0	25.2	27.0	27.4	20.4	14,000
2030	21,641	7,524	34.8	100.0	25.7	27.1	26.2	21.0	14,117
2035	22,067	7,934	36.0	100.0	26.4	26.9	25.6	21.2	14,133

자료 : 통계청,「장래가구추계」2017. 4.

3-2. 연령대별 미혼 여성 가구주

(단위 : 가구)

	미혼 여성 가구주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0	575,317	40,224	348,124	123,075	45,394	12,226	6,274
2001	630,198	40,385	373,802	143,653	51,473	13,780	7,105
2002	683,110	39,589	398,753	163,888	57,217	15,663	8,000
2003	735,233	38,576	423,999	183,087	63,065	17,661	8,845
2004	784,262	38,051	445,977	202,617	68,051	19,952	9,614
2005	831,089	38,756	467,264	219,236	72,384	23,066	10,383
2006	880,906	37,216	481,878	241,467	81,381	27,127	11,837
2007	927,226	36,651	493,439	262,182	90,183	31,144	13,627
2008	972,001	37,199	502,041	282,487	99,109	35,614	15,551
2009	1,019,182	38,770	510,179	302,796	109,285	40,590	17,562
2010	1,073,968	40,756	519,696	328,445	118,871	46,453	19,747
2011	1,124,772	40,475	513,792	353,182	138,101	55,316	23,906
2012	1,168,769	37,880	506,821	376,697	155,832	62,774	28,765
2013	1,211,306	35,925	504,838	393,858	171,789	70,851	34,045
2014	1,255,380	34,410	510,100	405,479	187,722	77,818	39,851
2015	1,297,566	33,235	520,186	413,152	199,120	84,533	47,340
2016	1,338,038	41,530	530,980	410,700	212,191	90,543	52,094
2017	1,385,162	40,370	550,975	415,068	224,776	96,879	57,094
2018	1,436,289	38,947	573,117	419,565	236,235	105,363	63,062

자료 : 통계청,「장래가구추계」2017. 4.

4-1. 성별 1인 가구

(단위 : 천가구, %, %p)

	총 1인 가구	여 성	구성비	남 성	구성비	차이[1] (여-남)
1990	1,021	603	59.1	418	40.9	18.2
1995	1,642	932	56.7	711	43.3	13.4
2000	2,224	1,304	58.6	921	41.4	17.2
2005	3,171	1,753	55.3	1,418	44.7	10.6
2010	4,142	2,218	53.5	1,924	46.5	7.0
2015	5,203	2,610	50.2	2,593	49.8	0.4
2016	5,398	2,722	50.4	2,676	49.6	0.8
2017[2]	5,562	2,766	49.7	2,797	50.3	-0.6
2018	5,739	2,843	49.5	2,896	50.5	-1.0
2019	5,907	2,914	49.3	2,994	50.7	-1.4
2020	6,068	2,982	49.1	3,086	50.9	-1.8
2025	6,701	3,234	48.3	3,466	51.7	-3.4
2035	7,635	3,650	47.8	3,985	52.2	-4.4
2045	8,098	3,882	47.9	4,216	52.1	-4.2

자료 : 통계청,「인구총조사」각년도,「장래가구추계」2017.4.
주 : 1) 구성비의 차이임
2) 2017년 이후는 장래가구추계 자료임

4-2. 연령대별 1인 가구

(단위 : 천가구, %)

	1인 가구	연령대별 구성비							
		계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 여 성 >					
2005	1,753	100.0	1.2	18.1	12.5	11.7	11.5	18.5	26.5
2010	2,218	100.0	1.1	16.0	12.7	11.1	13.4	16.2	29.4
2015	2,610	100.0	1.1	15.4	13.1	11.8	15.3	15.6	27.6
2016	2,722	100.0	1.2	15.6	12.5	11.4	15.2	16.4	27.7
2017[1)]	2,766	100.0	1.4	15.8	12.5	11.1	14.9	15.8	28.5
2018	2,843	100.0	1.3	16.0	12.1	10.8	14.6	15.9	29.3
2019	2,914	100.0	1.2	16.1	11.8	10.4	14.4	16.2	29.9
2020	2,982	100.0	1.1	16.2	11.4	10.1	14.0	16.6	30.6
2025	3,234	100.0	0.9	14.6	11.1	8.7	12.8	17.5	34.4
2035	3,650	100.0	0.8	11.7	9.1	6.3	9.4	14.7	47.9
2045	3,882	100.0	0.8	11.1	7.4	4.6	7.1	10.9	58.1
				< 남 성 >					
2005	1,418	100.0	1.6	25.5	28.9	19.0	11.6	7.5	5.9
2010	1,924	100.0	1.3	21.2	26.4	19.8	15.3	8.7	7.3
2015	2,593	100.0	1.1	18.7	23.5	20.9	18.4	10.1	7.3
2016	2,676	100.0	1.1	18.8	22.7	19.9	18.6	11.2	7.7
2017[1)]	2,797	100.0	1.3	18.8	22.0	20.5	18.7	11.1	7.6
2018	2,896	100.0	1.2	18.9	21.2	20.3	18.8	11.7	7.9
2019	2,994	100.0	1.2	18.9	20.5	19.9	19.1	12.3	8.1
2020	3,086	100.0	1.0	18.9	19.7	19.8	19.2	13.0	8.4
2025	3,466	100.0	0.8	16.4	18.2	18.8	19.9	15.9	10.0
2035	3,985	100.0	0.7	12.4	15.2	17.4	19.3	18.5	16.5
2045	4,216	100.0	0.7	11.6	11.9	16.4	19.2	18.7	21.5

자료 : 통계청,「인구총조사」각년도,「장래가구추계」2017.4
주 : 1) 2017년 이후는 장래가구추계 자료임

5. 혼인

(단위 : 세, 천건, %)

	평균 초혼연령		혼인 건수[1]	여성 연상		동갑		남성 연상	
	여성	남성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90	24.8	27.8	356.6	31.2	8.8	32.3	9.0	293.2	82.2
1991	24.8	27.9	372.2	32.0	8.6	33.5	9.0	306.7	82.4
1992	24.9	28.0	372.0	31.8	8.5	33.7	9.1	306.5	82.4
1993	25.0	28.1	353.2	29.9	8.5	33.4	9.4	289.8	82.1
1994	25.1	28.2	342.0	28.8	8.4	33.6	9.8	279.6	81.8
1995	25.3	28.4	341.6	29.7	8.7	35.3	10.3	276.6	81.0
1996	25.4	28.4	370.8	34.3	9.3	40.9	11.0	295.3	79.6
1997	25.7	28.6	330.2	31.2	9.4	38.5	11.7	260.1	78.8
1998	26.0	28.8	313.9	30.2	9.6	38.0	12.1	245.5	78.2
1999	26.3	29.1	296.6	29.8	10.1	36.7	12.4	230.0	77.5
2000	26.5	29.3	271.8	29.1	10.7	34.8	12.8	207.9	76.5
2001	26.8	29.5	252.9	28.6	11.3	34.6	13.7	189.8	75.0
2002	27.0	29.8	240.0	27.9	11.6	34.2	14.3	177.8	74.1
2003	27.3	30.1	233.9	27.4	11.7	34.4	14.7	172.0	73.6
2004	27.5	30.5	231.3	27.6	11.9	33.9	14.7	169.8	73.4
2005	27.7	30.9	232.0	28.2	12.1	35.0	15.1	168.9	72.8
2006	27.8	31.0	255.2	32.6	12.8	39.3	15.4	183.4	71.8
2007	28.1	31.1	265.5	34.5	13.0	41.4	15.6	189.6	71.4
2008	28.3	31.4	249.4	34.2	13.7	39.5	15.9	175.7	70.4
2009	28.7	31.6	236.7	33.8	14.3	38.1	16.1	164.8	69.6
2010	28.9	31.8	254.6	37.9	14.9	40.8	16.0	175.9	69.1
2011	29.1	31.9	258.6	39.5	15.3	42.3	16.4	176.8	68.4
2012	29.4	32.1	257.0	40.0	15.6	41.7	16.2	175.3	68.2
2013	29.6	32.2	255.6	41.3	16.2	41.4	16.2	172.8	67.6
2014	29.8	32.4	239.4	38.9	16.2	38.5	16.1	162.1	67.7
2015	30.0	32.6	238.3	38.9	16.3	38.2	16.0	161.1	67.6
2016	30.1	32.8	221.1	36.2	16.3	35.2	15.9	149.8	67.7
2017	30.2	32.9	206.1	34.8	16.9	32.8	15.9	138.5	67.2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각년도
주 : 1) 초혼부부의 혼인건수

6-1. 혼인지속 기간별 이혼건수

(단위 : 천건)

	이혼건수	혼인지속 기간별 이혼[1]				
		4년 이하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1990	45.7	18.1	13.3	8.3	3.6	2.4
1991	49.2	18.5	13.8	9.6	4.4	2.8
1992	53.5	19.4	14.6	11.0	5.1	3.3
1993	59.3	20.6	15.5	12.6	6.3	4.0
1994	65.0	21.9	16.5	13.9	7.5	4.7
1995	68.3	22.3	17.2	14.1	9.0	5.6
1996	79.9	25.7	19.7	15.7	11.0	7.1
1997	91.2	28.2	22.1	17.8	13.3	8.9
1998	116.3	34.2	27.1	22.4	18.1	14.4
1999	117.4	34.3	26.7	22.2	18.3	15.8
2000	119.5	35.0	26.6	22.4	18.3	17.0
2001	134.6	38.0	31.0	25.6	19.9	20.0
2002	144.9	39.0	33.7	28.2	21.4	22.7
2003	166.6	40.9	38.5	32.7	24.8	29.7
2004	138.9	35.0	31.8	26.3	20.5	25.4
2005	128.0	33.1	28.5	23.6	18.9	23.9
2006	124.5	33.0	27.3	22.4	18.0	23.8
2007	124.1	33.7	25.5	21.7	18.3	25.0
2008	116.5	33.1	21.7	18.3	16.5	26.9
2009	124.0	33.7	23.6	20.0	18.4	28.3
2010	116.9	31.5	22.0	18.6	16.9	27.8
2011	114.3	30.7	21.7	17.4	16.2	28.3
2012	114.3	28.2	21.5	17.7	16.6	30.2
2013	115.3	27.3	21.5	16.9	17.2	32.4
2014	115.5	27.2	22.0	16.3	17.0	33.1
2015	109.2	24.7	20.8	14.9	16.2	32.6
2016	107.3	24.6	20.6	14.7	14.9	32.6
2017	106.0	23.7	20.5	14.8	13.8	33.1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각년도
주 : 1) 법적인 결혼(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결혼생활 시작에서 이혼(별거)까지의 동거기간, 미상 제외

6-2. 이혼사유별 이혼건수

(단위 : 천건)

	이혼건수	이혼사유별 이혼						
		배우자 부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가족간 불화	경제 문제	성격 차이	건강 문제	기타[1]
2000	119.5	9.7	5.2	26.2	12.8	48.1	1.1	16.4
2001	134.6	11.8	6.3	23.7	15.6	58.0	1.0	18.2
2002	144.9	12.5	6.9	20.8	19.7	64.9	0.9	19.1
2003	166.6	12.3	7.1	21.7	27.3	75.6	1.0	21.5
2004	138.9	9.7	5.9	14.0	20.5	68.7	0.9	19.4
2005	128.0	9.7	5.7	12.2	19.1	63.0	0.8	17.5
2006	124.5	9.4	5.6	11.1	18.3	62.0	1.0	17.1
2007	124.1	9.7	6.0	10.0	16.9	58.2	0.9	22.4
2008	116.5	9.4	5.9	9.0	16.6	55.6	0.8	19.3
2009	124.0	10.4	6.2	9.2	17.9	57.8	0.7	21.8
2010	116.9	10.0	5.6	8.6	14.0	53.0	0.8	24.9
2011	114.3	9.2	5.3	8.1	14.0	51.3	0.8	25.5
2012	114.3	8.6	4.8	7.4	14.5	53.3	0.7	25.0
2013	115.3	8.7	4.8	8.0	14.5	53.9	0.7	24.7
2014	115.5	8.6	4.5	8.0	13.1	51.5	0.7	29.1
2015	109.2	8.0	4.2	8.0	12.1	50.4	0.6	25.8
2016	107.3	7.6	3.8	7.9	10.9	48.6	0.6	27.9
2017	106.0	7.5	3.8	7.5	10.7	45.7	0.6	30.1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각년도
주 : 1) 미상 포함

7-1.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 건, %)

	외국인과의 혼인	구성비[1]	외국여성+ 한국남성	한국여성+ 외국남성
1995	13,493	3.4	10,365	3,128
1996	15,947	3.7	12,647	3,300
1997	12,473	3.2	9,276	3,197
1998	11,592	3.1	7,744	3,848
1999	9,823	2.7	5,370	4,453
2000	11,605	3.5	6,945	4,660
2001	14,523	4.6	9,684	4,839
2002	15,202	5.0	10,698	4,504
2003	24,775	8.2	18,750	6,025
2004	34,640	11.2	25,105	9,535
2005	42,356	13.5	30,719	11,637
2006	38,759	11.7	29,665	9,094
2007	37,560	10.9	28,580	8,980
2008	36,204	11.0	28,163	8,041
2009	33,300	10.8	25,142	8,158
2010	34,235	10.5	26,274	7,961
2011	29,762	9.0	22,265	7,497
2012	28,325	8.7	20,637	7,688
2013	25,963	8.0	18,307	7,656
2014	23,316	7.6	16,152	7,164
2015	21,274	7.0	14,677	6,597
2016	20,591	7.3	14,822	5,769
2017	20,835	7.9	14,869	5,966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각년도
주 : 1) 총 혼인건수에 대한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구성비

7-2. 외국인과의 이혼

(단위 : 건, %)

	외국인과의 이혼	구성비[1]	외국여성+ 한국남성	한국여성+ 외국남성
1995	1,700	2.5	154	1,546
1996	1,649	2.1	140	1,509
1997	1,519	1.7	179	1,340
1998	1,356	1.2	141	1,215
1999	1,402	1.2	198	1,204
2000	1,498	1.3	247	1,251
2001	1,694	1.3	387	1,307
2002	1,744	1.2	380	1,364
2003	2,012	1.2	547	1,465
2004	3,300	2.4	1,567	1,733
2005	4,171	3.3	2,382	1,789
2006	6,136	4.9	3,933	2,203
2007	8,294	6.7	5,609	2,685
2008	10,980	9.4	7,901	3,079
2009	11,473	9.3	8,246	3,227
2010	11,088	9.5	7,852	3,236
2011	11,495	10.1	8,349	3,146
2012	10,887	9.5	7,878	3,009
2013	10,480	9.1	7,588	2,892
2014	9,754	8.4	6,998	2,756
2015	8,237	7.5	5,743	2,494
2016	7,665	7.1	5,610	2,055
2017	7,130	6.7	5,206	1,924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각년도
주 : 1) 총 이혼건수에 대한 외국인과의 이혼건수 구성비

7-3.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국적별 혼인

(단위 : 건, %)

	한국여성+외국남성 혼인건수	외국 남성의 국적별 혼인 구성비						
		소계	중국	미국	베트남	캐나다	일본	기타
1995	3,128	100.0	6.6	28.5	-	-	56.0	8.9
1996	3,300	100.0	5.8	29.3	-	-	54.2	10.7
1997	3,197	100.0	4.7	28.3	-	-	52.5	14.4
1998	3,848	100.0	13.9	24.0	-	5.8	40.1	16.1
1999	4,453	100.0	5.1	26.2	-	3.5	53.1	12.1
2000	4,660	100.0	4.5	23.3	0.1	3.2	56.4	12.5
2001	4,839	100.0	4.6	23.0	0.1	3.4	55.1	13.9
2002	4,504	100.0	5.8	26.7	0.2	3.8	45.1	18.3
2003	6,025	100.0	19.8	20.3	0.2	3.6	37.3	18.8
2004	9,535	100.0	37.9	14.0	0.1	2.4	32.7	12.9
2005	11,637	100.0	43.3	12.0	0.2	2.4	29.4	12.7
2006	9,094	100.0	28.5	15.9	0.5	3.4	37.5	14.3
2007	8,980	100.0	27.7	14.9	0.7	4.2	37.3	15.3
2008	8,041	100.0	26.1	16.8	0.8	4.6	34.1	17.6
2009	8,158	100.0	32.1	16.1	0.6	4.1	29.7	17.5
2010	7,961	100.0	28.8	19.0	0.8	5.1	26.3	20.0
2011	7,497	100.0	24.9	21.8	1.2	6.0	22.8	23.3
2012	7,688	100.0	26.0	20.7	2.3	6.6	20.6	23.8
2013	7,656	100.0	22.6	22.9	3.6	6.2	17.8	26.8
2014	7,164	100.0	22.0	24.4	4.0	6.7	16.4	26.5
2015	6,597	100.0	21.7	24.4	6.5	7.0	12.2	28.0
2016	5,769	100.0	25.4	23.9	9.8	6.9	6.6	27.5
2017	5,966	100.0	25.5	23.3	9.8	7.3	5.2	28.8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각년도

8. 출생아 수 및 출생성비

(단위 : 천명, 명)

	총출생아	여 아	남 아	출생성비[1]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1990	649.7	300.1	349.6	116.5	108.5	117.1	193.3
1991	709.3	334.0	375.3	112.4	105.7	112.5	182.5
1992	730.7	342.1	388.6	113.6	106.2	112.4	195.0
1993	715.8	332.5	383.4	115.3	106.4	114.8	207.3
1994	721.2	335.1	386.1	115.2	106.0	114.1	205.4
1995	715.0	335.4	379.6	113.2	105.7	111.7	180.1
1996	691.2	326.8	364.4	111.5	105.1	109.8	166.0
1997	668.3	320.9	347.5	108.3	105.2	106.3	136.1
1998	634.8	302.0	332.8	110.2	106.0	108.1	146.0
1999	614.2	293.0	321.2	109.6	105.6	107.5	143.3
2000	634.5	301.9	332.6	110.2	106.3	107.4	144.2
2001	554.9	265.4	289.5	109.1	105.5	106.4	141.5
2002	492.1	234.3	257.8	110.0	106.5	107.3	141.4
2003	490.5	235.0	255.5	108.7	104.9	107.0	136.9
2004	472.8	227.1	245.7	108.2	105.1	106.2	133.0
2005	435.0	209.3	225.7	107.8	104.8	106.5	128.5
2006	448.2	216.0	232.2	107.5	105.7	106.0	121.9
2007	493.2	239.2	254.0	106.2	104.5	106.0	115.7
2008	465.9	225.8	240.1	106.4	104.9	105.6	116.7
2009	444.8	215.5	229.4	106.4	105.1	105.8	114.3
2010	470.2	227.3	242.9	106.9	106.4	105.8	110.9
2011	471.3	229.1	242.1	105.7	105.0	105.3	109.5
2012	484.6	235.6	249.0	105.7	105.3	104.9	109.2
2013	436.5	212.6	223.9	105.3	105.4	104.5	108.0
2014	435.4	212.1	223.4	105.3	105.6	104.6	106.7
2015	438.4	213.5	224.9	105.3	105.9	104.5	105.6
2016	406.2	198.2	208.1	105.0	104.4	105.2	107.4
2017[P]	357.7	173.4	184.2	106.2	106.5	106.1	106.5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 각년도, 「2017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18. 2.
주 : 1) 출생시 여아 100명 당 남아 수

9. 가족 관계 만족도

(단위 : %)

	계	전반적인 가족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	매우	약간	보통	불만족	약간	매우	만족	매우	약간	보통	불만족	약간	매우
							< 여 성 >								
2010[1)]	100.0	53.1	17.7	35.4	42.3	4.6	4.0	0.6	59.6	23.4	36.3	30.0	10.4	7.8	2.6
2012	100.0	54.2	19.0	35.2	41.0	4.8	4.0	0.8	59.2	24.0	35.2	29.4	11.4	8.0	3.4
2014	100.0	53.9	18.9	34.9	41.5	4.7	3.9	0.8	59.8	23.6	36.2	29.6	10.6	7.2	3.4
2016	100.0	54.7	18.8	35.9	41.0	4.4	3.6	0.8	58.5	23.3	35.2	31.2	10.4	6.9	3.4
							< 남 성 >								
2010[1)]	100.0	56.6	20.4	36.2	39.6	3.8	3.3	0.5	69.9	33.8	36.1	25.6	4.5	3.6	0.9
2012	100.0	58.2	22.7	35.5	37.9	3.9	3.2	0.7	71.8	36.9	34.9	23.7	4.4	3.2	1.2
2014	100.0	56.6	21.6	35.0	39.6	3.9	3.1	0.8	70.6	34.6	35.9	24.9	4.5	3.4	1.2
2016	100.0	58.3	22.1	36.1	37.9	3.8	3.0	0.7	71.3	34.8	36.5	24.5	4.2	2.9	1.2

	계	자기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	매우	약간	보통	불만족	약간	매우	만족	매우	약간	보통	불만족	약간	매우
							< 여 성 >								
2010[1)]	100.0	63.5	25.9	37.6	31.2	5.3	4.3	1.0	45.5	15.8	29.8	41.2	13.2	9.3	3.9
2012	100.0	64.2	28.1	36.1	30.1	5.7	4.5	1.2	44.1	15.3	28.7	41.7	14.2	9.8	4.4
2014	100.0	63.9	27.1	36.8	30.9	5.2	4.0	1.2	43.4	14.7	28.7	42.6	14.0	9.5	4.5
2016	100.0	64.4	27.1	37.3	30.5	5.1	4.0	1.1	46.7	15.6	31.1	40.4	12.9	8.6	4.2
							< 남 성 >								
2010[1)]	100.0	62.9	26.3	36.7	31.9	5.2	4.3	0.9	56.1	22.9	33.3	38.6	5.3	4.3	1.0
2012	100.0	63.9	28.9	35.0	31.1	5.1	4.0	1.0	57.4	24.6	32.9	37.8	4.8	3.8	1.0
2014	100.0	63.1	28.0	35.1	32.1	4.9	3.7	1.1	53.4	22.2	31.2	41.4	5.2	4.0	1.2
2016	100.0	63.4	28.5	34.9	31.8	4.8	3.6	1.1	57.4	23.9	33.5	37.9	4.7	3.6	1.0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주 : 1) 2010년은 조사대상이 15세 이상 인구임

10-1. 성별 기대수명(출생 시 기대여명)

(단위 : 년)

	전 체	여 성	남 성	차 이 (여-남)
1970	62.3	65.8	58.7	7.1
1980	66.1	70.4	61.9	8.5
1990	71.7	75.9	67.5	8.4
1991	72.2	76.4	67.9	8.5
1992	72.6	76.8	68.4	8.4
1993	73.1	77.3	68.9	8.4
1994	73.5	77.7	69.3	8.4
1995	73.8	77.9	69.7	8.2
1996	74.2	78.3	70.2	8.1
1997	74.7	78.7	70.7	8.0
1998	75.1	79.0	71.2	7.8
1999	75.5	79.2	71.8	7.4
2000	76.0	79.7	72.3	7.4
2001	76.5	80.1	72.9	7.2
2002	76.8	80.3	73.4	6.9
2003	77.3	80.8	73.8	7.0
2004	77.8	81.2	74.3	6.9
2005	78.2	81.6	74.9	6.7
2006	78.8	82.1	75.4	6.7
2007	79.2	82.5	75.9	6.6
2008	79.6	83.0	76.2	6.8
2009	80.0	83.4	76.7	6.7
2010	80.2	83.6	76.8	6.8
2011	80.6	84.0	77.3	6.7
2012	80.9	84.2	77.6	6.6
2013	81.4	84.6	78.1	6.5
2014	81.8	85.0	78.6	6.4
2015	82.1	85.2	79.0	6.2
2016	82.4	85.4	79.3	6.1

자료 : 통계청,「생명표」각년도

10-2.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단위 : 년)

	기대여명[1]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유병기간 제외[2]			주관적 건강평가[3]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 2012 >					
0세	80.9	84.2	77.6	65.7	66.5	65.0	66.1	65.8	66.6
				< 2014 >					
0세	81.8	85.0	78.6	65.2	65.7	64.7	67.5	67.5	67.7
				< 2016 >					
0세	82.4	85.4	79.3	64.9	65.2	64.7	68.5	68.4	68.8
10세	72.7	75.7	69.6	56.0	56.3	55.8	58.8	58.6	59.1
20세	62.8	65.8	59.8	46.4	46.7	46.2	49.1	48.9	49.4
30세	53.0	55.9	50.0	37.0	37.2	36.8	39.8	39.7	40.1
40세	43.3	46.2	40.4	27.7	28.0	27.5	30.7	30.4	31.1
50세	33.9	36.6	31.1	18.9	19.1	18.8	22.0	21.7	22.4
60세	24.9	27.2	22.5	11.4	11.5	11.5	14.2	13.9	14.7
70세	16.4	18.1	14.5	6.1	6.1	6.2	7.8	7.5	8.2
80세	9.3	10.2	8.1	3.1	3.3	2.9	3.7	3.6	3.9
85세 이상	6.6	7.1	5.8	2.3	2.6	2.0	2.4	2.4	2.4

자료 : 통계청,「생명표」2016

주 : 1) 특정 연령(x세)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

2) 실제 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고통 받는 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

3) 전체 기대여명 중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평가하는 기간

11-1. 사망률

(단위 : 인구 10만 명당 명)

	전체	여 성	남 성	사망률 성비[1)]
1990	563.6	483.0	643.2	1.33
1991	559.6	483.5	634.7	1.31
1992	539.8	469.0	609.8	1.30
1993	523.5	454.1	592.2	1.30
1994	536.3	465.6	606.3	1.30
1995	532.1	465.8	597.8	1.28
1996	523.5	457.3	589.1	1.29
1997	520.6	458.0	582.6	1.27
1998	519.2	457.4	580.5	1.27
1999	520.2	464.0	576.0	1.24
2000	517.9	463.3	571.9	1.23
2001	504.5	450.7	557.8	1.24
2002	509.7	461.2	557.9	1.21
2003	506.1	455.4	556.6	1.22
2004	503.7	451.0	556.1	1.23
2005	501.0	451.1	550.5	1.22
2006	495.6	445.2	545.7	1.23
2007	498.4	448.7	547.9	1.22
2008	498.2	443.0	553.1	1.25
2009	497.3	440.7	553.7	1.26
2010	512.0	454.0	570.0	1.26
2011	513.6	456.0	571.1	1.25
2012	530.8	476.4	585.1	1.23
2013	526.6	473.4	579.8	1.22
2014	527.3	474.1	580.6	1.22
2015	541.5	492.1	591.0	1.20
2016	549.4	501.5	597.5	1.19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주 : 1) 사망률 성비 = 남성 사망률 / 여성 사망률

11-2. 성별 사망원인 순위

(단위 : 인구 10만 명당 명)

	여 성		남 성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률
1위	악성신생물(암)	117.2	악성신생물(암)	188.8
2위	심장질환	59.4	심장질환	56.9
3위	뇌혈관 질환	47.4	뇌혈관 질환	44.2
4위	폐렴	30.8	고의적 자해(자살)	36.2
5위	당뇨병	19.2	폐렴	33.6
6위	고의적 자해(자살)	15.0	간 질환	20.2
7위	고혈압성 질환	14.6	당뇨병	19.2
8위	알츠하이머병	13.4	만성 하기도 질환	17.1
9위	만성 하기도 질환	10.3	운수사고	14.7
10위	패혈증	8.1	추락	7.5

자료 : 통계청,「사망원인통계」2016

12. 흡연 및 음주

(단위 : %, %p)

	현재 흡연율[1]				고위험 음주율[2]			
	전체	여성	남성	차이 (여-남)	전체	여성	남성	차이 (여-남)
2005	28.8	5.7	52.3	-46.6	11.6	3.3	20.0	-16.7
2007	25.0	5.3	45.1	-39.8	12.3	3.3	21.6	-18.3
2008	27.3	7.3	47.7	-40.4	15.2	5.8	24.9	-19.1
2009	26.6	6.9	46.7	-39.8	13.2	5.0	21.5	-16.5
2010	26.9	6.1	48.1	-42.0	13.5	5.1	22.1	-17.0
2011	26.3	6.5	46.8	-40.3	13.6	4.4	23.1	-18.7
2012	25.0	7.4	43.3	-35.9	13.4	5.3	21.9	-16.6
2013	23.2	5.7	41.4	-35.7	11.9	4.8	19.4	-14.6
2014	23.3	5.1	42.3	-37.2	13.1	5.9	20.6	-14.7
2015	21.6	5.3	38.3	-33.0	12.7	5.1	20.5	-15.4
2016	22.6	6.1	39.4	-33.3	13.2	5.4	21.2	-15.8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16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만19세 이상

주 : 1)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

2) 1회 평균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

13. 스트레스 및 우울감

(단위 : %, %p)

	스트레스 인지율[1]				우울감 경험률[2]			
	전체	여성	남성	차이 (여-남)	전체	여성	남성	차이 (여-남)
2005	35.1	35.2	35.0	0.2	15.4	19.4	11.3	8.1
2007	27.1	30.3	23.7	6.6	12.7	17.1	8.1	9.0
2008	28.9	31.0	26.8	4.2	14.5	18.9	10.1	8.8
2009	31.0	33.3	28.6	4.7	15.0	19.8	10.1	9.7
2010	28.2	31.4	25.1	6.3	12.8	17.4	8.1	9.3
2011	27.9	30.4	25.4	5.0	13.4	16.5	10.2	6.3
2012	27.0	30.3	23.5	6.8	12.9	16.5	9.1	7.4
2013	23.8	25.7	21.8	3.9	10.7	14.4	6.8	7.6
2014	25.5	27.2	23.6	3.6	-	-	-	-
2015	29.6	30.5	28.6	1.9	13.3	16.8	9.7	7.1
2016	27.9	28.8	27.0	1.8	-	-	-	-

자료 : 질병관리본부,「2016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각년도, 만19세 이상

주 : 1)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분율

2)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분율
2014년부터 2년 주기 순환조사로 실시

14. 주관적 건강인지율[1)]

(단위 : %, %p)

	전체	여성	남성	차이(여-남)
2005	46.8	40.8	52.9	-12.1
2007	32.2	28.3	36.1	-7.8
2008	42.4	38.0	46.9	-8.9
2009	43.4	39.2	47.6	-8.4
2010	36.0	32.1	40.0	-7.9
2011	35.3	32.4	38.4	-6.0
2012	32.0	27.1	37.0	-9.9
2013	33.5	29.9	37.2	-7.3
2014	31.3	27.4	35.4	-8.0
2015	31.1	26.8	35.6	-8.8
2016	31.0	27.7	34.4	-6.7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16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만19세 이상
주 : 1)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

15. 고용동향

(단위 : %, %p)

	고용률[1]				실업률[2]			
	전체	여성	남성	차이 (남-여)	전체	여성	남성	차이 (남-여)
2000	58.5	47.0	70.8	23.8	4.4	3.6	5.0	1.4
2001	59.0	47.7	71.1	23.4	4.0	3.3	4.5	1.2
2002	60.1	48.5	72.3	23.8	3.3	2.7	3.6	0.9
2003	59.4	47.4	72.1	24.7	3.6	3.3	3.8	0.5
2004	60.0	48.5	72.3	23.8	3.7	3.4	3.9	0.5
2005	59.9	48.6	71.9	23.3	3.7	3.4	4.0	0.6
2006	60.0	49.0	71.6	22.6	3.5	3.0	3.9	0.9
2007	60.1	49.1	71.7	22.6	3.2	2.7	3.7	1.0
2008	59.8	48.9	71.2	22.3	3.2	2.6	3.6	1.0
2009	58.8	47.8	70.2	22.4	3.6	3.0	4.1	1.1
2010	58.9	47.9	70.3	22.4	3.7	3.3	4.0	0.7
2011	59.3	48.3	70.7	22.4	3.4	3.1	3.6	0.5
2012	59.6	48.6	71.1	22.5	3.2	3.0	3.4	0.4
2013	59.8	48.9	71.1	22.2	3.1	2.8	3.3	0.5
2014	60.5	49.7	71.7	22.0	3.5	3.5	3.5	0.0
2015	60.5	50.1	71.4	21.3	3.6	3.5	3.6	0.1
2016	60.6	50.3	71.2	20.9	3.7	3.6	3.8	0.2
2017	60.8	50.8	71.2	20.4	3.7	3.5	3.8	0.3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주 : 1)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2)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16. 연령대별 고용률

(단위 : %)

	전체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 여 성 >						
2000	47.0	10.8	56.3	53.7	47.3	57.8	62.0	63.3	54.2	50.4	45.5	22.6
2001	47.7	11.0	57.1	55.2	47.9	58.5	62.1	63.3	55.4	50.3	45.3	22.7
2002	48.5	10.5	58.3	57.5	48.6	58.3	62.9	63.3	57.2	49.3	46.0	22.8
2003	47.4	10.0	56.6	58.2	48.4	56.8	62.9	60.4	54.9	48.3	42.4	21.3
2004	48.5	9.6	57.3	61.4	48.9	57.4	64.2	61.4	55.7	49.0	43.7	22.1
2005	48.6	9.0	57.2	63.1	48.6	57.3	64.1	61.7	57.5	48.4	42.9	22.3
2006	49.0	7.9	54.0	64.5	51.7	58.4	64.3	63.4	57.6	49.4	43.0	22.6
2007	49.1	7.3	52.7	65.5	52.2	57.4	65.2	64.2	58.4	50.1	42.9	23.4
2008	48.9	6.9	50.2	66.4	51.9	57.4	64.7	64.7	59.4	52.0	41.6	23.0
2009	47.8	6.7	48.5	65.7	50.3	54.9	64.0	64.1	59.7	51.1	41.2	22.3
2010	47.9	7.7	48.8	66.1	53.0	54.4	64.1	64.2	60.1	52.4	40.4	21.4
2011	48.3	8.1	48.2	67.6	53.3	54.2	64.2	65.6	61.2	53.3	41.5	21.5
2012	48.6	8.3	48.9	67.9	54.9	54.3	62.9	66.4	61.5	54.0	43.3	22.5
2013	48.9	7.9	47.5	67.9	56.7	54.4	62.6	66.7	63.1	55.3	44.6	22.9
2014	49.7	8.6	49.4	68.6	57.6	55.0	62.3	68.0	64.7	56.6	45.8	23.4
2015	50.1	8.8	50.8	68.5	59.6	54.2	62.9	68.6	66.0	57.3	47.5	22.7
2016	50.3	8.8	50.5	69.3	59.9	56.5	62.9	68.5	65.9	57.6	48.1	23.0
2017	50.8	9.3	49.7	69.6	61.0	58.1	61.8	69.7	66.3	59.6	48.4	23.5
						< 남 성 >						
2000	70.8	9.8	46.3	78.3	91.2	92.3	91.2	88.7	86.1	74.6	61.6	40.2
2001	71.1	9.1	45.0	77.9	91.2	92.1	91.0	89.6	85.1	75.4	63.4	40.9
2002	72.3	8.3	47.4	77.8	91.2	92.9	91.8	91.2	86.4	78.4	65.2	42.4
2003	72.1	7.2	45.7	76.5	91.4	92.8	92.7	90.8	87.7	78.1	62.5	39.7
2004	72.3	7.4	46.5	75.6	90.6	92.5	92.6	90.4	87.5	78.4	64.1	41.4
2005	71.9	7.0	44.1	74.8	89.8	92.3	92.1	90.0	86.7	78.3	64.9	41.0
2006	71.6	5.6	42.9	72.6	89.0	92.2	92.1	90.6	87.6	77.6	66.5	41.7
2007	71.7	5.9	42.2	71.3	88.5	91.9	92.3	91.0	87.5	80.5	67.5	42.7
2008	71.2	4.9	39.0	70.7	88.7	91.6	92.4	91.2	88.2	80.0	67.1	41.7
2009	70.2	4.2	39.0	69.4	87.8	90.1	91.6	90.2	87.3	80.2	67.0	41.2
2010	70.3	4.7	38.4	69.9	87.4	91.2	91.5	90.9	88.0	80.9	67.5	39.9
2011	70.7	5.5	37.3	71.6	87.9	91.6	92.2	91.0	88.2	81.7	69.7	39.9
2012	71.1	5.7	39.1	70.5	88.9	91.6	92.2	91.3	89.4	82.5	69.9	40.7
2013	71.1	5.9	38.2	69.6	88.4	92.1	92.1	91.9	89.5	83.4	70.8	41.7
2014	71.7	6.8	39.4	69.4	89.8	92.1	93.3	92.1	89.6	85.1	71.7	41.9
2015	71.4	6.9	40.8	69.3	90.0	91.8	92.5	91.8	89.6	84.0	72.1	40.9
2016	71.2	7.2	40.7	69.7	88.3	91.9	92.9	92.0	89.3	84.4	71.7	40.9
2017	71.2	7.6	39.9	67.9	87.3	92.7	92.7	92.4	89.7	85.7	73.3	40.2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17. 교육정도별 취업자

(단위 : %)

	전체	초졸 이하	중 졸	고 졸	대졸 이상
			< 여 성 >		
2000	100.0	24.8	16.3	39.7	19.2
2001	100.0	23.7	15.6	40.4	20.3
2002	100.0	22.4	15.1	40.9	21.6
2003	100.0	20.5	13.6	41.0	24.8
2004	100.0	19.6	13.2	41.1	26.0
2005	100.0	18.7	12.8	40.7	27.7
2006	100.0	18.0	12.3	40.1	29.7
2007	100.0	17.4	11.5	40.1	30.9
2008	100.0	16.7	11.5	39.4	32.4
2009	100.0	16.2	11.2	39.0	33.6
2010	100.0	15.3	11.1	39.1	34.5
2011	100.0	14.8	11.0	39.0	35.2
2012	100.0	14.2	11.0	38.1	36.7
2013	100.0	13.4	10.6	37.8	38.2
2014	100.0	12.4	10.0	38.4	39.2
2015	100.0	11.6	9.7	38.8	39.9
2016	100.0	10.8	9.3	38.8	41.1
2017	100.0	10.3	9.1	38.5	42.1
			< 남 성 >		
2000	100.0	11.5	13.0	47.2	28.4
2001	100.0	11.1	12.4	47.3	29.2
2002	100.0	10.7	12.2	47.1	30.0
2003	100.0	10.1	11.1	44.9	34.0
2004	100.0	9.6	10.9	44.7	34.8
2005	100.0	9.0	10.4	44.7	35.9
2006	100.0	8.7	10.4	44.1	36.9
2007	100.0	8.5	9.9	43.2	38.4
2008	100.0	8.4	9.2	42.2	40.1
2009	100.0	8.1	8.9	41.4	41.6
2010	100.0	7.6	8.9	41.4	42.1
2011	100.0	7.1	8.9	40.6	43.4
2012	100.0	6.8	8.4	40.6	44.2
2013	100.0	6.5	8.0	40.4	45.1
2014	100.0	6.1	7.6	40.5	45.8
2015	100.0	5.7	7.5	40.3	46.6
2016	100.0	5.3	7.4	39.9	47.3
2017	100.0	5.1	7.3	39.6	48.0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18. 직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 여	성 >				
2005	100.0	0.5	16.6	16.7	18.5	16.7	8.0	3.9	3.8	15.4
2006	100.0	0.5	17.8	16.8	18.2	16.3	7.6	3.7	3.7	15.6
2007	100.0	0.5	18.3	16.8	17.9	16.1	7.4	3.6	3.5	15.9
2008	100.0	0.5	19.3	17.2	18.1	15.5	6.9	3.6	3.3	15.5
2009	100.0	0.5	20.2	17.2	17.1	15.6	6.5	3.3	3.1	16.6
2010	100.0	0.5	20.4	17.9	16.3	15.5	5.9	3.3	3.3	16.8
2011	100.0	0.5	20.8	18.5	16.2	14.7	5.8	3.3	3.3	16.8
2012	100.0	0.5	21.1	18.8	16.3	14.7	5.6	3.2	3.5	16.3
2013	100.0	0.4	21.9	18.7	16.1	14.5	5.4	2.9	3.7	16.2
2014	100.0	0.4	22.4	19.0	16.2	14.7	5.0	2.7	3.8	15.9
2015	100.0	0.3	22.8	18.8	16.5	14.5	4.4	2.8	3.7	16.1
2016	100.0	0.3	22.9	19.4	16.8	14.1	4.1	2.9	3.6	16.0
2017	100.0	0.3	23.5	19.4	16.8	13.9	3.9	2.9	3.5	15.8
					< 남	성 >				
2005	100.0	4.1	15.2	13.5	6.4	11.5	7.1	14.9	17.1	10.1
2006	100.0	4.0	15.9	13.2	6.3	11.4	6.9	15.1	17.0	10.2
2007	100.0	4.0	16.7	12.9	6.1	11.2	6.5	14.8	17.0	10.8
2008	100.0	3.6	18.1	13.2	6.3	10.8	6.4	14.4	16.5	10.7
2009	100.0	3.6	17.9	14.0	6.2	10.7	6.5	13.6	16.6	11.0
2010	100.0	3.7	18.2	14.2	5.9	10.0	6.2	13.8	17.0	11.1
2011	100.0	3.3	18.2	15.0	5.9	10.0	5.9	13.5	17.3	11.0
2012	100.0	2.9	18.2	15.1	6.0	10.4	5.8	13.6	17.4	10.5
2013	100.0	2.5	18.3	15.5	6.1	10.4	5.7	13.2	17.9	10.4
2014	100.0	2.4	18.3	15.3	6.5	10.3	5.4	13.3	17.9	10.6
2015	100.0	2.1	18.0	15.6	6.3	10.0	5.0	13.6	18.3	11.1
2016	100.0	2.0	18.3	15.6	6.3	10.1	4.8	13.6	18.4	11.0
2017	100.0	1.8	18.3	15.9	6.4	9.8	4.9	13.4	18.1	1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주 : 한국표준직업분류 6차 개정(2007년) 기준

19.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단위 : %)

	전 체	임 금 근로자	상 용	임 시	일 용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 사 자
				< 여 성 >				
2000	100.0	61.5	19.2	28.4	13.9	38.5	19.2	19.3
2001	100.0	62.3	20.7	28.7	12.9	37.7	19.5	18.2
2002	100.0	63.5	21.4	29.0	13.1	36.5	19.3	17.2
2003	100.0	65.6	23.2	31.0	11.4	34.4	17.7	16.7
2004	100.0	66.5	24.4	30.5	11.5	33.5	18.6	15.0
2005	100.0	67.2	25.7	30.2	11.3	32.8	18.9	13.9
2006	100.0	67.9	27.1	30.0	10.7	32.1	18.7	13.4
2007	100.0	68.9	28.9	29.9	10.1	31.1	18.4	12.6
2008	100.0	69.6	30.0	29.8	9.9	30.4	17.9	12.4
2009	100.0	71.2	31.3	30.6	9.3	28.8	16.9	11.9
2010	100.0	72.9	34.5	30.0	8.4	27.1	16.2	10.9
2011	100.0	73.5	37.0	28.7	7.9	26.5	15.7	10.8
2012	100.0	74.0	38.7	28.3	7.0	26.0	15.5	10.5
2013	100.0	74.7	40.6	27.5	6.5	25.3	15.2	10.1
2014	100.0	75.4	42.0	27.4	6.0	24.6	14.8	9.8
2015	100.0	76.4	43.1	27.6	5.8	23.6	14.5	9.1
2016	100.0	77.2	44.6	27.5	5.1	22.8	14.1	8.7
2017	100.0	77.2	45.7	26.4	5.0	22.8	14.4	8.4
				< 남 성 >				
2000	100.0	64.2	38.0	17.0	9.2	35.8	33.8	2.0
2001	100.0	63.8	38.5	16.9	8.4	36.2	34.3	1.9
2002	100.0	64.2	37.8	17.0	9.5	35.8	34.1	1.7
2003	100.0	64.6	39.6	16.7	8.4	35.4	34.0	1.4
2004	100.0	65.4	40.3	16.7	8.4	34.6	33.2	1.3
2005	100.0	66.0	41.1	16.4	8.5	34.0	32.6	1.3
2006	100.0	66.9	41.6	16.7	8.6	33.1	31.8	1.3
2007	100.0	67.9	42.8	16.4	8.6	32.1	30.9	1.3
2008	100.0	68.2	44.3	15.6	8.3	31.8	30.5	1.3
2009	100.0	69.2	46.2	15.3	7.6	30.8	29.5	1.3
2010	100.0	70.0	48.0	15.0	7.0	30.0	28.7	1.3
2011	100.0	70.5	49.0	14.8	6.7	29.5	28.3	1.2
2012	100.0	70.2	49.6	14.4	6.3	29.8	28.6	1.2
2013	100.0	71.1	51.3	13.6	6.2	28.9	27.8	1.1
2014	100.0	71.6	51.6	14.0	6.1	28.4	27.3	1.0
2015	100.0	72.5	52.6	13.7	6.2	27.5	26.6	1.0
2016	100.0	72.5	53.0	13.5	6.0	27.5	26.5	1.0
2017	100.0	72.7	53.6	12.9	6.2	27.3	26.3	1.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20-1. 근로형태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임 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구성비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 여 성 >			
2003	5,883	3,556	2,327	39.6	1,437	690	853
2004	6,103	3,436	2,668	43.7	1,690	792	977
2005	6,282	3,540	2,741	43.6	1,751	730	935
2006	6,467	3,713	2,755	42.6	1,722	786	1,009
2007	6,680	3,876	2,804	42.0	1,637	840	1,065
2008	6,793	4,027	2,766	40.7	1,604	858	1,023
2009	7,020	3,928	3,092	44.0	1,838	1,061	1,131
2010	7,320	4,264	3,055	41.7	1,716	1,198	1,081
2011	7,547	4,313	3,234	42.9	1,814	1,237	1,185
2012	7,663	4,488	3,175	41.4	1,747	1,323	1,092
2013	7,887	4,686	3,201	40.6	1,793	1,360	1,042
2014	8,196	4,925	3,271	39.9	1,789	1,450	1,006
2015	8,468	5,063	3,405	40.2	1,895	1,553	1,079
2016	8,658	5,096	3,562	41.1	1,958	1,780	1,060
2017	8,818	5,186	3,632	41.2	1,996	1,902	954
				< 남 성 >			
2003	8,312	6,016	2,295	27.6	1,590	239	828
2004	8,515	5,775	2,739	32.2	1,922	277	970
2005	8,667	5,939	2,727	31.5	1,861	307	960
2006	8,953	6,243	2,710	30.3	1,927	341	909
2007	9,326	6,398	2,928	31.4	1,943	359	1,140
2008	9,464	6,743	2,722	28.8	1,719	373	1,124
2009	9,588	6,898	2,690	28.1	1,690	367	1,157
2010	9,870	7,210	2,659	26.9	1,582	425	1,219
2011	10,168	7,349	2,819	27.7	1,660	470	1,267
2012	10,278	7,500	2,779	27.0	1,679	505	1,212
2013	10,517	7,740	2,776	26.4	1,653	523	1,192
2014	10,796	7,944	2,852	26.4	1,740	584	1,131
2015	11,007	8,103	2,903	26.4	1,760	684	1,150
2016	11,086	8,166	2,919	26.3	1,713	707	1,185
2017	11,188	8,242	2,946	26.3	1,729	761	1,157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각년도 8월

20-2. 연령대별 비정규직 근로자 구성비

(단위 : 천명, %)

	비정규직	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 여 성 >				
2003	2,327	100.0	4.2	26.0	24.2	23.2	13.1	9.3
2004	2,668	100.0	3.0	25.6	24.6	25.1	12.6	9.1
2005	2,741	100.0	2.9	25.0	22.8	25.9	14.1	9.3
2006	2,755	100.0	2.9	22.8	24.0	26.1	14.6	9.6
2007	2,804	100.0	3.0	21.7	22.8	26.6	15.8	10.2
2008	2,766	100.0	2.6	21.5	21.3	27.0	16.8	10.7
2009	3,092	100.0	2.8	19.4	19.7	27.3	17.5	13.5
2010	3,055	100.0	2.9	19.5	18.7	26.4	18.7	13.9
2011	3,234	100.0	2.8	18.3	18.6	26.3	20.1	13.9
2012	3,175	100.0	3.5	17.8	17.0	25.8	20.7	15.3
2013	3,201	100.0	3.2	17.2	16.7	24.5	22.2	16.3
2014	3,271	100.0	3.4	17.4	16.1	23.6	21.6	17.9
2015	3,405	100.0	3.3	16.9	15.9	22.6	22.0	19.5
2016	3,562	100.0	3.1	16.5	14.9	21.9	22.6	21.1
2017	3,632	100.0	2.8	17.0	14.5	21.2	22.7	21.8
				< 남 성 >				
2003	2,295	100.0	3.1	23.4	25.3	22.7	15.2	10.3
2004	2,739	100.0	2.3	22.2	28.8	22.6	14.5	9.6
2005	2,727	100.0	3.2	20.9	27.9	23.8	14.2	10.0
2006	2,710	100.0	2.2	19.9	27.6	22.5	15.8	12.0
2007	2,928	100.0	2.4	19.2	26.6	22.7	16.8	12.3
2008	2,722	100.0	2.3	19.1	25.8	22.0	17.5	13.3
2009	2,690	100.0	2.3	18.9	21.9	21.8	18.3	16.8
2010	2,659	100.0	2.3	17.6	21.1	21.3	20.7	17.1
2011	2,819	100.0	2.4	17.7	20.7	20.9	20.5	17.7
2012	2,779	100.0	3.1	16.1	21.4	20.3	20.6	18.5
2013	2,776	100.0	2.6	16.4	19.7	20.2	21.7	19.3
2014	2,852	100.0	2.5	17.5	18.7	19.8	20.9	20.6
2015	2,903	100.0	2.8	18.0	16.8	19.0	21.2	22.2
2016	2,919	100.0	3.0	18.0	16.0	18.3	20.5	24.2
2017	2,946	100.0	2.7	18.3	15.4	18.4	20.4	24.9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각년도 8월

21. 시간제 근로자

(단위 : 천명, %)

	여 성			남 성		
	비정규직	시간제	구성비	비정규직	시간제	구성비
2003	2,327	690	29.7	2,295	239	10.4
2004	2,668	792	29.7	2,739	277	10.1
2005	2,741	730	26.6	2,727	307	11.3
2006	2,755	786	28.5	2,710	341	12.6
2007	2,804	840	29.9	2,928	359	12.3
2008	2,766	858	31.0	2,722	373	13.7
2009	3,092	1,061	34.3	2,690	367	13.6
2010	3,055	1,198	39.2	2,659	425	16.0
2011	3,234	1,237	38.3	2,819	470	16.7
2012	3,175	1,323	41.7	2,779	505	18.2
2013	3,201	1,360	42.5	2,776	523	18.8
2014	3,271	1,450	44.3	2,852	584	20.5
2015	3,405	1,553	45.6	2,903	684	23.5
2016	3,562	1,780	50.0	2,919	707	24.2
2017	3,632	1,902	52.4	2,946	761	25.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8월

22. 활동상태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비경제활동 인구[1]	계	육아	가사	재학·수강 등[2]	연로	심신장애	기타[3]
2000	9,563	100.0	18.5	48.3	21.6	7.3	1.2	3.2
2001	9,556	100.0	17.5	49.5	20.8	7.1	1.4	3.6
2002	9,557	100.0	16.3	51.2	20.3	7.1	1.6	3.5
2003	9,802	100.0	15.4	51.5	19.4	8.1	1.6	4.0
2004	9,678	100.0	15.6	52.2	18.6	7.3	1.7	4.5
2005	9,738	100.0	15.5	51.8	18.5	7.2	1.8	5.3
2006	9,804	100.0	15.4	51.5	19.1	6.9	1.8	5.3
2007	9,935	100.0	15.2	52.0	19.4	6.5	1.6	5.3
2008	10,127	100.0	15.4	52.0	19.6	6.4	1.4	5.1
2009	10,441	100.0	15.3	51.9	19.5	6.6	1.5	5.1
2010	10,511	100.0	14.1	53.4	19.3	6.7	1.5	5.0
2011	10,599	100.0	14.0	54.1	19.1	6.1	1.4	5.4
2012	10,653	100.0	13.9	54.8	18.9	6.1	1.3	5.0
2013	10,713	100.0	13.8	54.6	19.1	6.1	1.4	5.1
2014	10,578	100.0	13.5	54.2	19.1	6.8	1.6	4.8
2015	10,592	100.0	13.5	53.6	18.4	7.5	1.6	5.3
2016	10,622	100.0	12.8	53.8	18.1	8.2	1.6	5.6
2017	10,585	100.0	11.9	53.9	17.9	8.6	1.5	6.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주 : 1)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2)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수강,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을 포함

3) 학원·기관 수강 외 취업준비, 진학준비, 쉬었음 등을 포함

23. 근로여건[1)]

(단위 : 년, 시간, 천원, %)

	평균근속년수			월근로시간			월평균임금		
	남성	여성	차이 (남-여)	남성	여성	차이 (남-여)	남성	여성	비율[2)]
2000	6.4	4.0	2.4	211.4	200.5	10.9	1,474	954	64.8
2001	6.7	4.1	2.6	207.9	198.3	9.6	1,559	1,015	65.1
2002	6.3	4.0	2.3	204.3	195.9	8.4	1,716	1,112	64.8
2003	6.5	4.1	2.4	204.7	195.2	9.5	1,850	1,207	65.2
2004	6.6	4.1	2.5	212.1	203.5	8.6	1,958	1,286	65.7
2005	6.6	4.0	2.6	204.3	194.8	9.5	2,109	1,396	66.2
2006	6.7	4.0	2.7	200.3	192.8	7.5	2,249	1,497	66.5
2007	6.7	4.1	2.6	194.0	186.2	7.8	2,381	1,582	66.4
2008	6.7	4.1	2.6	191.6	182.6	9.0	2,527	1,681	66.5
2009	7.1	4.4	2.7	197.2	189.6	7.6	2,546	1,693	66.5
2010	7.0	4.4	2.6	195.7	186.9	8.8	2,648	1,772	66.9
2011	7.0	4.3	2.7	192.7	182.4	10.3	2,750	1,862	67.7
2012	7.1	4.4	2.7	185.8	175.7	10.1	2,878	1,958	68.0
2013	7.3	4.6	2.7	179.7	169.8	9.9	2,986	2,033	68.1
2014	6.9	4.5	2.4	179.8	168.9	10.9	3,122	2,092	67.0
2015	7.1	4.6	2.5	188.5	176.7	11.8	3,215	2,119	65.9
2016	7.3	4.8	2.5	186.3	174.5	11.8	3,289	2,203	67.0
2017	7.2	4.7	2.5	185.4	173.0	12.4	3,418	2,298	67.2

자료 :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각년도

주 :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2) 남성=100.0일 때의 여성 월평균임금 비율임

24.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천명, %)

	임금근로자	국민연금[2)3)]	건강보험[2)]	고용보험
		< 전 체 >		
2012[1)]	17,932	65.2	68.3	64.3
2013	18,145	68.1	71.0	66.7
2014	18,734	68.9	72.0	68.8
2015	19,081	68.7	72.0	69.1
2016	19,467	70.2	73.6	71.1
2017	19,779	69.6	74.8	71.9
		< 여 성 >		
2012[1)]	7,790	57.6	59.8	56.4
2013	7,825	60.8	62.9	59.1
2014	8,125	62.2	64.4	61.9
2015	8,263	62.3	64.6	62.4
2016	8,545	64.3	67.0	64.8
2017	8,725	64.4	68.8	66.2
		< 남 성 >		
2012[1)]	10,143	71.1	74.9	70.4
2013	10,320	73.6	77.2	72.5
2014	10,609	74.1	77.8	74.1
2015	10,818	73.7	77.6	74.4
2016	10,922	74.9	78.7	76.0
2017	11,054	73.6	79.5	76.4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4월

주 : 1) 2012년은 6월 자료

2) 직장가입자만 집계하였으며 지역가입자, 수급권자, 피부양자는 제외

3)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특수직역연금 포함

25-1.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단위 : %)

	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소계	결혼 전까지	첫 자녀 출산 전까지	자녀 성장 후	출산전과 자녀 성장 후	가정일에 관계없이	가정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	잘 모르겠다
	< 전 체 >									
2011	100.0	84.3	100.0	4.7	7.1	14.1	23.5	50.6	8.0	7.8
2013	100.0	84.5	100.0	4.5	6.1	13.1	24.3	52.1	6.9	8.6
2015	100.0	85.4	100.0	3.4	5.7	14.8	24.8	51.3	6.9	7.8
2017	100.0	87.2	100.0	3.1	4.7	13.0	22.0	57.1	5.9	6.9
	< 여 성 >									
2011	100.0	87.6	100.0	4.1	6.0	13.0	23.9	53.1	6.3	6.2
2013	100.0	87.7	100.0	3.9	5.3	12.7	25.0	53.0	5.9	6.4
2015	100.0	88.7	100.0	3.1	4.8	14.0	25.3	52.8	5.5	5.9
2017	100.0	90.2	100.0	3.0	4.0	11.8	22.4	58.9	4.7	5.1
	< 남 성 >									
2011	100.0	80.9	100.0	5.4	8.4	15.3	23.0	47.8	9.7	9.4
2013	100.0	81.2	100.0	5.1	7.0	13.4	23.4	51.1	7.9	10.8
2015	100.0	81.9	100.0	3.7	6.7	15.8	24.2	49.6	8.3	9.8
2017	100.0	84.1	100.0	3.2	5.5	14.4	21.7	55.2	7.1	8.8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25-2. 여성취업 장애 요인

(단위 : %)

	계	사회적 편견 관행	직업의식 책임감 부족	불평등한 근로여건	일에 대한 여성 능력 부족	구인정보 부족	육아 부담	가족돌봄 (육아 제외)[1]	가사 부담	기타	잘 모르겠다
					< 전 체 >						
2011	100.0	21.4	4.3	10.9	1.9	2.1	46.4	-	6.2	0.1	6.9
2013	100.0	20.8	4.8	10.0	1.6	1.8	46.6	-	6.0	0.0	8.3
2015	100.0	21.5	4.6	10.8	2.2	1.2	47.5	-	5.9	0.1	6.2
2017	100.0	23.4	4.0	10.3	1.8	1.3	45.9	2.2	4.9	0.0	6.1
					< 여 성 >						
2011	100.0	20.2	2.9	11.6	1.7	2.3	48.8	-	6.9	0.1	5.6
2013	100.0	19.6	3.0	10.9	1.3	2.2	49.6	-	6.7	0.1	6.6
2015	100.0	20.4	2.9	11.6	1.7	1.5	50.5	-	6.6	0.0	4.8
2017	100.0	22.9	2.5	11.3	1.3	1.5	47.9	2.4	5.3	0.1	4.8
					< 남 성 >						
2011	100.0	22.6	5.7	10.2	2.1	1.8	43.9	-	5.5	0.1	8.3
2013	100.0	22.0	6.7	9.0	2.0	1.4	43.5	-	5.3	0.0	10.1
2015	100.0	22.6	6.3	10.0	2.6	1.0	44.4	-	5.3	0.1	7.7
2017	100.0	23.9	5.6	9.2	2.3	1.2	43.9	2.0	4.6	0.0	7.4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주 : 1) 2017년 추가된 항목임

26. 청년층(15~29세)[1]의 첫 직장 이직 사유

(단위 : %)

	계	근로여건 불만족	개인·가족적 이유	전망이 없어서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 계약기간 끝남	직장휴업, 폐업,파산 등	기 타[2]
					< 여 성 >			
2005	100.0	40.7	23.8	7.7	8.1	5.0	3.8	11.0
2006	100.0	40.7	22.5	9.1	7.7	4.7	3.6	11.8
2007	100.0	42.4	21.8	8.3	7.9	5.7	4.0	9.9
2008	100.0	42.7	20.7	8.5	6.8	7.0	3.2	11.1
2009	100.0	43.0	19.4	8.8	7.1	7.3	3.5	10.9
2010	100.0	42.4	19.3	8.9	7.7	7.7	3.3	10.8
2011	100.0	42.7	19.8	9.5	7.3	8.4	3.0	9.3
2012	100.0	44.4	20.7	7.4	8.1	7.8	2.1	9.6
2013	100.0	45.9	21.0	6.8	6.9	9.1	1.9	8.4
2014	100.0	44.9	20.2	7.0	6.9	10.8	1.9	8.4
2015	100.0	45.5	20.3	7.0	6.2	11.4	1.9	7.7
2016	100.0	47.1	16.1	6.4	6.4	10.6	3.0	10.3
2017	100.0	52.6	16.2	5.9	6.4	10.9	2.2	5.8
					< 남 성 >			
2005	100.0	42.9	17.2	10.3	6.5	6.0	3.5	13.6
2006	100.0	42.2	19.4	11.7	6.7	5.8	2.9	11.3
2007	100.0	42.4	18.7	11.0	7.6	6.2	3.3	10.8
2008	100.0	44.2	17.1	10.8	6.8	6.1	2.8	12.2
2009	100.0	43.1	15.1	11.1	5.7	7.1	3.9	14.0
2010	100.0	43.1	13.6	12.0	7.3	9.5	2.1	12.3
2011	100.0	41.6	16.5	10.3	7.0	9.6	1.8	13.1
2012	100.0	43.5	14.4	10.4	9.8	9.6	1.3	11.0
2013	100.0	44.0	15.9	10.0	8.4	9.4	2.6	9.8
2014	100.0	49.6	14.0	8.9	7.3	9.1	1.8	9.2
2015	100.0	49.8	12.1	8.4	6.7	11.0	1.9	10.1
2016	100.0	50.5	10.1	9.8	6.2	11.0	2.5	9.9
2017	100.0	49.1	10.8	8.7	7.0	13.5	2.5	8.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청년층) 결과」 각년도 5월

주 : 1)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 중 이직경험자, 실업 · 비경제활동인구 포함

2) 회사 내 인간관계, 창업 또는 가족사업 참여, 일자리가 없거나 회사사정 어려움, 권고사직, 기타

27. 대학진학률

(단위 : %, %p)

	대학진학률[1]	여학생	남학생	차 이 (여-남)
1999	63.3	60.8	65.6	-4.8
2000	62.0	60.3	63.5	-3.1
2001	65.0	63.3	66.6	-3.3
2002	68.8	67.9	69.7	-1.8
2003	72.6	71.9	73.2	-1.3
2004	73.2	72.9	73.6	-0.7
2005	73.4	73.6	73.2	0.4
2006	74.4	75.1	73.8	1.4
2007	76.5	77.6	75.6	2.0
2008	77.0	78.8	75.5	3.3
2009	77.8	79.4	76.3	3.1
2010	75.4	78.0	73.0	5.0
2011	72.5	75.0	70.2	4.8
2012	71.3	74.3	68.6	5.7
2013	70.7	74.5	67.4	7.1
2014	70.9	74.6	67.6	7.0
2015	70.8	74.6	67.3	7.3
2016	69.8	73.5	66.3	7.2
2017	68.9	72.7	65.3	7.4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진학률은 당해년도 졸업자 중 국내·외 상급학교에 진학한 사람의 비율(재수생 미포함)

* 2011년부터 4월 등록자 기준으로 변경(종전은 2월 합격자 기준)되어, 2010년 이전도 등록자 기준 진학률 시계열 비교를 위하여 대학 입학자 기준으로 대체한 진학률임

28. 여교원

(단위 : %)

	전 체	초등학교[1]	교장	교감	중학교[1]	교장	교감	고등학교[1]	교장	교감	대학(원)[2]
2000	47.5	66.4	7.0	8.9	57.6	8.7	8.9	29.7	4.5	2.7	15.9
2001	48.6	67.6	7.2	10.1	58.8	9.7	9.9	31.1	4.5	3.2	16.2
2002	50.0	68.2	7.0	10.9	59.7	10.2	11.7	35.2	4.9	3.7	16.7
2003	51.2	69.0	7.0	12.2	60.8	10.0	13.6	36.5	4.8	4.2	17.0
2004	52.0	70.0	7.7	13.2	61.5	9.8	15.0	37.4	5.5	4.5	17.4
2005	52.8	71.0	8.7	14.6	62.3	9.9	17.7	38.1	6.5	4.7	18.3
2006	53.6	72.0	9.3	16.0	63.0	11.1	19.0	39.1	6.0	5.3	18.9
2007	54.4	73.0	10.3	18.1	63.6	12.8	20.7	40.4	6.1	5.7	19.3
2008	55.5	74.0	11.3	19.8	64.5	14.4	22.2	42.1	5.8	5.5	19.9
2009	56.2	74.6	12.9	22.7	65.2	16.7	23.7	43.4	5.9	6.0	20.4
2010	56.7	75.1	14.3	26.9	65.7	17.6	25.6	44.3	6.4	7.6	21.1
2011	57.6	75.8	15.4	32.7	66.8	18.4	25.7	46.2	7.0	8.5	21.7
2012	58.0	76.2	16.7	39.3	67.3	19.4	26.2	47.3	7.8	8.9	22.4
2013	58.3	76.6	18.6	45.1	67.5	20.0	26.6	48.1	8.7	9.7	23.0
2014	58.7	76.7	22.0	49.2	67.9	21.3	28.1	48.9	8.9	10.3	23.6
2015	59.3	76.9	28.7	54.3	68.6	23.2	30.1	50.1	9.5	11.3	24.4
2016	59.6	77.0	34.5	56.7	68.8	24.3	31.8	50.8	9.9	13.9	24.8
2017	60.0	77.1	40.3	59.3	69.3	25.4	32.8	51.5	10.4	15.7	25.2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각년도

주 :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에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기간제교원)이 포함됨(휴직교원 포함)
강사 및 퇴직교원은 제외

2) 전문대학, 일반대학, 교육대학, 대학부설대학원(전임교원만 포함하며 시간강사 및 조교 미포함)

29. 학업성취도

(단위 : 점)

	읽기			수학			과학		
	남학생	여학생	차이 (남-여)	남학생	여학생	차이 (남-여)	남학생	여학생	차이 (남-여)
2000	519	533	-14	559	532	27	561	514	19
2003	525	547	-21	552	528	23	546	527	18
2006	539	574	-35	552	543	9	521	523	-2
2009	523	558	-35	548	544	3	537	539	-2
2012	525	548	-23	562	544	18	539	536	3
2015	498	539	-41	521	528	-7	511	521	-10
OECD 평균	479	506	-27	494	486	8	495	491	4

자료 : OECD(www.pisa.oecd.org), 만 15세 이상 중·고등학생 대상임

30. 여성 관리자

(단위 : %)

	여성 관리자 비율		
	전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2005	10.2	6.1	11.2
2006	11.0	6.3	12.1
2007	12.5	6.4	13.0
2008	14.1	8.4	15.2
2009	15.1	9.9	16.1
2010	16.1	10.5	17.1
2011	16.6	11.0	17.6
2012	17.0	11.6	18.0
2013	18.4	13.9	19.2
2014	19.4	15.9	20.0
2015	20.1	16.4	20.8
2016	20.4	16.5	21.2

자료 : 고용노동부,「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각년도(미승인 통계)
주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 여성 관리자 비율은 개별기업의 고용비율을 평균하여 산출하므로 단순 평균과는 차이가 있음

31-1. 여성 공무원

(단위 : 명, %)

	전체 공무원[1)3)]	여성	비율	행정부 국가공무원[2)3)]	여성	비율
2000	849,152	267,647	31.5	526,708	187,261	35.6
2001	859,329	282,028	32.8	540,751	200,784	37.1
2002	869,030	286,074	32.9	547,932	201,408	36.8
2003	891,949	302,830	34.0	567,558	215,043	37.9
2004	915,689	324,576	35.4	577,685	233,669	40.4
2005	915,221	348,710	38.1	566,086	245,196	43.3
2006	940,397	365,178	38.8	582,837	255,202	43.8
2007	963,132	385,759	40.1	603,131	272,636	45.2
2008	968,836	395,464	40.8	610,300	281,118	46.1
2009	978,087	400,571	41.0	615,490	284,022	46.1
2010	987,754	412,800	41.8	622,737	293,917	47.2
2011	989,138	413,248	41.8	621,313	292,038	47.0
2012	994,291	424,757	42.7	622,424	299,539	48.1
2013	1,001,272	429,042	42.8	621,823	299,101	48.1
2014	1,016,181	446,417	43.9	634,051	310,860	49.0
2015	1,026,201	457,540	44.6	637,654	315,290	49.4
2016	1,046,487	473,006	45.2	650,149	323,575	49.8
2017	1,060,632	488,387	46.0	656,665	329,808	50.2

자료 : 인사혁신처, 「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행정부(국가+지방), 입법, 사법, 헌법기관, 선관위를 포함한 전체 공무원 수

2) 2011년부터 지방에 두는 국가공무원을 포함하여 집계

3)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실 직원은 제외

31-2. 일반직 국가공무원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단위 : 명, %)

	4급이상[1]	여성 비율	고위 공무원	여성 비율	3급	여성 비율	4급	여성 비율
2000	4,917	2.1	-	-	708	2.1	3,844	2.3
2001	4,944	2.1	-	-	716	2.1	3,864	2.2
2002	5,111	2.2	-	-	722	1.9	3,976	2.4
2003	5,150	2.5	-	-	737	1.4	4,023	2.9
2004	5,469	2.9	-	-	763	1.6	4,326	3.2
2005	6,117	3.2	-	-	913	2.0	4,736	3.8
2006	6,421	3.9	882	1.0	534	4.1	4,988	4.4
2007	7,008	4.5	980	1.0	613	4.1	5,415	5.2
2008	6,776	4.9	901	1.4	559	3.9	5,316	5.6
2009	6,971	5.8	948	1.9	606	4.6	5,417	6.6
2010	7,014	6.3	936	2.4	617	4.7	5,461	7.2
2011	7,132	7.3	976	3.2	652	4.0	5,504	8.4
2012	7,326	8.2	1,033	3.7	686	5.0	5,607	9.4
2013	7,256	8.8	991	3.7	659	5.2	5,606	10.1
2014	7,444	9.7	1,011	3.4	680	5.3	5,753	11.3
2015	7,634	10.6	1,031	3.7	733	6.3	5,870	12.4
2016	7,917	12.1	1,051	4.9	793	6.6	6,073	14.1
2017	7,979	13.2	1,050	5.2	775	6.2	6,154	15.5

자료 : 인사혁신처, 「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행정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연구·지도·우정직·전문직·외무·별정·일반임기제 제외
2006년 이전은 1, 2급 포함

31-3. 여성 법조인

(단위 : 명, %)

	계	여성비율	판 사[1]	여성비율	검 사[1]	여성비율	변호사[2]	여성비율
2000	6,776	3.1	1,409	6.8	1,139	1.8	4,228	2.3
2001	7,298	3.6	1,489	6.6	1,191	2.4	4,618	2.9
2002	7,949	4.2	1,607	7.1	1,269	3.9	5,073	3.4
2003	8,666	5.0	1,729	7.9	1,351	5.0	5,586	4.1
2004	9,568	5.8	1,856	9.1	1,412	6.2	6,300	4.7
2005	10,396	6.9	1,934	11.3	1,465	7.0	6,997	5.6
2006	11,133	8.1	2,036	13.4	1,495	9.2	7,602	6.5
2007	11,988	9.7	2,295	18.7	1,550	11.6	8,143	6.8
2008	12,859	10.4	2,364	21.0	1,618	13.6	8,877	7.0
2009	13,796	13.7	2,469	22.7	1,715	18.5	9,612	10.5
2010	14,446	15.0	2,567	24.0	1,749	20.8	10,130	11.7
2011	15,411	16.7	2,627	25.5	1,808	22.7	10,976	13.6
2012	17,150	18.7	2,738	26.8	1,880	24.1	12,532	16.1
2013	18,938	21.2	2,779	27.4	1,917	25.4	14,242	19.4
2014	20,680	22.9	2,737	27.4	1,989	26.6	15,954	21.7
2015	22,207	24.1	2,762	27.6	2,021	27.7	17,424	23.2
2016	23,824	25.3	2,907	27.8	2,067	28.7	18,850	24.4
2017	25,210	26.1	2,945	28.9	2,083	29.4	20,182	25.3

자료 : 인사혁신처「통계연보」각년도, 대한변호사협회「한국 변호사백서 2010」

주 : 1) 2009년부터 '판사'와 '검사'는 인사혁신처 자료임

2) 개업변호사 기준

32. 의료 분야

(단위 : 명, %)

	의 사	여성비율	치과의사	여성비율	한의사	여성비율	약 사	여성비율
1980	22,564	13.6	3,620	10.9	3,015	2.4	24,366	50.4
1985	29,596	13.7	5,436	10.2	3,789	3.5	29,866	52.7
1990	42,554	14.6	9,619	15.4	5,792	5.9	37,118	57.3
1991	45,496	15.5	10,137	15.9	6,120	6.1	38,396	57.9
1992	48,390	15.8	11,285	17.3	6,839	6.7	39,564	58.5
1993	51,518	16.8	12,180	18.1	7,569	6.8	40,779	58.6
1994	54,406	17.6	12,939	19.0	8,179	7.8	42,037	57.6
1995	57,188	17.8	13,681	20.2	8,714	8.1	43,269	58.4
1996	59,399	18.0	14,371	20.8	9,299	8.5	44,577	58.8
1997	62,609	18.0	15,383	21.2	9,289	8.5	45,820	59.2
1998	65,431	18.2	16,126	21.5	9,914	9.1	46,998	59.5
1999	69,724	17.4	17,276	20.2	11,345	9.9	49,214	61.0
2000	72,503	17.6	18,039	20.7	12,108	11.1	50,623	61.3
2001	75,295	18.0	18,887	21.2	12,794	11.4	51,872	61.6
2002	78,609	18.4	19,672	21.6	13,662	11.9	53,168	61.9
2003	81,328	18.4	20,446	21.9	14,553	12.1	54,381	62.1
2004	81,998	19.2	20,772	22.8	14,421	13.1	53,492	63.8
2005	85,369	19.7	21,581	23.0	15,271	13.5	54,829	64.0
2006	88,214	20.5	22,267	23.7	15,918	14.3	55,845	64.3
2007	91,475	21.1	23,126	24.1	16,732	15.0	57,176	64.3
2008	95,088	21.6	23,924	24.5	17,541	15.7	58,363	64.3
2009	98,434	22.2	24,639	24.9	18,401	16.4	59,717	64.2
2010	101,443	22.6	25,390	25.3	19,132	16.9	60,956	64.1
2011	104,397	23.0	26,098	25.6	19,912	17.4	62,245	64.0
2012	107,221	23.3	26,791	25.9	20,600	18.1	63,647	64.0
2013	109,500	23.9	27,398	26.1	21,287	18.8	63,292	64.3
2014	112,407	24.4	28,123	26.4	22,007	19.5	63,150	64.3
2015	115,976	24.7	28,947	26.6	23,178	19.7	65,510	63.8
2016	118,696	25.1	29,632	26.8	23,845	20.4	66,992	64.0
2017	121,571	25.4	30,333	27.0	24,560	21.0	68,616	64.0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주 : 해외거주자 포함(사망자 및 취소자 제외)

33.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단위 : 명, %)

	국회 의원[1]	여성 의원	비 율	지방의회 의원[2]	여성 의원	비 율
1963	175	2	1.1	-	-	-
1967	175	3	1.7	-	-	-
1971	204	5	2.5	-	-	-
1973	146	12	8.2	-	-	-
1978	154	1	0.6	-	-	-
1981	276	8	2.9	-	-	-
1985	276	8	2.9	-	-	-
1988	299	6	2.0	-	-	-
1991	-	-	-	5,169	48	0.9
1992	299	3	1.0	-	-	-
1995	-	-	-	5,511	127	2.3
1996	299	27	9.0	-	-	-
1998	-	-	-	4,179	97	2.3
2000	273	35	12.8	-	-	-
2002	-	-	-	4,167	140	3.4
2004	299	39	13.0	-	-	-
2006	-	-	-	3,621	525	14.5
2008	299	41	13.7	-	-	-
2010	-	-	-	3,649	739	20.3
2012	300	47	15.7	-	-	-
2014	-	-	-	3,687	845	22.9
2016	300	51	17.0	-	-	-
2017	-	-	-	3,750	1,060	28.3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국회의원선거총람」 각년도
2)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각년도

34. 문화활동(복수응답)

(단위 : %)

	관람함[1]	음악 연주회	연극 마당극 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관람	미술관 관람	스포츠 관람
				< 전 체 >				
2011	58.6	25.2	25.0	2.6	81.8	26.4	20.7	24.3
2013	63.4	21.7	24.2	2.4	85.9	25.8	19.4	22.0
2015	66.8	20.6	22.4	1.8	88.1	26.6	19.1	21.1
2017	66.5	20.8	22.6	1.9	88.4	25.1	20.3	25.2
				< 여 성 >				
2011	59.2	28.7	30.2	3.3	85.5	28.4	24.4	14.9
2013	63.8	25.0	29.2	3.0	88.1	27.3	22.8	12.8
2015	67.7	23.5	27.1	2.2	90.2	28.4	22.3	12.8
2017	67.1	24.3	27.5	2.6	90.4	27.2	24.5	15.5
				< 남 성 >				
2011	58.0	21.4	19.6	1.9	77.8	24.3	16.8	34.2
2013	63.0	18.2	18.9	1.8	83.6	24.2	15.9	31.6
2015	65.8	17.6	17.4	1.2	85.8	24.7	15.7	30.0
2017	66.0	17.1	17.4	1.3	86.2	22.9	16.0	35.2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주 : 1)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 공연 및 스포츠를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

35-1. 여가 활용(복수응답)

(단위 : %)

	TV·DVD 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취미 자기 개발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 주중의 여가활용 >										
2017	81.1	11.7	2.9	4.3	14.4	4.1	35.7	22.2	65.8	6.7	0.4
남 성	79.9	10.0	2.5	7.2	18.4	3.5	41.6	19.5	63.9	4.7	0.3
여 성	82.3	13.3	3.2	1.5	10.4	4.7	29.9	24.9	67.6	8.7	0.4
13~19세	65.9	15.9	6.8	1.9	4.4	2.3	70.1	30.9	64.9	6.3	0.4
20~29세	74.6	25.5	4.1	2.9	7.2	5.3	50.5	31.9	66.7	3.3	0.3
30~39세	82.5	16.8	2.7	2.2	8.2	6.6	45.0	29.2	66.8	4.1	0.3
40~49세	80.0	14.9	3.8	1.6	14.6	5.0	31.4	29.2	66.6	8.6	0.5
50~59세	85.8	10.9	3.2	1.0	14.4	5.6	17.3	21.2	66.2	11.7	0.3
60세 이상	91.1	4.1	1.5	0.4	9.7	3.2	3.5	15.6	71.1	13.5	0.7
	<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 >										
2017	69.4	21.3	2.6	5.2	15.4	19.2	26.9	17.6	64.9	12.8	0.5
남 성	67.5	18.3	2.4	8.3	22.3	17.3	32.6	17.2	62.3	9.7	0.4
여 성	71.3	24.2	2.9	2.2	8.6	21.0	21.2	17.9	67.5	15.8	0.6
13~19세	56.7	34.2	5.6	2.4	4.7	10.9	60.7	24.4	64.4	13.1	0.3
20~29세	56.4	45.0	5.0	3.6	5.2	26.4	36.4	24.8	65.1	9.5	0.5
30~39세	64.7	31.0	3.0	3.1	7.8	37.5	29.0	18.9	65.3	9.6	0.8
40~49세	71.2	28.2	2.8	2.6	10.9	24.8	19.7	20.3	67.7	14.7	0.7
50~59세	75.6	18.7	2.4	2.1	12.3	19.0	11.5	15.2	68.0	19.7	0.5
60세 이상	85.7	5.7	1.0	0.5	8.0	9.5	2.9	11.2	70.9	22.2	0.7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2017

35-2. 여가 활용을 함께 하는 사람

(단위 : %)

	계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혼자서	직장동료와 함께	기타
	< 주중의 여가활동 함께하는 사람 >						
2017	100.0	43.4	18.3	3.9	30.3	4.0	0.0
남 성	100.0	43.5	16.8	3.8	30.2	5.6	0.0
여 성	100.0	43.3	19.6	4.0	30.5	2.4	0.1
13~19세	100.0	25.2	42.9	0.4	31.2	0.2	0.1
20~29세	100.0	30.7	31.5	1.0	34.1	2.6	-
30~39세	100.0	55.0	14.2	1.8	25.8	3.2	0.0
40~49세	100.0	48.5	16.1	5.4	25.8	4.1	0.1
50~59세	100.0	47.2	15.1	6.3	27.9	3.3	0.0
60세 이상	100.0	42.5	14.4	5.7	36.4	0.8	0.1
	<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 함께하는 사람 >						
2017	100.0	55.3	21.1	6.7	15.6	1.3	0.0
남 성	100.0	52.3	22.3	6.8	16.7	1.9	0.0
여 성	100.0	58.3	20.0	6.6	14.5	0.7	0.0
13~19세	100.0	41.3	37.4	2.5	18.4	0.4	0.1
20~29세	100.0	34.2	49.1	2.9	12.9	0.8	-
30~39세	100.0	75.5	15.8	2.2	6.1	0.3	0.0
40~49세	100.0	73.9	10.1	5.3	9.6	1.1	0.0
50~59세	100.0	61.2	13.3	10.0	14.3	1.2	-
60세 이상	100.0	53.3	12.1	11.1	23.2	0.2	0.1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2017

36-1. 기부경험과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기부경험		기부하지 않은 이유						
	있음[1]	없음	소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기부 방법을 몰라서	기부단체 신뢰할 수 없어서	직접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기타
					< 전 체 >				
2011	36.4	63.6	100.0	62.6	18.6	3.7	8.9	5.7	0.5
2013	34.6	65.4	100.0	60.9	18.3	4.2	8.2	7.8	0.6
2015	29.9	70.1	100.0	63.5	15.2	3.5	10.6	7.1	0.2
2017	26.7	73.3	100.0	57.3	23.2	4.1	8.9	6.3	0.1
					< 여 성 >				
2011	34.2	65.8	100.0	63.0	17.5	3.9	8.7	6.3	0.6
2013	32.1	67.9	100.0	60.7	17.9	4.6	8.1	7.9	0.8
2015	29.0	71.0	100.0	64.7	14.0	3.6	10.0	7.4	0.3
2017	27.4	72.6	100.0	58.8	21.7	4.3	8.5	6.6	0.1
					< 남 성 >				
2011	38.7	61.3	100.0	62.1	19.9	3.5	9.0	5.1	0.4
2013	37.2	62.8	100.0	61.1	18.8	3.9	8.3	7.6	0.3
2015	30.8	69.2	100.0	62.2	16.4	3.3	11.2	6.8	0.1
2017	25.9	74.1	100.0	55.8	24.7	4.0	9.4	6.1	0.1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주 : 1)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한 적이 있는 사람

36-2.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

(단위 : %, 회, 시간)

	참여 경험		참여 횟수 및 시간		향후 1년 이내 참여 의향	
	있음[1]	없음	평균 횟수	평균 시간[2]	있음	없음
			< 전 체 >			
2011	19.8	80.2	7.1	24.7	45.6	54.4
2013	19.9	80.1	7.6	25.1	43.2	56.8
2015	18.2	81.8	7.8	24.4	37.3	62.7
2017	17.8	82.2	8.3	25.6	37.0	63.0
			< 여 성 >			
2011	20.1	79.9	7.6	26.1	46.0	54.0
2013	20.1	79.9	8.4	26.4	44.0	56.0
2015	18.7	81.3	8.5	25.7	38.6	61.4
2017	18.8	81.2	9.2	27.2	38.1	61.9
			< 남 성 >			
2011	19.6	80.4	6.5	23.3	45.3	54.7
2013	19.6	80.4	6.7	23.7	42.5	57.5
2015	17.7	82.3	7.0	23.0	35.9	64.1
2017	16.8	83.2	7.3	23.7	36.0	64.0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주 : 1)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

2) 자원봉사활동 참여인구 1인당 연간 평균 참여시간

37. 단체참여(복수응답)

(단위 : %)

	참여자[1]	친목 사교 단체	종교 단체	취미 스포츠 여가활동 단체	시민 사회 단체	학술 단체	이익 단체	정치 단체	지역 사회 모임	기타
					< 전 체 >					
2011	46.6	73.1	28.7	34.0	11.0	4.7	2.5	1.0	10.1	0.7
2013	50.1	75.3	26.4	32.8	11.3	4.6	2.1	0.7	8.9	0.3
2015	48.9	75.6	27.2	35.2	9.4	5.3	2.5	0.6	9.2	0.1
2017	49.7	78.2	28.2	43.6	8.4	5.6	3.8	1.3	10.4	0.1
					< 여 성 >					
2011	45.4	71.0	34.6	27.4	11.1	4.1	1.4	0.6	10.6	1.0
2013	47.9	73.2	32.0	25.5	11.7	4.0	1.3	0.4	9.2	0.3
2015	47.3	73.4	33.0	29.0	10.2	4.7	1.4	0.3	9.9	0.1
2017	48.7	76.1	33.7	37.0	9.4	4.9	2.6	0.9	10.8	0.1
					< 남 성 >					
2011	47.8	75.2	22.9	40.5	10.9	5.2	3.6	1.4	9.6	0.5
2013	52.4	77.3	21.2	39.8	10.8	5.1	2.8	1.0	8.6	0.3
2015	50.5	77.7	21.7	41.1	8.6	5.9	3.7	0.9	8.6	0.0
2017	50.7	80.3	22.7	50.0	7.5	6.2	5.0	1.7	10.0	0.0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 1)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 동창회, 취미활동 등의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

38. 사회적 관계망

(단위 : %, 명)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1]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 받을 사람 있음	사람 수	도움 받을 사람 있음	사람 수	도움 받을 사람 있음	사람 수
	< 전 체 >					
2011	75.9	2.4	48.6	2.6	81.0	3.2
2013	74.7	2.2	47.0	2.5	81.1	3.1
2015	76.8	2.2	50.1	2.4	82.4	2.9
2017	78.4	2.4	51.9	2.3	83.6	3.1
	< 여 성 >					
2011	74.9	2.3	47.8	2.5	82.1	3.1
2013	74.4	2.2	45.9	2.3	82.9	3.0
2015	76.7	2.1	49.8	2.3	84.2	2.9
2017	78.8	2.3	52.0	2.2	86.0	3.1
	< 남 성 >					
2011	76.9	2.5	49.5	2.7	79.8	3.2
2013	75.0	2.3	48.1	2.6	79.2	3.1
2015	76.9	2.2	50.4	2.4	80.5	3.0
2017	77.9	2.4	51.9	2.5	81.2	3.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 1) 만 19세 이상 인구 대상임

39-1. 투표율

(단위 : %)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2007	2012	2017	2008	2012	2016	2010	2014	2018[1)]
전 체	63.0	75.8	77.2	46.1	54.2	58.0	54.5	56.8	60.2
여 성	63.1	76.4	77.3	44.3	53.1	57.4	54.7	57.2	-
남 성	63.3	74.8	76.2	48.4	55.7	58.8	55.1	57.2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총람」,「국회의원선거총람」,「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각년도
주 : 1) 2018년 6.13.선거 성별 투표율은 표본조사 결과를 통해 선거총람 보고서에 공표예정임

39-2. 제19대 대통령 선거 성별 · 연령별 투표율(2017년)

(단위 : %)

	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전체	77.7	77.1	74.9	74.3	74.1	74.9	78.6	84.1	81.8	56.2
여 성	80.9	79.1	79.0	77.1	77.0	77.0	79.3	83.1	78.5	49.5
남 성	74.8	75.4	71.1	71.7	71.4	72.9	77.9	85.2	86.1	70.8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총람」2017

40.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단위 : %)

	계	전반적인 사회안전			국가안보			자연재해		
		안전[2]	보통	불안[3]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 여 성 >					
2010[1]	100.0	9.2	49.2	41.5	12.9	32.3	54.8	16.4	45.1	38.5
2012	100.0	11.3	48.1	40.6	19.7	39.2	41.1	20.8	45.2	34.0
2014	100.0	7.4	37.0	55.6	12.5	32.7	54.8	13.3	39.8	46.9
2016	100.0	10.6	38.5	50.9	17.8	34.0	48.3	18.6	42.6	38.8
					< 남 성 >					
2010[1]	100.0	13.4	51.2	35.3	17.0	32.8	50.2	21.2	45.8	33.0
2012	100.0	16.2	49.8	34.0	24.3	37.8	37.9	25.8	45.4	28.8
2014	100.0	11.7	42.2	46.0	17.5	34.2	48.3	17.0	41.5	41.5
2016	100.0	15.9	44.0	40.1	21.8	35.7	42.5	22.9	44.2	32.9

	계	건출물 및 시설물			교통사고			화재·산불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 여 성 >					
2010[1]	100.0	20.9	56.1	23.1	7.2	40.1	52.8	15.2	55.1	29.7
2012	100.0	24.0	53.1	22.9	8.5	38.6	52.9	16.1	54.2	29.8
2014	100.0	10.1	34.8	55.1	6.3	35.3	58.4	12.4	50.7	36.9
2016	100.0	18.3	45.1	36.6	9.3	38.2	52.5	17.8	51.0	31.2
					< 남 성 >					
2010[1]	100.0	26.1	53.1	20.8	8.8	41.4	49.8	18.0	55.1	26.9
2012	100.0	28.5	52.0	19.5	10.2	40.2	49.6	19.4	54.0	26.6
2014	100.0	14.1	38.6	47.3	8.3	37.8	53.9	16.0	52.0	32.0
2016	100.0	23.2	45.9	30.9	11.2	40.7	48.1	20.5	52.6	27.0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주 : 1) 2010년은 조사대상이 15세 이상 인구임
2) '매우 안전하다'와 '비교적 안전하다'를 합한 수치임
3) '비교적 불안하다'와 '매우 불안하다'를 합한 수치임

40.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계속)

(단위 : %)

	계	먹거리			식량안보			정보보안		
		안전[2]	보통	불안[3]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 여 성 >					
2010[1]	100.0	-	-	-	33.3	46.8	19.8	12.5	44.0	43.5
2012	100.0	-	-	-	28.8	46.5	24.7	11.6	40.2	48.2
2014	100.0	12.4	39.7	47.9	23.8	47.3	28.9	6.4	30.4	63.2
2016	100.0	15.9	39.6	44.5	27.7	46.7	25.6	11.0	35.6	53.4
					< 남 성 >					
2010[1]	100.0	-	-	-	36.4	44.7	18.9	14.5	41.0	44.5
2012	100.0	-	-	-	31.5	44.5	24.0	13.5	38.7	47.8
2014	100.0	15.9	41.9	42.2	26.3	46.7	27.0	8.4	29.1	62.5
2016	100.0	18.9	42.6	38.5	31.0	45.9	23.1	12.9	36.6	50.5

	계	신종질병			범죄발생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 여 성 >		
2010[1]	100.0	8.7	34.3	56.9	6.4	25.8	67.9
2012	100.0	11.0	38.2	50.8	6.8	23.8	69.4
2014	100.0	7.8	34.3	58.0	6.4	23.1	70.6
2016	100.0	7.8	26.6	65.5	6.6	20.1	73.3
					< 남 성 >		
2010[1]	100.0	11.7	37.1	51.2	10.0	31.6	58.4
2012	100.0	14.9	41.1	44.0	11.4	29.8	58.7
2014	100.0	11.1	36.9	52.1	11.5	30.2	58.3
2016	100.0	10.9	30.7	58.4	12.0	27.4	60.6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주 : 1) 2010년은 조사대상이 15세 이상 인구임
2) '매우 안전하다'와 '비교적 안전하다'를 합한 수치임
3) '비교적 불안하다'와 '매우 불안하다'를 합한 수치임

41. 주요 범죄의 피해자

(단위 : 건)

	형법범 중 주요 범죄의 피해자 현황						
	절도	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	상해	사기
				< 여 성 >			
2005	61,130	504	2,945	10,780	5,916	9,615	53,380
2006	61,659	445	2,512	12,403	20,231	25,489	53,772
2007	69,222	467	2,223	12,718	30,684	30,517	51,686
2008	71,831	447	2,281	14,094	34,111	28,298	57,236
2009	83,420	570	3,041	14,954	35,436	26,550	62,715
2010	81,565	465	1,976	17,858	28,561	19,773	55,370
2011	69,921	477	1,926	20,527	36,719	21,464	35,286
2012	96,101	413	1,342	19,998	39,577	20,583	71,764
2013	95,060	363	967	23,532	35,999	18,409	85,106
2014	86,452	404	789	27,129	40,607	19,017	78,018
2015	80,368	391	674	27,959	50,306	19,253	83,406
2016	69,170	379	535	26,116	55,175	17,312	74,507
				< 남 성 >			
2005	116,353	512	1,907	433	7,971	12,855	113,619
2006	118,972	558	1,917	507	34,034	42,057	120,364
2007	134,240	631	2,117	697	57,254	54,983	112,086
2008	141,264	646	2,385	635	63,618	51,485	121,521
2009	160,684	777	3,137	747	69,720	49,648	129,596
2010	154,296	700	1,996	702	58,218	37,623	113,328
2011	135,209	723	2,033	816	84,660	45,203	68,712
2012	191,971	584	1,249	831	86,429	42,033	146,016
2013	184,366	573	1,011	1,060	69,295	36,431	161,515
2014	170,686	511	768	1,375	83,623	38,336	147,074
2015	157,021	536	744	1,448	86,450	35,713	151,014
2016	128,660	521	596	1,478	88,879	30,701	146,865

자료 : 대검찰청,「범죄분석」각년도

42. 주요 범죄의 범죄자

(단위 : 명)

	형법범 중 주요 범죄의 범죄자 현황						
	절도	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	상해	사기
				< 여 성 >			
2005	8,709	117	183	41	3,944	6,854	72,834
2006	10,414	117	199	65	11,183	14,119	68,350
2007	11,967	101	259	51	16,354	15,358	56,237
2008	13,928	115	323	116	23,053	18,316	55,259
2009	19,451	119	461	136	23,974	17,140	61,016
2010	19,453	148	261	161	20,849	13,991	49,522
2011	20,690	145	449	297	22,066	12,396	49,524
2012	21,146	173	281	386	25,172	13,571	60,915
2013	21,349	141	256	386	25,278	11,758	62,247
2014	19,949	170	186	428	31,288	16,228	49,147
2015	21,579	169	215	486	36,156	15,040	53,354
2016	24,543	146	172	617	39,733	13,391	51,405
				< 남 성 >			
2005	47,593	821	2,614	8,314	17,132	26,908	187,691
2006	52,169	778	2,637	10,016	64,153	76,667	194,861
2007	57,393	772	2,663	9,286	94,344	87,531	168,572
2008	68,777	794	3,414	12,786	126,296	104,211	179,690
2009	87,636	956	4,569	13,717	131,526	97,606	197,494
2010	81,979	854	3,025	16,532	120,881	84,903	164,794
2011	83,197	975	3,870	17,894	129,653	72,401	168,490
2012	87,053	925	3,222	18,478	141,363	73,349	218,419
2013	85,259	887	2,462	22,066	140,008	65,235	235,466
2014	76,123	866	1,911	24,710	169,974	85,703	179,200
2015	82,031	833	1,806	26,651	183,077	78,009	184,535
2016	82,288	866	1,566	28,627	195,133	69,454	181,007

자료 : 대검찰청,「범죄분석」각년도

43. 1366(여성긴급전화) 상담

(단위 : 건)

	계	가정폭력	가족문제	부부갈등	이혼	중독	성폭력	성상담	성매매	법률	기타[1]
						< 상담 건수 >					
2005	154,912	47,266	9,075	13,451	13,425	2,501	8,289	7,652	2,558	5,007	45,688
2006	164,181	50,838	7,674	14,176	9,871	2,695	9,228	6,749	2,275	6,478	54,197
2007	160,899	48,678	8,258	13,492	8,372	2,199	8,427	6,297	1,936	7,507	55,733
2008	158,635	47,760	8,991	11,887	7,215	2,148	8,205	6,419	1,817	6,876	57,317
2009	190,859	65,074	12,839	12,483	6,400	1,861	8,291	5,584	1,887	5,395	71,045
2010	183,240	60,489	9,743	9,411	5,688	3,228	8,688	5,695	1,497	4,561	74,240
2011	191,050	71,070	9,639	8,453	4,249	3,206	9,700	5,382	2,027	3,783	73,541
2012	223,109	94,984	10,181	8,780	4,453	2,742	12,156	3,883	2,324	4,488	79,118
2013	253,616	122,229	10,215	8,604	4,382	2,288	15,636	3,724	2,981	4,642	78,915
2014	265,792	137,560	8,498	6,773	4,125	2,324	17,007	1,789	3,070	4,470	80,176
2015	274,226	159,081	7,327	5,583	3,830	1,734	16,239	1,204	3,046	3,687	72,495
2016	266,901	164,937	6,415	5,164	3,256	1,321	16,526	863	2,647	2,711	63,061
2017	289,032	180,326	6,302	5,027	2,477	1,445	21,470	508	3,405	2,212	65,860
						< 구 성 비 >					
2005	100.0	30.5	5.9	8.7	8.7	1.6	5.4	4.9	1.7	3.2	29.5
2006	100.0	31.0	4.7	8.6	6.0	1.6	5.6	4.1	1.4	3.9	33.0
2007	100.0	30.3	5.1	8.4	5.2	1.4	5.2	3.9	1.2	4.7	34.6
2008	100.0	30.1	5.7	7.5	4.5	1.4	5.2	4.0	1.1	4.3	36.1
2009	100.0	34.1	6.7	6.5	3.4	1.0	4.3	2.9	1.0	2.8	37.2
2010	100.0	33.0	5.3	5.1	3.1	1.8	4.7	3.1	0.8	2.5	40.5
2011	100.0	37.2	5.0	4.4	2.2	1.7	5.1	2.8	1.1	2.0	38.5
2012	100.0	42.6	4.6	3.9	2.0	1.2	5.4	1.7	1.0	2.0	35.5
2013	100.0	48.2	4.0	3.4	1.7	0.9	6.2	1.5	1.2	1.8	31.1
2014	100.0	51.8	3.2	2.5	1.6	0.9	6.4	0.7	1.2	1.7	30.2
2015	100.0	58.0	2.7	2.0	1.4	0.6	5.9	0.4	1.1	1.3	26.4
2016	100.0	61.8	2.4	1.9	1.2	0.5	6.2	0.3	1.0	1.0	23.6
2017	100.0	62.4	2.2	1.7	0.9	0.5	7.4	0.2	1.2	0.8	22.8

자료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주 : 1) 종교갈등, 보건상담(치매상담 등), 이성교제, 미혼모, 취업직업훈련 등